보이차
www.hongdawon.com
진년보이차 진품지사호 직수입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월 24일(음력 12월 6일) 수요일 (주간) 제 612 호

복지법인 운영개선 서둘러야

개방형이사제 · 외부회계감사제 등 도입 법제화 움직임 분주 "교계도 대책 세워야"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회복지법인 운영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등 비리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가청렴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에 개방형 이사제와 외부 회계감사제 등을 도입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시 · 도지사가 관선이사 1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는 올해 6월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했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생활 인원수나 직원수를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회계 관련서류 조작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 이사제나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고, 사유재산 침해 논란의 불씨가 된다는 점에서 불교계에서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발간한 <불교사회복지편람 2006>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388개이고 이 중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80.2%인 312개소다. 시설 소유 형태는 정부(지자체) 소유가 59.1%인 230개소이며 재정규모 역시 정부보조금이 결산총액의 30여%를 차지한다. 정부가 '지원금'을 무기로 법률 제정을 강행한다면, 불교계 복지법인들에서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은 "관선이사나 개방형이사 등의 제도 도입은 복지법인의 자발적 참여에 맡겨야지, 법률에 의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일고 있다. 서울사회복지법인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월 8일 결의대회를 열었고, 이어 오는 2월에는 여의도에서 전국 사회복지법인 대표자와 시설장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될 예정이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완 스님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법인 설립의 기본 정신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불교계에서도 시급히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하례회 2부 다과회에 참석한 불교계 지도자 스님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정해년 좋은 한해를 맞아 만복을 기원하며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충용 종로구청장,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손학규 前 경기도지사, 진각종 회정 통리원장, 정동영 前 열린우리당 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이해봉 국회정각회장, 이명박 前 서울시장, 박진 한나라당 의원,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 사진= 박재완 기자

'山寺' 세계문화유산

문화재청, 잠정목록에 등재

문화재청이 '산사(山寺)'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월 17일 문화재관람료 논란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산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산사'를 세계문화유산 등재 잠정목록에 이미 포함해 등재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선택하는 중이다. 유 청장은 "지리산의 산사와 조계산의 산사를 한데 묶어 '지리산사' '조계산사'로 등재하거나 '남도 사찰군'의 형태로 등재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사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면 문화재관람료 문제도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봉영 기자

사 고

예비수험생 · 학부모님 '자비명상'으로 만점 도전!

본사는 예비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빚어질 수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를 드리고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마가 스님 자비명상'을 마련했습니다.

이 강좌는 부처님께서 장자 아들에게 설하신 〈육방예경〉에 근거한 것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1년을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가 스님은 공주 마곡사에서 포교국장으로 재직하며 4년간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 마곡사를 대표적인 템플스테이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2003년부터 중앙대 겸임교수로서 '내 마음 바로 보기'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사** : 마가 스님
- **장소** : 대치3동 대치3문화센터
- **참가인원** : 100쌍(200명)
- **시간** : 매 회 오후 3시~5시(2시간)
- **연락처** : (02)2004-8279, 011-737-2658
- **참가비** : 1인 2만원

회차	날짜	장소
1차	2월 10일	대치3문화센터
2차	2월 11일	대치3문화센터
3차	2월 24일	대치3문화센터
4차	2월 25일	대치3문화센터

사 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주부터 24면…구독료 5000원 그대로

2007년 정해년을 맞아 독자 여러분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복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지면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대불교신문은 내부사정으로 폐간 위기에 부딪쳤으나 다행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문을 계속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기존의 32면에서 24면으로 지면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5년 전 월 구독료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현행 구독료를 고수해 왔습니다. 그간 종이값과 인쇄비, 우편료 등 신문제작비용이 적지 않게 인상됐지만 독자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지켜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포교사입니다.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위 분들에게도 현대불교신문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대불교신문 법보시 후원에도 독자 여러분은 물론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은 24면 속에 더욱 알차고 풍부한 내용을 담아 독자 여러분들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에 대한 제안이나 고견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안 · 제보 · 의견 제시 : (02)2004-8200(대표전화)

I Love Buddha / 생각의 그림자

용정운(www.buddhaillust.org)



"정도 따르면 안정 · 화합 가능"

종단협 신년하례법회…정치인 대거 참여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신년하례법회에 정동영 前 열린우리당 의장, 김명곤 문광부 장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前 서울시장, 손학규 前 경기도지사등 정관계 인사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1월 1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정치를 하는 분들은 정도(正道)에 따라 나라를 잘 이끌면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화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정치의 요체로 치산치수 국방, 신뢰관계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지도자의 덕목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상생과 화합의 이치를 실천하는데 전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 종단협 부회장 자승 스님, 이해봉 국회 정각회 회장,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변양균 청와대 불자회 회장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참가업체 모집
국내 최대규모의 불교전시회
2007한국불교박람회
2007. 3. 22 ~ 3. 25 서울무역전시장(SETEC)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제이컨벤션
주 관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진흥원
전시품목 : 사찰건축, 사찰유지보수, 불교 및 포교용품, 종단 및 단체, 차 및 식품관련, 첨단포교, 불교장례문화, 불교와 관련된 기타산업
문 의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 TEL. 02-706-3493
www.bexpo.org

interview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수행풍토 확립에 주력"

18일 신년 기자회견…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사업 등 추진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사진)은 1월 18일 서울 관문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수행풍토 확립 · 환경및 민족 화해사업에 주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중심종단으로 역할을 다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9일 천태종 제14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정산 스님은 "한해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평한 뒤 "정기적으로 사부대중의 의견을 들어 수렴한 뒤 종단 행정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올해는 천태종의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의 2011년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회 발족등을 통한 사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월원각대조사의 탄신 100주년을 4년 앞두고 종단내외의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기념사업회를 발족해 유지를 계승하는데 경주할 예정입니다. 기념사업회는 출판사업 문화사업 학술사업등으로 분야를 나눠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마련중입니다. 특히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중진 불교학자들이 참여하는 '원각사상연구원'을 2월경 발족할 예정입니다. 또 금강불교대학을 각 사찰단위로 운영하고, 종립 금강대에서도 새 총장을 중심으로 천태교학의 이정표를 세우도록 독려할 생각입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대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즉 민족화해 사업과 환경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미 개성 영통사 복원을 2005년 회향해 올해는 성지순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도적 차원의 북한 주민돕기사업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6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새터민(탈북자) 템플스테이' 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운동은 일단 지난해 9월 설립된 '소백산 지킴이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보존을 위한 공개토론회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사찰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운동에 적극 참여 시킬 계획입니다."

▲지난해 비구니스님들의 역할 증대를 얘기하셨는데요. 현재 얼마나 문호가 개방됐습니까.

"현재 유치원 어린이 청소년 청년법회를 비구니 스님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도 점차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구니스님 30명에게 서울에 있는 불교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총무원의 행정직에만 참여해온 비구니스님들을 앞으로 천태종 지역사찰의 교무로 파견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천태종의 군승파견 전망과 독자적인 군승파견 계획은?

"그동안 종단협의회 차원에서 조계종과 문호개방에 대해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불교 군승은 8명이 줄었습니다. 불교가 채우지 못한 정원을 모두 가톨릭이 가져갔습니다. 군불교 포교의 경우 타종교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정규 4년제 대학이 있는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이 공히 힘을 합해 군승을 파견하면 될터인데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조계종에서 계속 군승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밖에도 정산 스님은 중국불교협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학술교류와 문화교류행사를 펼치고, 3월 충북 단양복지관 수탁, 2월부터 금강불교신문 주간발행 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군포교 · 군종교구 소식 "배달해요"

조계종 군종교구 '월간 군포교' 창간

군포교 활동을 홍보하고 교구 소식 등을 전해줄 〈월간 군불교〉가 창간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가 1월 10일자로 창간한 소식지 〈월간 군불교〉는 신국판, 20페이지, 칼라로 제작됐다. 창간호는 △만인동참 소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격려사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 발간사 △군사찰탐방(국방부 원광사) △불자수기(제3회 육 · 해 · 공군 준 · 부사관 불자 수련회를 다녀와서) △각계 창간축사 △만인동참자 소개 △교구소식 △포토에세이(사진으로 보는 육군훈련소 위문 및 수계법회) △군 인드라망 홈페이지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군종특별교구는 1월 14일 원광사 큰법당에서 군종특별교구 주지, 성불회장, 예불회장, 군불총회장 등 군불교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용 중장, 김해진 소장, 김동균 준장 등을 군불총 자문위

북한 건축문화재 관리보수 시급

조계종, '북한의 건축문화재' 펴내

북한 건축문화재의 관리와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주요 사찰과 서원, 향교를 비롯한 건축물 사진 자료를 모아 발간된 <북한의 건축문화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 책에 따르면 금강산 표훈사 판도방은 처마 평고대(처마 끝에 놓은 긴목재)가 꺾여져 있으며, 영변 천주사 보광전은 천장 쪽이 심하게 갈라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건축문화재>에는 석탑과 석등 등 32개 북한 사찰 건축사진 408장과 서원, 향교 등 42개 일반 건축 사진 225장 등 총 633장이 수록돼 있다.

이 사진들은 2003년 북한 단청안료 지원사업과 2005~2006년 개성지역과 내금강을 답사했을 때 촬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수록된 사진 중 3분의 2는 국내에서 처음 공개된 희귀 자료들이다. **김주일 기자**

정부 · 조계종 '공동실무협의체' 구성

지관 스님 · 이치범 환경장관 · 유홍준 문화재청장 '합의'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법찾기' 주목

정부와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위한 공동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립공원제도를 자연생태와 문화, 역사유산 보존의 새로운 틀로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이치범 환경부장관, 유홍준 문화재청장,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1월 17일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와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발생한 각종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 당국과 조계종 수장들은 논란의 핵심인 매표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동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해 해결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는 당분간 현행대로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이다.

공동실무협의체는 앞으로 매표소 위치 이전 등 현안은 물론 국립공원 제도 개선 등까지 아울러 다룬다.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관광부,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구체적인 구성시기와 구성인원, 활동 등에 대해서는 실무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실무협의체 구성은 이치범 장관이 먼저 제안해 지관 스님과, 유홍준 청장, 박화강 이사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치범 장관은 1억1000만평에 달하는 국립공원내 사찰소유토지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사찰과 사찰환경, 문화재 등이 국립공원을 형성하는 상당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립공원의 개념은 이에 대한 가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제도를 큰 틀에서 생태와 문화, 사찰을 함께 관리,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재관람료 논란의 해법을 찾기위해 관계부처 · 기관 수장들이 1월 17일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이치범 환경부장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유홍준 문화재청장, 조계종 총무부장 현문 스님.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으로 이뤄진 조계종과 정부 당국의 이번 합의는 향후 국립공원과 문화재 관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조계종은 1월 16일 관람료 사찰 전체주지회의를 열고 매표소 위치 조정 등 한발 양보하고 정부당국에 국 · 도 · 군립공원에서의 사찰 제외, 소관부처 이관 등 제도개선을

불국사 종회의원선거 선운사 산중총회 공고

후보등록 누락 문제로 선거를 치르지 못한 11교구 불국사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2월 24일 실시된다. 또 고창 선운사는 현 주지 범여 스님의 임기가 4월 3일 만료됨에 따라 새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3월 5일 개최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1월 16일 제170차 회의를 열고 11교구 불국사 중앙종회의원선거 일정과 24교구 선운사 산중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박봉영 기자**

"가사불사 단행 · 의제 개혁"

관음종 중앙종회 결의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가사불사를 단행해 종도들의 위계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관음종은 1월 16일 인천 흥륜사에서 제 44차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종법상 법계 및 의제를 간단명료하게 하는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사진).

종회에서는 올 예산 48억9300만원을 확정 의결하고, 올해부터 법계를 고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육군훈련소 수계식 정례화, 미얀마 기술대학 지속적인 지원, 종단 홈페이지 개편을 의결했다. **김원우 기자**

대한불교원종 중앙종무원장 성수 스님 선출



대한불교원종은 지난 11일 대구 홍련암에서 중앙종회를 열고 성수스님(대구 관음정사 주지 · 사진)을 제4대 중앙종무원장으로 선출했다. 성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도 교육의 내실을 기해 의식 개혁과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는 종단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고침 본지 611호 2면 대권후보들의 불심잡기 기사 본문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으로 고칩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스님께서 2006년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출발하여 하루하루의 고행정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회향식이 봉행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님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함입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엠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켐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 9주 1월 25일 - 1월 31일 [158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월 25일[목]	광양읍	-	별량면	20km
1월 26일[금]	별 량	-	열가재	22km
1월 27일[토]	열가재	-	보성읍	22km
1월 28일[일]	보성읍	-	장흥읍	27km
1월 29일[월]	장흥읍	-	강진읍	21km
1월 30일[화]	강진읍	-	학 산	26km
1월 31일[수]	학 산	-	목 포	20km

제10주 2월 1일 - 2월 7일 [151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2월 1일[목]	목포시	-	무안읍	25km
2월 2일[금]	무 안	-	신광	23km
2월 3일[토]	신 광	-	영광읍	17km
2월 4일[일]	영 광	-	고창읍	25km
2월 5일[월]	고 창	-	줄포	22km
2월 6일[화]	줄 포	-	부안읍	19km
2월 7일[수]	부 안	-	김제 자혜사	20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

중국 불교상품을 만나자

2007 한국불교박람회에 산동성위원회 참여, 각종 불교용품 전시

3월 22일부터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서

현대불교신문사와 제이컨벤션이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불교박람회에 최초로 중국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은 1월 16일 사무국 회의실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산동성위원회(이하 산동성위원회) 및 중국측 대행업체 TZL비즈니스 등과 불교박람회 유치에 관한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2월 산동성위원회 실무자가 직접 박람회 사무국을 방문, 중국 산동성 내 불교관련업체들의 박람회 참여가능 여부를 타진하면서 시작됐다. 산동성위원회는 1978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및 경제 국제화 전략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업종별 20개 지회와 현급 국제상회 72개 조직을 갖고 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산동성위원회는 산동지역 업체들의 섭외를, TZL비즈니스사는 홍보 및 섭외업체의 한국전시와 체류 등에 대한 실무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중국측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산동성위원회가 1차로 선별한 뒤 박람회사무국에서 박람회의 연관성 및 국내 동종업계의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한 참가하는 중국측 업체는 한국 업체와 동일한 금액을 참가비로 지불해야하며 운송, 통관, 체류 등 비용 및 실무 제반사항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한다.

한국불교박람회 장혁 사무국장은 "현재 중국관에 입점하게 될 품목으로는 불교용품 외에 차(茶)와 석재 등이 협의되고 있다"며 "중국 업체들의 참여는 불교수입용품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힘과 동시에 침체된 국내 불교용품업체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내불교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중국불교용품들을 대중들에게 공개적인 장으로 이끄는 한편, 경쟁력 있는 한국 불교 산업의 도약을 이뤄 사찰경제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첫 정책포럼 개최

불교인재개발원, 30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이 사회 흐름을 진단하고 선도하기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정책포럼의 강사는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총괄상임이사)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영교 동국대 총장, 우승택 삼성증권 센터장, 윤성식 고려대 교수 등 정·재계, 학계 등 저명인사로 짜여졌다. 주제도 초청인사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된다. 11월에는 대선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불교인재개발원은 1월 30일 오후 6시 2006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박원순 변호사를 초청해 '희망 한국을 디자인한다'를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첫 정책포럼의 문을 연다. (02)735-2428 **박봉영 기자**



"우리 함께 깨달음으로" 1월 15일부터 17일 까지 3일간 동화사 승가대학교(강주 지운) 학인 28명은 마가 스님을 초청 강사로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하고 성찰하자'는 명상 교육을 했다. 사진은 빈 공간에 한사람이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다른 공간을 채워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우리 함께 깨달음으로'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장면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사진 왼쪽),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희망의 쌀'을 서울시측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도선사 108산사순례단 '농촌살리기' 선포

불교계가 한미 FTA와 각국의 농산물 수입압력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 도선사 108산사 순례단과 불교TV는 1월 1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을 비롯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우리농촌 살리기 선포식'과 '108산사 순례기도회 희망의 발대식'을 거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축사를 통해 "108사찰 정신을 살려 다같이 살아가도록 농촌살리기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도선사 108산사 순례단은 이날 선포식을 계기로 우리농촌 살리기에 범 불교계의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우리 농산물 구매운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구입해 보시한 우리쌀 108가마(40kg)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인재개발 장학생 1호 탄생

여성개발원, 이화씨 선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 이화 사무국장(사진)이 개발원에서 선정하는 '인재양성 장학생' 1호에 선정돼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불교인재양성 기금마련 바자'를 통해 마련한 기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김인숙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자리를 잡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한 점을 높이 사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화 국장은 "더 넓은 곳에서 견문을 넓히고 돌아와 불교계에 회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또또수행' 보시금 기탁

서울경기 포교사단

조계종 서울경기 포교사단이 '또또수행'으로 모은 보시금을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기탁했다.

'또또수행'이란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또 또 수행하는 것.

서울경기 포교사단은 1월 13일 서울 안암동 개운사 대웅전에서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서울경기 포교사단은 이날 오후 불식을 통해 모은 보시금 100만원을 개운사 어린이 포교지원비로 전달했다. **남동우 기자**

사찰음식보존회 29일 발대식

사찰음식의 연구·계승과 대중화를 위해 결성된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회장 선재, 이하 사찰음식보존회)'가 1월 2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1월 18일 기자간담회를 연 선재 스님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연구·교육·대외홍보 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 사업으로는 사찰음식에 대한 경전 근거 수집, 사찰전래음식 채록·녹취, 표준교재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낙제점 원인은 금권·계파·무능…"

'청정승가를 위한…' 출·재가자 215명 대상 설문

지난 11월 임기를 만료한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에 대해 '낙제점' 수준의 평가가 내려졌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만초)'가 지난 9월 출가자 100명과 재가자 115명을 대상으로 '조계종 중앙종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중앙종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67%에 달했다. 긍정적 평가는 8.8%에 그쳤다.

◇선거 혼탁 75%…금권선거 44%

중앙종회 활동이 미흡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절반이 넘는 54.4%가 '문중과 계파의 이해관계'를 꼽았다. '종단 내 모순과 갈등 구조' 15.8%,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부족' 14.9%가 뒤를 이었다.

윤리·청렴성 신뢰 낮고 표결 실명제 요구 높아 면책특권 제한해야 77%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9%가 혼탁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여법하다는 답변은 2.4%였다. 혼탁한 원인은 '금권선거 만연' 44.0%, '계파 주도권 싸움' 35.2%, '문중 이해관계 대립' 11.9%, '자질·능력 부족' 7.8%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종회의원의 윤리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 5.3%만이 신뢰를 받고 있다고 답했고, 71.7%가 신뢰받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자질과 역량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절반(50.5%)에 달했고, '좋아졌다'는 의견은 14.6%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은 34.9%로 나타났다.

중앙종회가 결정한 주요 종책들의 종단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6.2%로 나타나 '그렇다(12.3%)'는 의견 보다 월등히 높았다.

◇감시·견제 필요 91%…표결실명제 확대 77%

응답자의 67.8%가 중앙종회의 '권한과 역할이 크다'고 응답하고, 55.8%가 '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90.9%의 응답자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종책 결정에 있어 신도단체에게 의견제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7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출·재가자간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재가자는 82.3%가 찬성한 반면, 출가자는 56.3%만이 찬성했다.

중앙종회 발전을 위해서는 비구니 종회의원 수를 늘리고 의안 표결실명제 확대(77.0%), 중앙종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76.6%) 등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상당수에 달했다. 비구니 종회의원수의 적정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69.5%가 부족하다고 답하고, 현재 10명에서 20명 정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46.2%)과 2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44.5%)을 제시했다.

◇체질 개선 등 향후 과제 제시

이번 설문결과는 중앙종회를 바라보는 불교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점에서 중앙종회의 체질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금권선거 등으로 인한 신뢰 부족과 자질·역할 부재에 대한 지적은 중앙종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명확히 제시해 준 것과 다름 아니다.

한편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는 올 3월 중순께 공식 출범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봉

대한불교 대승종
제5세 종정 법청당 천광 대종사 취임 대법회

축

귀의 삼보하옵고

항상 본 종단을 애종하시는 전국 종도 여러분과 도암문도 여러분의 법체 청안 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불사가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하게 회향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대한불교 대승종 중앙 종의회에서 종정으로 추대되신 제5세 법청당 천광 대종사 님의 취임법요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 하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 하시어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종단 종도스님은 행사당일 빠짐없이 참석해 주기시 바랍니다 ※

아 래

■ 행사일시 : 불기 2551(2007)년 1월 30일 (음력 12월 12일)
■ 장 소 : 영천시 완산동 수덕 웨딩 2층 054)333-7100, 333-7200
■ 시 간 : 오전 11시
■ 문 의 :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051)638-4088, 055)532-4414
■ 후 원 : 중앙 종의회, 총무원 각교구종무원, 현대불교신문, 전국신도회

대 회 장 법천 청화 **봉행위원장 법상 심곡**

원로원장 **법상 심곡** 종회의장 **법호 서호** 총무원장 **법천 청화**
감찰원장 **법서 청원** 고시원장 **법성 정산** 교육원장 **법진 도일**
기획실장 **법응 정관** 복지부장 **법연 덕운**

서울교구 종무원장 법암 혜심 경기교구 종무원장 법신
충청남북 교구 종원장 혜능 경북교구 종무원장 혜암
전북교구 종무원장 법전 법현 전남교구 종무원장 진덕
군산교구 종무원장 덕일 부산교구 종무원장 청운
경남서부 교구 종무원장 일봉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법천 청화**

“세상 위한 좋은 일꾼 될께요”

삼성그룹 신입사원 200여명 통도사 자비원서 봉사


삼성그룹 한 신입사원이 통도사 자비원 한 어르신의 손을 잡고 말벗이 되어 주고 있다.

빨간 모자에 단체복을 입고 줄을 지은 모습이 커다란 덩치만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의 나들이 같기도 하다.

1월 14일 양산 통도사 자비원 마당을 가득 매운 이들은 다름 아닌 2007년도 삼성그룹 신입사원들.

4주 동안 진행되는 신입사원 인력개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200여 명의 신입사원들이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대표이사 현문 · 조계종 총무부장) 산하의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요양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나선 것이다. 신입사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성은 물론 따뜻한 감성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들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유리 닦기 · 식사보조 등 재롱 부리며 손자 몫 톡톡

인원배치에 앞서 자비원 강당에 모인 신입사원들에게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법인 사무처장 삼해 스님은 “종교의 같고 다름을 떠나 오늘 하루 동안은 시설에 계신 분들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잘 돌봐 달라”고 당부했다.

노인복지센터와 전문요양시설, 양로시설, 요양시설에 배치된 삼성그룹 신입사원들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어르신들의 방과 화장실에서부터 건물 유리 닦기, 식사보조에 말벗이 되어드리느라 오후 내 구슬땀을 흘렸다.

할머니 다리를 주무르며 감칠맛 나게 트로트 한 자락을 선보이던 신입사원 김풍(29)씨는 “우리 할머니 같아 할머니가 잘 부르시던 노래 생각이 나서 불러드리고 싶었다”며 “오늘 경험을 잊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는 좋은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3주째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때문인지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고 있는 사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사원들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동안만은 군기 바짝 든 신입사원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손자들 마냥 밝고 순수해 보였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의 손을 마주잡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어르신들의 표정에서도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받는 신입사원들의 얼굴에서도 햇살만큼 밝은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이은아 기자

한몽골 불교교류협회

불교국제포교후원회 발족



사단법인 한몽불교교류협회(이사장 지성)가 1월 16일 대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불교국제포교후원회를 산하기구로 발족시켰다(사진).

몽골불교재건을 돕기 위해 설립한 한몽골불교교류협회가 포교역량을 동남아시아와 세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산하기구를 조직한 것.

불교국제포교후원회 회장에는 협회 이사인 김현희 인터불고 레이더스클럽 회장이 선출돼 이날 위촉식을 가졌다. 김현희 후원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계 곳곳에 퍼져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장 지성 스님은 “몽골 현지에서 추진 중인 불교 유치원 건립불사가 오는 11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대구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몽골 불교 재건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은 대구 불자의 긍지이자 소망”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몽골 불교 재건을 지원하고 해외포교를 확대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이외수 회장도 “포교역량을 동남아시아로 확대시켜나가고 대구를 넘어 전국적 조직체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객원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김창규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기획국장

‘하하 당신이 기쁘니 나도 기쁩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지역불교복지단체가 있다.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다. 창립 10년 만에 햇빛가정봉사원파견센터, 남구자활후견기관, 장애아전담 유리어린이집 등 산하에 16개 기관을 거느린 불교사회복지회의 다양한 활동은 불교계의 대사회적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편견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런 불교사회복지회의 중심에는 불교사회복지회 법인사무국의 김창규(47) 기획국장이 있다.

현재 남구시니어클럽 관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불교사회복지회의 소식지인 <나눔지>의 편집인이며 ‘하하 당신이 기쁘니 나도 기쁩니다’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복지 공부를 늦게 하고 2000년에 불교사회복지회에 들어갔지만,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4년에는 제1회 대구노인 일자리박람회를 총괄하는 등 불교사회복지회가 지엽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활동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체계를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산하 16개 기관 거느리고 대사회 활동 앞장 ‘하하 당신이 기쁘니 나도…’ 만든 주인공

설비회사, 건설회사, 웨딩 이벤트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한 후 37세의 늦은 나이에 다시 복지 공부를 시작해 석사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사섭(同事攝)을 알게 되고 불교를 알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불교사회복지와 인연이 됐다.

김창규 국장은 “불교계의 대사회적 활동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홍보였다”며 “불교사회복지회에 들어와 처음 시작한 일들이 복지프로그램과 사업 홍보물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은은히 배어나오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복지와 불교를 연결시키려는 김 국장의 고민 속에서 ‘이웃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유마경>의 내용을 이용한 “하하 당신이 기쁘니 나도 기쁩니다”가 탄생했다.

김 국장은 “부처님이 이미 세상의 고(苦)를 없애기 위해 고민하셨고, 수행을 통해 행복으로 나아갈 모든 방향을 설정해 주셨기에 우린 그저 그런 활동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멍석만 깔아놓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김 국장은 젊은 시절 삶에 대한 고민으로 많은 방황을 했는데 불교를 알고 보니 그 방황이 부처님의 고민과도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모두의 삶이 나의 삶과 다르지 않고 또 부처님의 삶과 다르지 않기에 무수한 고뇌를 통해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행복하게 된다”는 김 국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복지의 길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일에 지쳐 녹초가 됐던 어느날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구부정(不垢不淨) 부증불감(不增不減)’이라는 <반야심경>의 구절을 보고 환희에 찼다는 김 국장은 지금도 늘 <반야심경>을 가까이 두고 생하고 멸함도 없으며,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 무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 본성에 대한 가르침을 되새긴다. 김 국장은 “불교사회복지회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명의 본질을 추구해 간다는 것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며 “사회복지사의 봉급이 그리 넉넉지 않지만 천금 만금을 주는 어떤 일보다 행복하다”고 싱그럽게 웃었다. 배지선 객원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올해는 신입 법우 유치에 주력

대불청 부산지구 정기총회서



2007년 부산의 청년 불교는 어떻게 달라질까?

1월 16일 열린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신년계획안을 보면 2007년 부산 청년 불교의 방향은 ‘내실을 기하는 조직 활성화와 신입 법우 유치 주력의 해’로 정해져 있다.

박만탁 역대 회장, 이건국 역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 2007년 청년회 활동의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업안과 예산안을 확정했다(사진).

활동의 방향은 부산지역 신행단체의 대통합을 위한 조직사업, 신입 법우 교육 및 포교 사업, 지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수익 사업을 통한 청년포교 재정 안정, 교계 및 시민단체와의 교류 확대 등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교육 조직사업으로 부산지구와 지회가 연계하는 합동수계법회, 문학의 밤, 통합법요집 발간으로 정하고 문화, 체육, 포교, 홍보, 재정, 수익 등으로 나눠 선후배들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 군포교 활성화, 스님 초청법회, CMS 사업을 통한 후원인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051)861-5241 천미희 기자

“미래의 기둥 다듬는 불사”

연등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지역의 불교계 장학재단인 연등장학재단(이사장 법등)이 대구경북지역의 중 · 고 · 대학생 불자 50명에게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군위 석굴암 주지 법등 스님과 신도들이 뜻을 모아 2003년 발족한 연등장학회가 2004년 교육부에 장학재단으로 정식 등록한 후 2005년에 이어 2회째 장학금을 전달한 것.

전달식은 1월 16일 대구 반월당 보현사에서 거행됐으며, 능인중학교 장진섭 학생을 비롯한 22명의 중학생과 덕원고등학교 강호진 학생을 비롯한 18명의 고등학생 등 모범적인 파라미타 소속 중고등학생 40명이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경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최보윤을 비롯한 10명의 대학생불자들이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학부모 등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해 장학생들을 축하했다.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법등 스님은 “미래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을 다듬는 불사를 하는 마음으로 이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객원기자

2007학년도 전학기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서울 · 부산]

모집과정
- 입문과정 (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 대 학 과 정 : ◇불교학과 : 주간, 야간 각 00명 [주2회 출석]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주간, 야간 각 00명 [주2회 출석]
- 대학원과정 : 주간 및 야간반 00명 [주2회 출석]
- 통 신 과 정 : 대학 00명 / 대학원 00명 (※대학원은 월 1회 의무 출석)

지원자격
- 대 학 과 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일반인,직장인환영)
- 대학원과정 : 불교교양대학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법사,포교사 자격소지자 우대]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6년 12월 1일 – 2007년 2월 28일**
- 대학, 대학원과정 전형방법 : 서류전형

전형료 납부
- 전 형 료 : 대학과정 2만원 / 대학원과정 5만원
- 외환은행 : 630-005063-139 [예금주 : 대한불교진흥원]

▣ 장학혜택 : 부부(가족)입학시 : 50%. 성적우수자 : 50%, 스님 : 30%
※수업료 카드결제 됩니다 (할부가능)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2)706-1571, 707-1072 / 부산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51)583-7811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 해드립니다.

문 의
- 서울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불교방송 3층 02)706-1571, 707-1072
- 부산 :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051)583-7811

특 전
- **불교학과 졸업 후 법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법사고시 후 합격자에 한해 법사품수식을 거쳐 법사자격증을 드립니다.
- **불교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 부여**
  본교의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를 졸업하시면 소정의 실습 및 연수과정을 거쳐 2급불교 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시어 구체적인 전문영역(아동상담,청소년상담,가정상담등)을 수료한 분에 한하여 소정의 실습 및 연수과정을 통하여 1급불교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대학 2학년 편입생 모집 : 타 불교대학 1년이상 수료자 및 졸업자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서울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불교방송 3층 ☎ 02)706-1571, 707-1072 / Fax 02)719-0132
부산 :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 051)583-7811

www.buddhaschool.or.kr

"동물 부처님에게 공양 올립니다"

남원 동림사,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방생



동림사 신도회가 지리산에 야생동물용 사료와 곡물을 '보시' 하고 있다.

눈 덮힌 지리산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방생법회'가 봉행됐다.

남원 동림사 신도회는 1월 17일 지리산 구룡계곡에서 방생법회를 열고 준비해간 야생동물용 사료와 곡물, 야채 등을 동물들이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었다.

먹이주기 행사에 앞서 방생의식을 집전한 적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리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야 산 아래에 사는 사람도 더불어 살 수 있다"며"부처님 전에 공양올리는 마음으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자"고 강조했다.

방생법회 참석자 가운데 최고령인 만법행 보살(77)은 "평생 사찰에 다니며 신행생활을 했지만 산 속에 있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법회는 처음이다"며 "먹이를 찾아 눈 속을 헤매는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방생법회가 열린 구룡계곡은 지리산 북쪽에 자리해 있어 눈이 오면 녹지 않고 겨우내 쌓여있다. 이곳에는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보호 멸종위기종과 고라니, 토끼, 꿩, 멧돼지 등의 동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겨울에는 산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민가까지 내려와 피해를 주기도 한다.

동림사 신도회는 방생법회에 이어 지리산북부사무소 구룡분소(소장 김정유)에 야생동물용 사료 40포대를 전달하고 고산지대에 배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사료는 야생동물을 위해 특별히 주문생산한 먹이로 논산 우성사료가 협찬했다.

한편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동림사가 매달 개최하는 성지순례법회 일환으로 열렸으며, 방생법회를 마치고 진주 응석사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이준엽 기자

"모악산 철탑 철거·새만금 친환경 개발 촉구"

전북불교신도회 신년하례회서 지역불자들 다짐



전북불교신도회가 1월 15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전북불교신도회(회장 김백호)는 1월 15일 전북불교회관 4층 법당에서 '정해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도내 각 사암주지 스님과 김완주 전북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등 지역 기관장, 신행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화해상생과 중도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월주 스님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을 친 환경적으로 개발해야하며, 모악산 정상에 있는 송신탑을 철거해 자연 및 수행환경 파괴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신년사에서 "불교지도자를 중심으로 수행과 전법, 희망과 용기가 넘치는 전북불교가 되도록 정진하자"고 강조하고 △각 사암마다 가족법회 생활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불교확대 △템플스테이 강화 △청소년,군불교포교 △수행도량 불사 등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하례법회에서 지역불교발전에 공로가 많은 전북불교신도회 김백호 회장에게 조계종 총무원장상이 수여됐다. 또한 지광(승림사 주지), 경호(옥천암 주지) 스님이 표창패, 귀신사 신병균 신도회장과 바라밀합창단 김영호 불자가 포교대상을 받았다. 이준엽 기자

소아암 환아 33명 완치 잔치

전남생명나눔, 성금 전달



소아암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스님. 이하 광주 생명나눔)의 자비행이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 생명나눔은 1월 16일 화순 전남대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소아암 백혈병 완치잔치'에 참가해 성금 200만원과 장난감 세트 30개를 소아암 병동에 전달했다.

이날 완치잔치에는 백혈병을 이겨낸 완치 환아 33명과 보호자, 의료진, 후원단체, 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현지 스님은 김영진 화순병원장과 함께 완치환아들에게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백혈병을 이겨낸 힘으로 더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열린 축하공연에서 광주 생명나눔 홍보가수 주권기 씨가 출연해 힘겨운 투병생활을 이겨낸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흥겨운 무대를 펼쳤다.

한편 광주 생명나눔은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을 위해 헌혈증 모으기, 혈소판 헌혈, 투병기금모금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지혜의 등불 면면히 밝히자"

천태종, 상월대조사 96회 탄신봉축법요식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의 96회 탄신봉축법요식이 1월 16일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 4층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법회는 삼귀의, 국민의례, 찬불가, 반야심경 독경, 종회의장 도정 스님의 대조사 법어 봉독, 봉축사, 봉축가, 관음정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천태종단이 주창하는 생활불교의 지표인 대중불교 재가불교 구세주의(救世主義) 불교운동과 <법화경>을 근간으로 선(禪) 교(敎)를 섭화(攝化)한 지혜등은 대조사님이 물려준 종단의 등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음성꽃동네 오웅진 신부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 전 총무원장 운덕 스님, 종회의장 도정 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과 천태종 사부대중 등 2만여명이 동참했다. 김원우 기자

충북불교대 용화봉사단 노인·노숙자 점심공양



2007년1월14일 오전11시 충북불교대학 용화봉사단(단장 김대근)은 청주 중앙공원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실시했다(사진).

청주에는 매주 일요일 오전11시가 되면 18개 관내 사찰들이 순번으로 급식봉사를 하고 있고 불자들의 봉사 모임인 봉우회 (회장 이주원)는 매주 일요일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수년째 급식봉사를 해오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봉사단은 컵라면과 요구르트를 준비해 노인 및 노숙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라면 500개를 준비했지만 부족해 추가로 구입해 제공했다.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태고종 제주교구 신년하례법회



태고종 제주교구 신년하례법회가 11일 제주시 하니 웨딩홀에서 개최됐다(사진).

태고종 제주교구 신도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 신도회 회장 양대성(제주도 의회 의장)씨를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은 이날 제주시 삼도2동 불교회관에서 제주교구 지방종회와 태고종 주지총회를 열고, 자문위원회 설치와 직할사찰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참석해 제주지역 스님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원우 기자

대청불교신문 창간6주년 기념



대청불교신문 창간6주년 기념 및 신년하례 대법회가 1월18일 유성호텔에서 봉행됐다(사진).

사부대중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대청불교 회장 법정 스님(수덕사 주지)은 충청권 유일의 불교신문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지난 6년을 기반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바른 정진으로 참나 찾기에 게을리 하지 말길 당부하고 겉치레보다 내실을 기하는 대청불교신문이 되라"고 당부했다.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2007년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모집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내신 80점 이상)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박 사 과 정	3년	2명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2. 학교 소개

· 중국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및유학생전용기숙사,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삼화불교대학 교학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1월 26일까지

5. 문 의 처

· 주 소 : 中國 南京市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조기유학생모집
초 · 중 · 고1,2학년(남경국제학교)
♣제출서류
· 최종 재학 및 졸업증명서 · 건강진단서
· 여권사진10매 · 입학신청서 1통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재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은수(대덕고) ▲박상준(구정교)
▲이상훈(성신교)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교)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교)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석사과정 합격자-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일주문



복지재단 신년업무보고회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1월 17일 총인원 무진설법전에서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생명나눔' 경남지역본부 창립

생남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1월 29일 오후 2시 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지역본부 창립법회를 개최한다.(02)734-8050



화계사 일요법회서 법문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1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열리는 일요특별초청법회에 참석해 법문한다.(02)902-2663



조계사 목조불 점안식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2월 2일 오전 8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목조 석가모니불 점안식을 봉행한다.(02)732-2183



서울 적조사 주지에

前 범어사 승가대 강주 대각 스님은 1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서울 돈암동 적조사 주지 임명장을 받았다.



대승종 종정 취임법회

대한불교 대승종 종정 천광 스님은 1월 30일 영천시 완산동 수덕웨딩 2층에서 열리는 취임법회에서 대승종 5세 종정에 취임한다.(051)638-4088



법무부장관상 수상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이 12월 29일 교정교화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교화 활동을 펼쳐왔다.



호계원 사무처장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태연 스님(서울 약사사 주지)은 1월 17일 조계종 호계원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보현사 주지, 총무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노인복지센터 재수탁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완 스님은 1월 16일 서울시로부터 시설 재수탁을 받아 향후 3년간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서재영 연구교수는 1월 18일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화랑) 선임연구원에 임명됐다.

2007년을 뛰는 불자

김희욱 – 교단자정센터 대표

"교단 전체가 자자·포살 정신으로 돌아갈 때까지…"



비구니 중심의 이부대중, 특히 비구 중심이 된 것에는 재가자들의 책임도 있다"는 김 대표는 "진정한 사부대중이 되기 위해서는 재가자들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지난해 공주 마곡사 주지 구속 사태에 이어 올해 초 서울 적조사 토지 불법 매매 사건 등 불교계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로 불교계는 휘청거리고 있으며,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한탄도 나오고 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걸까?

"종단의 자정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계종 호법부는 '강력 대처'를 천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교단자정센터 김희욱 대표(사진)의 분석이다.

불교계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부각되는 곳이 교단자정센터다.

교단자정센터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날선 목소리를 냈으며, 대안을 제시하도 했다. 현법 스님의 납골당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해 중앙종회의원 당선을 무산시켰던 교단자정센터는, 마곡사 건에 대해서도 '제3의 조사기구 설치'를 조계종에 제안한 상태다.

교단자정센터의 활동은 교단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정화하는 전통적 방식인 '자자(自恣)'와 '포살(布薩)'에 근거하고 있다. 사부대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풍을 만들고, 근본적인 의식이 변화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전체적인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단지원활동 △모니터활동 △교단자정의 전화 운영 △수행환경 조성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사후약방문' 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김 대표는 스님 개개인의 '지계(持戒)'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호법부 등 종단 사정기관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올해 △총무원·중앙종회 종책 모니터링 △국고보조금 등 공적재원 관련 부정부패조사처리 △현법 스님·마곡사·불교중앙박물관과 관련한 제도 개선 마련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욱 대표는 "승가에서 재가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참여할 수 있을 공간이 마련된다"며 "폐쇄적인 구조가 아닌 재가자들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단이 사부대중이 아닌 비구·

"불교문화·포교의 원동력 기를 터"

대한불교청년회 박법수 신임회장



"대한불교청년회 중앙지부와 전국에 포진한 99개 지회의 긴밀한 '정보 네트워크' 형성과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한 불법 홍포의 원동력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1월 28일 대한불교청년회 제24대 회장 취임을 앞둔 대한불교청년회연수원 박법수 원장. 취임식에 앞서 박법수 신임회장(사진)은 대한불교청년회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본이념으로 시대·역사적 청년의 사명감으로 불교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불교청년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스님과 재가불자가 부지기수로 많은 게 현실이죠. 불교청년회가 적극적으로 대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불법 홍포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불교청년회는 만해대학 등을 통해 청년 불자들에게 올바른 인격형성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템플스테이 등 통일추진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지금까지 대한불교청년회가 이룩한 다양한 포교 및 교육활동의 성과는 괄목할만 하더라도 이에 못지않게 그동안 걸어온 역사와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냉철하게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대한불교청년회가 그동안 많은 사업을 벌여왔지만 사회적 반향과 탄력을 받지 못한 것은 작게는 불교계에서 크게는 사회와 국가 앞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실천목표로 박 회장은 △전국 108 사찰 답사(자원봉사 및 대한불교청년회 홍보) △다양한 신행·수행 프로그램 계발 등을 꼽았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수행·포교 강화로 전북불교 'UP'

총무원장 표창 받은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혼신을 다해 포교와 정진에 힘쓰고 있는 불자가 많은데 제가 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1월 15일 전북불교 신년하례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받은 전북불교신도회 김백호(75·청광·사진)회장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지역불교 발전에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진정한 재가불자라 할 수 있다"며 "신도회가 2개월에 한 번씩 마련하는 고승초청법회를 빠른 시일 내에 월 1회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세가 약한 전북불교를 활성화하기위해 다양한 수행, 포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도조직을 강화하고 신바람 나는 신행생활이 되도록 하겠다"고 신년계획을 소개했다. **이준엽 기자**

태고종 충북 종무원장 취임법회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는 1월 17일 청주 명암컨벤션센터에서 제13대 종무원장 원해 스님과 부종무원장 광해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신임 종무원장인 원해 스님은 "의식개혁을 통해 종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생활불교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입종 신년하례 및 시무법회



불입종(총무원장 경암)은 1월 11일 불입종 총본산 송화사에서 종정 면철 스님과 총무원장 경암 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 및 시무법회를 봉행했다. 면철 종정스님은 신년 법어를 통해 "신심과 원력을 갖춘 승려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수행정진 하라"고 당부했다.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창립 1주년 법회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지원장 이영숙)은 1월 17일 부산 코모도호텔 희락정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및 바자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영숙 지원장은 "부산·경남 지역 여성불자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정한 은사스님처럼 평 염불과 기초 범패소리를 잘 닦아 주는 교육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7년 제9기 신입생 및 통신생 모집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기초철학과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종 소, 낭독하는 법
– 겉채비 : 바라춤, 도량게작법, 다게작법(나비춤), 사물 다루는법, 화청(회심곡), 지옥게춤
◆ 과 정 : 2년(4학기) ◆ 수 강 료 : 1학기 6개월 70만원(각 학기당 동일) (비디오 교재 별도)
※ 비디오, 테이프, 46가지 DVD까지, 비치됨. 교재는 학교에 비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학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입 학 식 : 2007년 3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까지
◆ 상좌 각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전화번호 : 062)362-8604 / 011-624-8604 / Fax 062)372-8604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 (우 502-242)
◆ 학 장 :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이수평가자)

한국불교의식대학 신입생 범패교육

2007년 1월 28일 – 1월 31일 : 3박 4일

● 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 (오전시간 강의, 오후 시간 실기교육 위주)
– 1월 28일 오후 2시 : 입회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욕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아계교육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 1월 29일 오전 9시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 녹음), 화청(회심곡), 낙성식하는 법, 범종불사 의식하는 법
– 1월 30일 오전 9시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청(회심곡), 상축하는 법, 창혼의식 하는법,
부도 제막식 하는법, 삼재기도 하는법.
– 1월 31일 오전 9시 : 정월용왕불공 및 방생의식 법,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욕, 큰불사시 관음예문하는 법.
● 준비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녹음기 ● 숙식제공포함 교육비 : 40만원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욕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중명불공 19.종사관욕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게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30.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8제의식1 38.상주권공48제의식2 39.상주권공48제의식3 40.상주권공48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 2권 100,000원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연숙)]

◆제품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할머니, 또 오세요."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한명숙 총리의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아이들.

한명숙 국무총리 승가원 방문



총리 아닌 엄마로 아이들 '마음' 읽었어요

총리실 간부 20여명과 함께 봉사활동

특별한 하루가 밝았다. 1월 13일, 서울 안암동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에 여느 토요일과 다름없는 아침이 찾아왔다.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아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어울려 장난치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원장스님과 선생님들은 바쁜 모양이다. 승가원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렸다. 선생님들은 바쁘게 1층과 2층 강당을 오간다. 10시 30분이 되자 승가원 마당으로 검은색 차가 들어오고, 누군가가 내렸다. 큰스님 할아버지가 손님을 맞으며 무척 반가워한다.

"저 할머니는 누구지?"

'어른들은 알고 아이들은 모르는' 한명숙 국무총리의 승가원 방문은 그렇게 시작됐다. 최근 정부의 '2차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마련과,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총리는 "서울 인근의 장애아동시설에서 조용히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그동안 모범적인 운영을 해 온 승가원이 봉사 장소로 추천된 것이다.

한 총리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시설 시찰이나 방문이 아닌, '봉사'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국무총리'가 누군지 알기는 어려운 터. 이제부터 한 총리와 아이들과의 '얼굴 익히기 한판승'이다.

별다른 환영의식 없이 종범 스님과 간단한 차담을 가진 한 총리는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승가원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장 동옥 스님의 시설 현황 브리핑에 이어 봉사활동 사전 교육이 진행됐다.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돕는다' '스킨십을 많이 한다' '상처가 될 만한 말은 하지 않는다'는 등의 기본적인 주의사항이 전달됐고, 식사 돕는 법과 마사지 하는 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그동안 봉사활동이라면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한 총리지만, 모처럼 장애아동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얼굴에 긴장감이 스쳐 지나간다. 이날 한 총리와 함께 승가원을 방문한 임상규 국무조정실장과 김성진 비서실장, 유종상 기획차장, 박종구 정책차장 등 총리실 간부 20여

식사보조·마사지 등 열심 '언니'라 부르는 아이에게 '감기 조심하라' 당부하기도 한 달에 한 번 봉사 뜻 밝혀

명도 진지한 자세로 교육을 받았다. 방문단은 모두 10개조로 나누어져 식사보조와 책 읽어주기, 마사지, 학습지도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교육 후 승가원 1층 장애아동 생활시설로 자리를 옮긴 한 총리는 별님실, 햇님실, 달님실을 차례로 둘러봤다. 특수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미영(10)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선생님이 되라"고 격려하고, 한 총리를 '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나영(16)이의 손을 꼭 잡으며 "감기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아이들이 누운 방바닥을 손으로 짚어보고 머리도 쓰다듬어주는 사이 '국무총리'는 어느새 '엄마'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첫 대면의 긴장도 눈 녹듯 사라졌다. 그러나 마음 한켠이 편치는 않다. 자신과 함께 아이들의 방을 습격(?)한 취재진과 수행원들 때문이다. "나 때문에 시끄럽게 돼서 미안해."

아이들의 점심시간인 11시가 되자 한 총리는 앞치마를 둘렀다. '청련반'에서 아이들 식사를 돕기 위해서다. 안나(13)는 한 총리의 도움으로 눈 깜짝할 새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밖에 나가 놀자'고 채근이다. 부쩍 차가워진 바람 때문에 나들이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한 총리의 손을 잡고 시설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안나의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채민(16)이는 한 손으로 밥을 떠먹으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 연신 안경 쓴 자기의 눈을 가리킨다. 며칠 전, 눈썹이 눈을 찌르는 것을 막기 위해 쌍꺼풀 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이쁘지, 이쁘지?"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예뻐진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 나이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다.

태호(8)는 오히려 한 총리에게 '도움 주는 법'을 알려준다. 어엿한 여덟 살이니 '아기'라고 부르지 말라고 부탁하고, 식판에 남은 마지막 밥 한 톨까지 깨끗하게 먹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팔 대신 발로 숟가락질을 하고 그림도 그리는 태호의 꼼꼼한 성격에 선생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자신의 '잔소리'가 조금 미안했던 탓일까? 식사를 도와준 한 총리에게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노래도 불러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도 건넸다.

식사 시간이 끝나자 '자련방'으로 자리를 옮겨 마사지 봉사가 이어졌다.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이라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봉사자들이 늘 마사지를 해 주고 있다. 마사지 크림을 덜어내 익숙한 솜씨로 이슬이(17)의 발을 만져주는 한 총리 곁으로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예전엔 봉사활동을 자주 했었다"는 한 총리의 마사지 실력에 나영이(16) 순영이(12)도 차례로 다리를 내맡긴다.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은 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얼굴에 그려진 '행복의 미소'가 마음으로 전해진다.

한 시간 동안의 자원봉사를 마무리한 한 총리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미소는 결코 우리가 흉내 낼 수 없는 순수함 그 자체"라며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한 총리는 "앞으로 시간을 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봉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로 승가원에 후원금을 전달한 한 총리는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기념촬영 후 한 총리와 봉사자들의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없이 손을 흔드는 아이들. 아이들의 미소는 '총리'나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보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그들을 향한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5> 말재주나 부린다면

흔히 큰스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을 법문(法門) 한다고 말한다. 법문이란 법문하는 스님 그 자체가 '부처님 법'이 되어 깨달음의 길을 열어서 보여 주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음의 길을 열어서 보여 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법문(法門)이다. 이것이 부처님 제자로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본분사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법을 배워 그 근본을 먼저 스스로 깨우쳐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도를 이루기도 전에 남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이 혀끝에 발린 말재주만 일삼아서 스스로 도를 깨친 양 깨달음을 얻은 체한다면, 그것은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한 탐욕이나 다름없다. 이런 수행자의 모습은 마치 더러운 뒷간에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푸르고 붉은 단청을 하는 것과 같다. <선가귀감> 55장에서 말한다.

學未至於道 衒耀見聞 徒以口舌辯利相勝者 如厠屋塗丹雘

도(道)를 이루기도 전에 배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견문(見聞)을 남에게 자랑하고 뽐내면서 부질없이 말재주를 부려 조그마한 이익이나 서로 보려고 다툰다면, 이는 마치 허물어져 가는 뒷간에다 푸르고 붉은 화려한 단청을 하는 일과 같으니라.

'현요(衒耀)'는 자신의 재주를 드러내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뽐내며 다닌다는 뜻이니, '현요견문(衒耀見聞)'은 자신의 견문(見聞)을 남에게 자랑하고 뽐내며 다닌다는 것을 말한다.

'구설(口舌)'은 입과 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입에 발린 말로써 말재주를 부린다는 뜻이다.

변리(辯利)는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여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말이고, 상승(相勝)은 자신의 이익을 잃지 않으려고 온갖 말재주로 서로 다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도이구설변리상승자(徒以口舌辯利相勝者)'는 부질없이 말재주를 부려 조그마한 이익이나 서로 보려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

깨친 체하는 행위는 거짓말과 구분된 대망어

수행자는 말을 적게 하고 몸 움직이지 말아야

'측옥(厠屋)'은 허물어져 가는 뒷간을 말하고 '단확(丹雘)'은 붉은 빛의 선명한 흙이나 염료를 말한다. '여측옥도단확(如厠屋塗丹雘)'은 마치 허물어져 가는 뒷간에다 푸르고 붉은 화려한 단청을 하는 것과 같은 형국을 말한다.

허물어져 가는 뒷간에 푸르고 붉은 화려한 단청이 어울리지 않듯이, 맑고 깨끗해야 할 수행자들이 입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더럽힌다는 것은 수행자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

수행자들이 구업(口業)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네 가지 못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는 망어(妄語)이니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며, 본 것을 못 보았다고 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들이다. 이는 명성이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짓말로서 허망하고 진실하지 않은 말들이다.

둘째는 기어(綺語)이니 비단결 같은 말로 푸짐하게 실체가 없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화려하게 남의 마음을 속이고 현혹시키는 말들이다.

셋째는 악구(惡口)이니 화를 내면서 험하고 거친 말로 꾸짖고 매도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들이다.

넷째는 양설(兩舌)이니 이간질시키는 말이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 이 사람 말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고 싸움을 붙이는 말들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別明末世愚學 學本修性 全習爲人 是誠何心哉

이 단락은 말세에 어리석게도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일깨워 주는 말이다. 배움이란 본디 자신의 성품을 닦는 것인데 공부한다는 것이 오로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 되어 버리니, 참으로 이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란 말인가?

'우학(愚學)'은 공부 길을 잘못 알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전습위인(全習爲人)'은 도를 이루려 공부하면서도 오로지 익히는 일이[全習]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이 되어 버렸다는[爲人]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공부하는 이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

배움이란 본디 자신의 성품을 닦는 일인데, 이것을 등지고 남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어 버렸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더군다나 수행자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함부로 해나가다, 만약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말해버리기라도 하면, 이것은 자신의 진실한 마음자리를 잃는 것이며 부처의 씨앗을 없애는 결과를 불러들이기도 한다.

비구의 구족계(具足戒)나 대승계의 범망경보살계에서도 이 거짓말을 대망어죄(大妄語罪)로 규정하며 출가인의 큰 죄악으로 다루고 있다. 곧 근본 마음자리를 깨치지 못하고 깨친 체하는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위를 일반적인 거짓말과 구분하여 대망어(大妄語)라고 한다.

율장(律藏)에서는 이 대망어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비구들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여 승단(僧團)에서 축출시켜 비구의 명줄을 끊어 놓는다. 자비를 내세우는 문중에서 사망선고와 같은 이런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볼 때, 공부가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거짓 깨달음이 얼마나 공부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줄 알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설산에서 6년 동안 침묵을 지키며 고행(苦行) 정진을 하셨고 달마 대사는 묵묵히 9년 동안 소림굴에서 벽만 바라보며 참선을 하셨다. 참선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이 옛 어른들의 자취를 본 따서 공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모름지기 도를 닦는 사람들은 말을 적게 하고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어지러운 생각들이 가라앉고 말을 적게 하면 슬기로운 마음이 된다. 참된 바탕은 모두 말을 떠나 있는 것이요 참된 이치는 움직이는 허상이 아니다.

입은 불행의 문이니 반드시 엄하게 지켜야만 하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초발심자경문>에서 야운(野雲)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身心把定元無動 默坐茅庵絶往來
寂寂寥寥無一事 但看心佛自歸依

몸과 마음 고요하여 흔들림 없고 / 침묵 속에 띠집 토굴 앉아 있으니
텅 빈 충만 번거로운 일이 없어서 / 마음속의 부처님만 마주 한다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보시(布施)

불교계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최근 '1만 가족 공동체운동' 전개를 선언했습니다. 동참자들은 이웃을 위해 하루 100원씩 매일 저축해 기금을 적립해 회향하거나, 하루 1분씩 기도해주는 작은 실천을 통해 '나눔'을 일상화하게 됩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010년까지 1만 가족 동참을 달성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보살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 가운데 으뜸인 '보시(布施)' 생활화운동으로 해석돼도 무방할 듯합니다. 보시라 하면 사찰에서 불사할 때 시주하는 것만을 떠올리기 쉬우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재물을 베푸는 것(財施) 외에도,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고(法施), 두려움을 덜어주는 힘과 지혜를 주는 것(無畏施)도 값진 보시입니다.

보시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취해야 할 네 가지 태도(四攝法) 중의 하나로도 꼽힙니다. 네 가지 태도란 보시, 애어(愛語 · 중생을 따뜻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대함), 이행(利行 · 선행으로 이익을 줌), 동사(同事 · 타인과 일심동체가 돼 협력함)입니다. 이쯤이면 보시는 보살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보시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대품반야경>은 "보시할 때 자기를 붙잡지 않고, 받는 이를 붙잡지 않고 베푸는 물건을 잡지 않으며 과보도 바라지 않아야 참된 보시"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이런 청정함으로 100원짜리 동전을 모으고, 타인을 위해 기도해봅시다. 우리 사는 이 땅이 더욱 맑고 향기로워지지 않을까요?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74>

늙음과 자연

최근 경제가 좋아지면서, 웰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신문이나 TV에서도 많은 부분을 건강에 할당하고 있다. 웰빙에 대한 관심이 경제와 연결되면서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미래 유망 기술 16가지 중, 9가지가 생명과학과 관련된 것이다.

이제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된 듯하다. 젊은 피부를 가지고 싶어 하고, 남보다 더 오래 근육을 가지고 싶어 한다. UN 보고서는 현재의 생명과학의 발전이 이어진다면, 수명이 150세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행복,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담론이나 고민은 작다. 단지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에 매달리는 인간의 목적 지향적인 행위만 있는 듯이 보인다.

난잡하고 불규칙한 늙은 피부는 자연의 법칙

젊어지려는 것보다 '참나' 찾는 것이 지혜로와

늙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것은 동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정서이다. 부처님도 생, 로, 병, 사를 인간의 '고'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이클이 없다면 '고'가 사라진다는 뜻이라기보다, 생로병사 사이클을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존재에 내재해 있는 성질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한편으로 70세에 '종심소욕이라도 불유구(마음이 가는 데로 행동하여도 선을 넘지 않는 경지)'라고 즐거워 했던 공자의 인생관이 놀라운 지혜로 느껴진다. 늙음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태도는 동양의 오래된 전통이다.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피부 단면을 현미경으로 찍어보면, 규칙적인 세포배열을 가진 젊은 피부에 비해서 늙은 피부는 난잡하리만큼 불규칙한 배열을 가지고 있다. 화장품 개발자는 이러한 불규칙화 하는 배열을 바꾸기 위한 화학물질을 찾고 있고, 생명과학자는 이러한 배열에 관계하는 DNA 부분이나 물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무질서해지는 것이야 말로 자연의 법칙이다.

향을 피우면 향 분자가 공기에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질은 항상 불규칙하게 되려고 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과학자들은 불규칙한 정도를 엔트로피라는 상수로 표현한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도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려는 방향(불규칙적으로 되려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것이 열역학 법칙이며 한건의 예외를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부른다. 컵을 만드는 공장은 엔트로피를 감소시키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유리분자를 규칙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컵을 만들었으므로) 컵을 만들기 위해서 태운 연료의 분자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무질서는 증가한 것이 되는 것이다.

생 · 로 · 병 · 사는 과학적으로 끊임없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우주 법칙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내재한 '참나'를 찾는 것이 피부를 더 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고'를 뛰어넘은 지혜인지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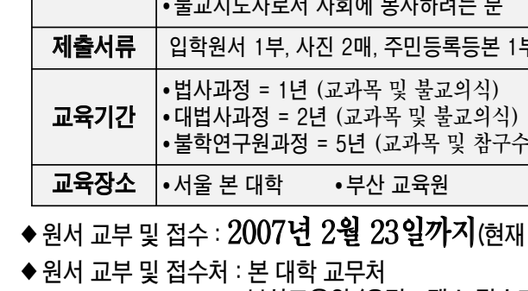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3일개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0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7년 1월 2일~ 2007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3월 개강 학과] 2007년 2월 28일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7년 2월 3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7년 3월 6, 7, 8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불교 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 통신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16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7학년도 제16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7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부산교육원 (우편 · 팩스 접수가능)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 국 불 교 법 사 대 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마음 닦고 또 닦아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지해 스님 (성주 도솔암 주지)



지해 스님은 20세에 동화사에서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동화사 봉암사 통도사 수도암 등지에서 선수행에 몰두했다. 은사스님 뜻에 따라 잠시 선학원 중앙선원장과 부산 해운정사 주지를 역임한 것이 소임을 산 전부다. 은사스님이 지어준 법명을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해 신도들이 내 준 두 권의 책에 '나무불'이라는 별칭을 쓸 정도로 존경심이 각별하다.
〈마음의 고향에 돌아가야 하리〉와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 제목의 두 권의 시집과 수필집이 있다.



자연에서 '용서'란 없다. 용서받을 것이 없으니 용서할 것도 없다. 자해 스님은 부처님 품도 그렇다고 말한다.

낯설었다. 처음 가는 곳이라서만은 아니다. 김천에서 성주로 가는 직행버스를 타고 1시간쯤 지나 내린 곳엔 음식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겨울 찬바람을 막아줄 것이라고는 투명한 플라스틱 유리로 된 시외버스 승차장 간이 칸막이뿐이다. 거기서부터 울퉁불퉁한 산길로 얼마를 올라갔을까. 산으로 막힌 그곳에 자리잡고 있는 절, 천상산 길상도량 도솔암.

"한 순간도 공부한 적이 없는 볼품없는 중을 만나러 예까지 오시다니 헛수고를 하시었소."

서늘했다. 그렇다고 외투를 입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 군데도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로 기운 장삼에 덥수룩한 수염, 온기를 느끼기 어려운 처소가 스님의 단편을 읽게 한다. 벽에 써 붙여놓은 '스스로 고요히 자유롭다'는 스님의 글귀가 유난히 크게 느껴진다.

어떤 세상인가. 욕심과 이기는 세상을 물들였다. 먼저 취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것이다. 양보란 없다. 용서는 이미 옛 미덕이 됐고, 사람들은 그것을 '생존'으로 포장한다. 이것을 여쭈었다.

"바다가 깊고 넓은 것은 땅이 낮아서 그런 것이지요. 그 바다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의지해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면 만 생명이 편안하지요. 땅은 그렇게 모두에게 양보하고 용서합니다. 덕이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욕심에 찌들어서는 관대해질 수 없어요. 비우고 낮추면 용서할 수 있고, 그 덕은 더욱 관대해져 만 중생에게 미칩니다. 실천한 바가 이처럼 뚜렷한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 낮추면 낮출수록 모든것이 편안
> 자기를 '觀'해야 상생할 수 있고
> 욕심을 버려야 마음 자유로와져

생활을 비추면 자기가 보인다고 했다. 자기를 바로 보아야 융화하고 상생할 수 있으니, 그것은 오직 스스로가 성취할 일이다. 하지만 이기는 훈련만 받아 온 현대인들에게는 자기 보다는 남이 먼저 보이는 법이다.

"쉽지 않지요, 자기를 바로 본다는 것이요.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하는 첫걸음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남을 탓하는데, 뜻대로 되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 왔습니까. 욕심은 자꾸 커지기 마련입니다. 나를 돌아볼 틈이 없지요. 그러다가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조용하고 자유로우려면 이것을 닦아야 합니다."

"실천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부처님께서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탐진치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탐진치는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에서 출발합니다. 몸버릇, 입버릇, 나쁜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몸버릇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절을 하세요. 절은 묘하게도 내 몸을 방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절이 묘법 중의 묘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버릇은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노느니 염불하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입으로 짓는 구업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입을 가만히 두기란 매우 어렵지요. 그래서 염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든 나무아미타불이든, 아니면 독경을 하든 다 좋습니다. 염불을 하면 업이 정화됩니다. 이것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연습이지요. 생각은 분별심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화두를 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화두를 들지 않고 참선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선(禪)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이 청정한 마음은 한 번 나타나면 변하지 않습니다. 청정한 마음 한 조각은 모든 것을 수승하게 해 주지요. 수행은 오직 청정한 마음 한 조각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실해지면 세상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첫 시간에 예불하는 습관을 지니고 생활하면서 절하고 독경하고 화두를 들어보세요."

도솔암을 짓고 생활한 지 15년. 그 전에는 전국의 대중처소에서 수행에만 몰두해 온 지해 스님. 그런데 지나고 보니 '쫓겨만' 다녔다고 하신다. 예불에 쫓기고, 참선에 쫓기고, 공양에 쫓기고…. 진정한 공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은사스님 뵙기가 그렇게 죄스러울 수가 없어 골짜기에서 허물을 모두 닦을 작심으로 이곳 천상산에서 참회예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새벽과 오전은 참회예불과 참선수행을 하고, 오후에는 2~3시간 울력을 한다. 스님뿐만 아니라 이곳의 몇 안 되는 대중들은 모두 울력에 동참한다. 3천 평 규모의 밭은 스님과 마을 사람들이 가꾼다. 절은 마을 사람들에게 휴식처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보수 없이 도솔암 밭을 일군다. 수확한 작물들은 함께 나눈다.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 가운데 골짜기에는 마을과 절이 있고, 자연과 평온한 마음들이 모여 시(詩)를 이룬다. 누군들 예서 시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좋고 싫고 옳고 그른 것은 없지요.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는 명확합니다. 사람은 마음 따라 살아갑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밝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둡지요. 닦고 또 닦아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해 스님을 '나무불 스님'이라고 부른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나무불'이라고 인사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나무불'에 모든 악을 끊고 온갖 장애에서 벗어나 청정한 마음으로 해탈하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한다.

겨울맞이 산곡은/비길 데 없이 고요하고/가을걷이 다한 산부(山夫)는/무척 한가롭네
서고 앉은 바위들은/진종일 햇볕을 즐기고/벌거벗은 나무들은/밤새도록 별 얘기 듣네
(지해 스님의 시 '한가한 산골 농부')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은 자연을 못살게 굴지만 자연은 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은 그 품에서 산다.

천상산에 들어와 사는 일 배우며 스스로 맛을 느끼니, 해와 달을 따라 간다. 양보는 무엇이고, 용서는 또 무엇인가. 사랑하면서 모든 것 버리니 그곳이 고향이다. 지해 스님은 지금 고향에서 밭을 일구고 있다.

성주 도솔암/글=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 × 30Cm
2 돈타레 5.6ϕ × 27Cm
5 약쑥향 1호 5.9ϕ × 20Cm
6 약쑥향 3호 4.7ϕ × 13Cm
7 약쑥향 4호 4.7ϕ × 10Cm
8 약쑥향 등초 3.1ϕ × 12.5Cm



▶ 식물성 양초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ϕ × 29Cm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ϕ × 27Cm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ϕ × 26Cm

20세기 최고의 선승으로, 조계종 종정으로 선수행의 일가를 이뤘던 성철 스님. 스님이 법문했던 제대로 수행하는 법을 정리한 <선문정로>가 25년만에 현대적인 언어로 재해석돼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로 다시 태어났다. 평소 성철 스님이 강조한 견성의 올바른 정의와 수행상의 문제 해석을 간추려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보자.

'옛거울을 부수고…'를 통해 본 성철 스님의 수행 포인트

한결같은 믿음 끊임없는 정진이 '성불의 길'



바른 깨달음은 선정·지혜 온전히 갖추고 있는 것
구경각인 묘각 성취해 견성해야 '내외명철'
"佛法은 깨달음에 있지 지식에 있지 않다"

 # 견성이란 무엇인가

견성이란 근본 마음자리를 확연히 깨쳐, 중도의 이치를 깨달아 부처가 됐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영명연수 선사는 <능가경>의 말씀을 인용해 '일체 망념이 다 사라지고 진여본성을 증득하여 융통자재하게 된 것'이 견성임을 밝혔다.

구경각 즉 여래지 만이 견성이지 10지 보살도 견성한 것이 아니라는 게 모든 조사스님들의 정설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견성이란 동정일여(動靜一如), 몽중일여(夢中一如)를 넘어 숙면일여(熟眠一如)가 되서 얻는 것이다. 견성은 즉 무심이요 구경각이며 대열반인 것이다.

 #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자성을 바로 보면 곧바로 성불한다'하였는데 자성이란 모든 중생이 지니고 있는 진여의 본성을 말한다. 불성 법성 법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번뇌 망상에 가려있으면 우리 안에 늘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보지 못한다. 열심히 화두를 들어 확연히 깨치면 빛이 샐 틈조차 없어보이던 그 두꺼운 번뇌 망상도 단번에 확 걷힌다.

 #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무상정각·무상정변지로 번역되는데 정각의 내용이 정변지에 있으므로 동일한 의미다. 무상정각인 정변지는 불교의 최후 구경목표이다.

<대반열반경>에서 견성이 곧 구경의 성불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오(解悟)와 분증(分證)을 정설이라 우기는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구경각인 견성은 중생의 근본무명 즉 제8아뢰야의 미세망상을 끊어 없애는 것이다.

 # 일체 만법이 생기지 않음을 깨치다

정혜쌍수(定慧雙修), 즉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건 실제 바로 깨친 것이 아니다. 바른 깨달음은 정과 혜를 온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마조 스님은 '여래청정선'을, 백장 스님은 '선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벗어나는 것이 여래선'이라 말했다.

조사스님들이 전한 것은 여래의 마음·뜻이고, 33조사가 전한 선법은 여래의 심의를 통달하는 법이다. 마조·백장·황벽 스님은 여래선만 거론했지 조사선은 사용하지 않았다. 여래선은 낮고 조사선은 높다 하는데 이는 후대에 조사선이라는 말이나와 여래선과 구별 짓고 잘못된 견해로 우열을 논하는 자들이 생긴 것이다.

 # 무념이 바른 종지이다

일체 망념이 다 떨어진 무심 즉 구경무심을 무념이라 한다. 무는 일체 망념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고, 염은 진여자성의 본체가 나타난 것이다. 이 무념이 곧 돈오이고 견성이며 성불이다. 대주혜해 선사는 '일체 망념이 단박에 다 떨어지는 것이 돈(頓)이고, 일체 망념이 떨어졌다는 생각마저 없어진 것이 오(悟)'라고 말씀했다.

참다운 선정이란 무심무념으로서 이익과 손해 등 갖가지 경계에 동요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래선이다. 본성을 분명하게 본 사람은 경계에 동요하지 않고 경계에 동요하지 않아야 성품을 바로 본 것이니 이를 무생법인을 증득한 것이라 한다.

#무심을 보임하다

구경지를 체득한 대해탈도인은 그저 한가롭고 한가로울 뿐이다. 이것이 보임(保任)이다. 진실한 깨달음은 대무생(大無生) 대무심(大無心) 대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야 일체를 해탈한 한가로운 도인이 되어 대안락 대자유를 누리며 보임할 수 있다.

증득에 원증(圓證)·분증(分證) 두 가지가 있다. 모든 부처님과 조사님들은 일체를 원만히 깨달아 성취하므로 원증이라 하고, 10지 보살을 비롯한 여러 성인들은 공부한 바에 따라 조금씩 부분적으로 성취하므로 분증이라 한다. 선종에서 말하는 견성은 바로 원증이다.

#자나 깨나 한결같다

아무리 철저하게 깨치고 지견이 하늘을 찌른다 해도 오매일여(寤寐一如)가 되지 않으면 망상이다. 몽중일여는 7지, 숙면일여는 8지 이상에 해당한다. 몽중일여 숙면일여를 까마득히 먼 경지로 생각할 수 있다. 허나 고불고조와 다름없는 장부의 몸을 타고 났으니 노력하지 않는 것이 장애일 뿐 지극한 마음으로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다.

철저히 깨쳤더라도 오매일여가 되는지 점검해야 하며, 또 오매일여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정안종사를 찾아가 점검받는 것이 우리 종문의 철칙이다.

 #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다

오매일여의 대무심지를 거쳐 대각을 성취하기 전에 대무심지에 머물러선 안 된다. 대무심지를 구경이라 여겨 주저앉아버린다면 그를 죽은 사람이라 한다. 반드시 그 곳에서 살아나야만 진여를 체득한 대자유인, 참 사람, 산 사람이라 할 수 있으니 이를 사중득활(邪中得活)이라 한다.

 #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의 근본이 무엇인가? 대원경지를 성취해야만 견성이란 것이다. 위산 스님 역시 견성이란 제8아뢰야식의 근본무명이 완전히 탕진해 구경각을 성취한 것이라야 참다운 견성이고 이것이 근본 종취 임을 밝혔다. 대원경지란 주관적인 상생과 객관적인 상생 그리고 일체망상의 근본이 되는 제8아뢰야식까지 완전히 제거된 것을 말한다.

 # 안팎이 환히 밝다

견성을 하면 자성의 진여광명이 시방법계를 환히 비추게 된다. 내외가 명철하여야 견성할 것이지 내외가 명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견성이 아니다. 내외명철이란 실제로 견성한 이가 아니면 알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구경각인 묘각을 성취해야만 내외가 명철하지 구경각을 성취하지 못하면 내외명철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구경각이 곧 견성이다.

#항상 고요하고 항상 비추다

적광, 적조는 구경각을 성취한 부처님의 대열반경계를 표현하는 말이다. 성불한 부처님의 경계는 일체망념이 적멸하므로 적이라 하고, 대지혜의 광명이 걸림 없이 비추므로 광이라고 한다. 이런 적광 적조가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견성이 아니다.

일체 망상이 소멸했다는 말은 지혜광명이 드러났다는 뜻이고 대지혜가 드러났다는 말은 일체망념이 끊어졌다는 뜻이다.

 # 이해로 깨닫고 점차 닦아 나아가라

교가(敎家)의 수행방법인 해오점수(解悟漸修)는 돈증불지(頓證佛地)하는 선문종지와 다르다. 옥석을 혼동하면 일대과오가 발생한다.

보조지눌 국사의 영향으로 해오(解悟) 즉 10신초를 견성이라 여기는 이들이 많다. 허나 그것은 교가의 주장이지 선문의 정통사상은 아니다. 만일 망상과 습기가 남아 있다면 크게 재발심해서 확철대오해야 한다. 점수한답시고 미진한 것을 억지로 없애려들고 닦고 보완하려 들면 번뇌와 습기를 더욱 성하게 할 뿐이다.

 # 들은 것이 많아 알음알이만 있다

자성을 깨치는데 주력해야지 지해를 탐닉함은 병이다. 선종에 들어왔으면 불성을 확연히 밝힐 생각을 해야지 알음알이의 증장에 힘써서는 안 된다. 불법은 깨닫는 것이지 사량분별로 아는 것이 아니다.

보조 스님이 설한 <수심결>의 돈오점수 사상 때문에 지해의 병이 들어 선을 닦는다는 이들이 참공부를 못해 대선지식이 출현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런 사상을 배격하는 것이다.

 # 남김없이 번뇌를 다 없애다

일체 번뇌 망상이 다 사라진 구경각은 활연개오(豁然開悟)라 한다. 다문제일 아난존자도 부처님 사후 1차 결집 때는 깨닫지 못했다 해서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 용맹정진해 대오를 이룬 후에야 비로소 결집에 다시 참석할 수 있었다. 불법은 결정코 깨달음에 있지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리=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②

오대산 중대암

장인성 시인

큰 산에 눈발 쌀에 무름까지 하얄다
길 없는 길에 김은 발자국을 찍으며 들어선
오대산 중대암
담 밑에 내어놓은 먹이를 다투는
산짐승 날짐승의 허기진 눈빛이
나처럼 먼길을 걸어온 것 같다

눈발이 쌓이면 큰 산도 문을 걸고
죽은 듯 꼼짝않고 지내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아니구나
절집으로 나 있는 산문을 활짝 열고
묶어둔 묵숨들을 쓰다듬고 있었구나
그래서 큰 산마다 절집을 세워놓고
산으로 드나드는 문을 닫아놓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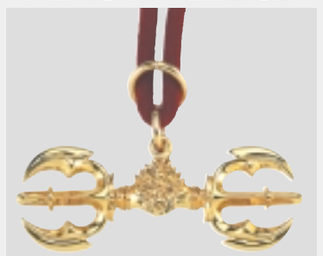
※중대암(中臺庵): 오대산의 다섯 봉우리 즉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 가운데 중대에 자리한 사자암을 인근주민들은 중대암으로 부른다.



그림: 이상배 화백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밸트
삼재소멸 선물!
건강의 선물 !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삼고금강저밸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 (남성)님들을 위해 항상몸에지니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밸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밸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밸트는 고급 천연소가죽에 멜토에너지와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실용신안 등록 밸트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성 고급밸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해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밸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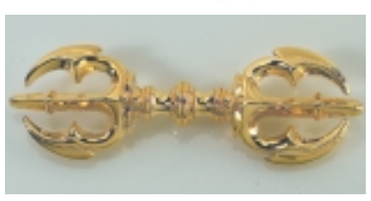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옴마니반메훔 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남성용金나노중지갑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새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 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하는 어려운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신년벽두 '지식·신행 충전' 하고 싶다면

가까운 사찰 교리강좌에 가 보라!

불자 예절·상식 등 짧은 시간에 '소화' 가능

1월 17일 서울 호압사(02-803-4779). 2007년 호압사 기초교육 강좌가 시작되는 날이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불자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 앉은 자리에서 성불이라도 할 듯 마음을 다잡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겠다는 각오들이 엿보인다.

차차석 연구교수가 맡은 첫 날은 기초교리로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강의는 기초교리 뿐만 아니라 비교종교학, 웰빙 시대의 건강, 보살사상과 윤리, 사찰예술 등 다양한 강좌로 4월까지 이어간다.

사찰들이 운영하는 기초소양교육등 교양강좌들이 초발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호압사를 비롯해 수원 용주사, 대전 만불선원 등 기초교육에 불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수원 용주사(031-234-0040)는 초심자를 위한 초심자반 강좌를 개설한다. 3월 14일(예정)부터 4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불자예절과 상식, 부처님의 생애, 기초교리 등을 가르친다.

남양주 봉선사(031-527-1951)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기초교리강좌를 중심으로 교양강좌를 개최한다. 3월 6일 오전 10시 청풍루에서 입학식도 개최한다. 3월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2~4시 경전반을 운영한다. 모집은 2월 28일까지.

대전 만불선원(042-222-3315)은 2007년 기초교리반을 운영한다.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불자들을 위해 기본예절부터 보살행의 의미 등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한다.

평창 월정사는 성보박물관 문화대학 3기생을 모집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와 우리역사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준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다. 불교문화에 대한 이론 강의와 현장 답사를 겸한 강좌. 3월부터 12월까지 월두 차례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강좌가 진행된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053-474-8228)는 불교기초영어강좌를 개설한다. 1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된다.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연수한 조계종 국제포교사 우성연 강사가 강의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불교용어, 부처님의 생애, 교리, 사찰안내 등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서울 호압사
매주 수요일 건강 · 예술도 배워

· 수원 용주사
초심자반 운영…4개월 집중공부

· 남양주 봉선사
기초교리 교양강좌 · 경전반 등

· 대전 만불선원
기본예절부터 보살행 실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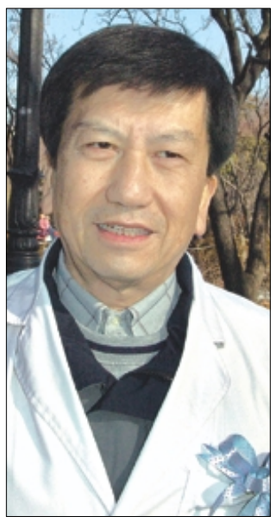
· 평창 월정사
성보박물관 문화대학, 현장학습도

·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불교기초영어강좌, 부처님생애 등

interview

불자약사보리회 **유창수** 신임회장

"봉사할 곳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야죠"



"우리를 부르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 봉사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불자약사보리회 유창수 신임 회장이 1월 14일 서울 종묘공원 내 불자약사보리회의 무료투약 봉사현장에서 취임하며 이렇게 다짐했다.

"우리 보리회는 고통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성심 성의껏 노력해왔다"며 "종묘공원에서부터 마포구장애인 진료소, 서울역노숙인 진료소 등 전국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건강상담과 필요한 의약품을 전해왔다"고 불자약사보리회의 활동을 설명했다.

유창수 신임회장은 "연세 많은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이 맨 앞에서 궂은일을 마다 않고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주변에 사시사철 보리회의 일을 도와 주셨던 이들이 있었기에 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2년간의 임기로 불자약사보리회를 이끌어 가게 될 유창수 신임회장은 "우리 불자들은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방편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철저한 육바라밀 실천수행으로 반야지혜를 체득해 나는 물론 이 사회가 맑고 깨끗해져 불국토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불자약사보리회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회장 취임식을 끝내자마자 유창수 신임회장은 바로 봉사현장으로 돌아갔다. 손이 곱을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도 진료를 받고자 하는 끝이 보이지 않게 줄 서 있는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진료하기 위해서다. 약사들로 구성된 불자약사보리회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영림라이온스클럽 봉사단 등도 자원봉사에 나서 두루두루 어르신들을 보살폈다.

봉사현장에는 유창수 신임회장이 말한 포부가 훈훈한 온기를 더했다.

강지연 기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전 일주향 올리며 (중)

김남식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버지의 사업은 연일 번창했습니다. 농장을 하시던 분이 타 업종까지 손을 대면서 돈은 더 풍족해졌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왠지 더욱 행복했어야 할 우리집에는 걱정과 근심만 점점 늘어갔답니다.

급기야 아버지는 처음 보는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보고 작은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충격을 받아 몸져누운 어머니의 눈물 속에 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파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업보였을까요? 과보였을까요? 아버지의 창고에 큰 불이 나서 아까운 인명까지 앗아가는 대형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림: 문병성

승승장구하던 아버지의 사업은 한순간에 기울어갔습니다. 더불어 같이 기울어가는 우리집안을 보면서 저는 순간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중심을 잡고 어머니를 보살펴야했건만 아직 어렸던 저는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싫었습니다. 점점 학교 공부에는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나쁜 짓들에만 몰두했습니다.

들끓는 반항심 '특전사' 입대로 극복

경찰서 유치장에서 저를 빼내기 위해 굽실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즐겼습니다. 저를 위해 자존심도 굽히고 경찰들에게 굽실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복수였던가 봅니다. 그렇게 못난 생각만 하던 철모르는 어리석은 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가슴은 아팠지만 이미 마음이 삐뚤어진 저에게 그 누구의 설득도 나무람도 올바르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약간의 돈만 생기면 가출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집을 나와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밤에는 업소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되는대로 막 살았습니다.

"제발 이 엄마를 봐서라도 어떡하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어머니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도 습이 되어 깊숙이 젖어 있어서였을까요? 어머니의 말씀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지쳤다면서 나 몰라라 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또다시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어 버린 듯, 하늘이 무너진 듯한 느낌으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라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누워계신 어머니께 "엄마, 잘못했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못난 저에게 효도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지 어머니는 더 이상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회복돼 가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부처님 성모님 하느님 모두에게 두 손 모아 감사의 절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의 잘못 살아왔던 인생을 반성하며 특전사에 입대했습니다.

전역 후 제법 큰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가진 아빠가 되었습니다. 매일 매일 약의 힘으로 견디시는 어머니와 운신이 힘든 아버지가 계시지만 저에게 최고의 버팀목이니 두 분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을 했고 때마침 불어닥친 IMF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떡하든 부도를 막아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돈 때문에 아까운 생명까지 앗아가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을 늘어놓아도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는 받아들여지지 않겠지요. 불효막심한 자식이 저지른 순간의 실수로 또다시 가슴속 응어리가 졌을 우리 어머니와 가족을 뒤로 한 채 15년이라는 중벌을 받았습니다. 참회와 교화라는 이름으로 영어의 몸이 된 지 8년….

도대체 왜 이래야만 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자포자기 속에 얼마동안 주위와는 담을 쌓고 세상을 원망하며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저 자신을 옥죄이고 있었습니다.

그저 숨쉬는 것이 한스럽고, 살겠다고 밥 한 술, 물 한 모금 삼키는 것이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을 감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어떻게 하면 이 구차한 생명의 끈을 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끝만 생각하고 있던 제가 어느 날 무심코 뒤적인 책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만났습니다. (계속)

불우이웃돕기 불서화전

정해년을 맞이하여 모든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오며,
금번 본 종단 부산교구 효산스님께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불서화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불기 2551(2007)년 2월 9일 오후 1시 - 2월 15일 (7일간)**
- 장 소 : 금정문화회관 1층 전시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맞은편)
- 주 최 :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
- 후 원 : 대한불교원효종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전화 02)735-0501 / 팩스 02)736-3509 / H · P (효산) 019-515-7930 / (화운) 010-9323-5121

2007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사업 공모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은 불교학 발전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연구자들의 독창적이고 충실한 연구 성과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1. 제1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1) **공모주제** : 불교학 관련 자유주제
2) **지원자격** : 불교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 이상(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은 제외)
3) **인원(상금)** : 3명(1인당 300만원)
4) **제출서류** ① 연구계획서(A4 10매 내외, 자유형식)
② 이력서(주소 · 전화번호 · e-mail 기입)
③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 및 목록 상 실적물 각 1부씩
5) **제출기한 및 발표** ① 제출기한 : 2007년 1월 24일~2월 10일 오후 5시까지
② 선정 및 통보 : 2월 20일(선정자 한해 개별통보)
6) **주의사항** ① 선정자는 2007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전반기 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② 발표논문은 학계에 이미 발표된 적이 없는 참신한 논문이어야 한다.
③ 선정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회의 발표 이후 논총 <선문화연구>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월례발표회
1) **발표주제** ① 한국근현대불교사와 사상의 주요쟁점 및 연구방법론
② 한국근현대불교문화(불교문학 · 불교음악 · 불교미술 등)
③ 한국근현대불교사와 선학원
④ 한국근현대불교 관련 기타 모든 분야
2) **원고분량** : A4 5~6매
3) **발표자격** : 박사과정 이상인 자
4) **발표일시** : 2007년 3월 3일(시간 · 장소 추후 공지)
5) **신청기간** : 2007년 1월 24일~1월 31일 오후 5시까지
6) **특 전** ① 발표비 : 1인당 30만원
② 본 연구원 논총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③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3. 문의 및 서류접수
• 주소 : (우)110-2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전화 : (02)734-9653, 팩스 : (02)734-3410

財團法人 禪學院 韓國佛教 禪理研究院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국제포교사회, '제3회 어린이 영어 캠프' 현장

"L●rd Buddha ♪♬♬~" 영어·불교 신나요~

(거룩하신 부처님)



색종이로 연꽃만들기 체험.

"Where are you from?(어디서 왔니?)" "I'm from Busan.(부산에서 왔어.)" "Lord Buddha(거룩하신 부처님). Lord Buddha ♪♬♬~."

1월 13일 아침 9시, 서울 화계사 보화루. 외국 어린이들이 화계사로 템플스테이를 왔을까? 보화루 밖으로 들리는 소리는 온통 영어동요와 영어대화 뿐이지만 사실은 국제포교사회(회장 강영성)가 개최한 '제3회 어린이 영어 캠프(3rd YOUTH BUDDHIST ENGLISH FUN DAY)' 현장이다.

초·중등생 42명이 참가한 이번 영어캠프의 첫 프로그램은 '영어로 듣는 부처님 전생담' 시간. 국제포교사 김나영 선생님이 "What was we former life?(전생에 우린 뭐였을까?)"라고 묻자 아이들은 저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Tree(나무요), Tiger(호랑이요), Prince(왕자요) …."라고 외쳐댄다.

"자~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 전생담 한편을 소개할까 해요. 부처님이 전생에 사슴이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슴이 사냥꾼이 쳐 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중략)사슴의 친구인 거북이와 까치가 그물에 걸린 사슴을 구해 줬어요. 부처님 전생담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자~~누가 한번 발표해 볼 사람?" "저요. 저요. 저요." 여기저기서 "제가 발표할께요"라며 손을 드는 모습이 마치 코미디 프로그램 '봉숭아 학당'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라 있다.

"음~~. 지현이가 한번 말해볼까?" "네. 친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친구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갚아야 해요."

"은주 생각은 어때?"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더 큰 힘이 생기고 서로 협동해서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점심공양(사진 왼쪽) 모습과 촛불 명상시간.

부처님전생담 영어로 들으며
자연스럽게 영어·불교 공부
절 밥 맛있다며 두 그릇 먹기도
부모 은혜 생각하며 촛불명상

이어진 프로그램은 '공양게송 배우기' 시간. 국제포교사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이 "이 음식에 깃든 은혜 두 손 모아 감사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 명심발원하옵니다 ♪♬♪♬"라고 선창하고 아이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따라한다. 게송이 끝난 후 스님이 "여러분 노래 잘 배웠죠? 근데, 노래 가사 중 '상구보리 하화중생' 뜻 아는 사람 손들어 봐요"라고 묻자 순간 다들 꿀 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이 없다. 이런 침묵을 깨고 장난끼가 발동한 윤태호(백운초교4)군이 "상구가 보리밥 먹는 거요~~."라고 말하자 모두들 한바탕 배를 잡고 웃었다. 태호의 장난에 어이가 없었는지 석송연(고은초교6)양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위로는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는 대승불교의 자리이타 정신을 표현한 말입니다"라고 발표하자 참가한 아이들 모두 "우와~~짱 잘 안다"라며 뜨거운 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오후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촛불 명상'. 불이 꺼진 컴컴한 보화루 법당. 가부좌를 튼 42명의 아이들의 무릎 앞으로 촛불 하나씩이 켜져 있고 명상음악이 잔잔하게 보화루를 휘감고 돈다. 촛불이 켜진 어둠 속에서 아이들은 발원문을 또박또박 낭독한다.

"나의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하기를 발원합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하기를 발원합니다. 나의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하기를 발원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할 것을 맹세합니다."

촛불명상이 끝난 후 "어땠느냐?"고 기자가 묻자 최호민(독립문초교4)군은 "앞으로 동생하고도 싸우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말썽 안 피우는 사람이 되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 해야겠다"고 말했다. 남윤경(오봉초교3)양도 "평소에는 부모님의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 촛불명상을 통해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입은 은혜가 많았다는 걸 느꼈고 그분들에게 더 잘해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글·사진=노병철 기자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겨울 숲속 여행
서울시는 1월부터 2월까지 생태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숲 속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남산, 청계산, 서울대 공원 등지에서 매주 주말마다 열린다. 매주 60명 선착순 모집. (02)3707-9611

어린이 문화 체험 교실
광양청소년문화의집은 1월 한달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문화체험 교실'을 연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요가, 인성교육, POP 글쓰기, 북아트, 뮤지컬 잉글리쉬 등이다. (061)761-1335

자녀의 학습돕기 & 대화기법 배우기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는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습 돕기 및 대화기법'을 주제로 강의를 연다. 강의 내용은 부모가 도와주는 학습 환경, 독서 방법, 효과적인 대화방법, 미래 사회의 인재 기르기 등이다. (02)898-4941

'인권포럼' 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센터는 '제 2회 아시아인권 포럼'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16세~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신청등록서와 기관장 혹은 학교장의 추천서를 메일(achr@achumanrights.org)로 보내면 된다. 포럼행사는 2월 5일이며 등록마감은 1월 29일까지다. (02)723-1671

자원봉사 프로그램 체험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중·고등생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사랑체험'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031)716-4215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51로 연락주세요.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전개

'현대불교'가 2007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996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란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던 현대불교가 다시 같은 주제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현장이 여전히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방치하고는 불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올해부터 어린이 포교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새싹 불자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대불교' 역시 불교의 미래를 밝게 열겠다는 각오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캠페인 전용 지면 두개면 마련
'현대불교'는 매주 2페이지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면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활기찬 법회 현장과 각종 활동 현장을 소개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만화, 칼럼 등의 연재를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종립학교에 '현대불교' 보내기
현재 불교계 종립학교는 30 곳이며 총 학급 수는 750 개에 이릅니다. 가장 가까운 포교 마당인 종립학교 교실마다 '현대불교'를 보내 어린이·청소년들을 불교와 보다 친근하게 인연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또 각 종립학교의 교장·교감 선생님과 교법사, 도서관, 불교 동아리 등에서도 '현대불교'를 매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종립 중고교생 논술 경시대회
논술이 입시의 최고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종립중고교생들의 논술 기량을 높이고 불교의 교리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논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논술 경시대회를 개최해 종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돕겠습니다.

■ 수험생을 위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자비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해 주목받고 있는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이 2월 10일과 11일, 24일과 25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자비명상'을 진행합니다. (문의 02-2004-8237)

■ 희망의 템플 스테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사찰에서 며칠 묵으며 각종 문화와 수행을 체험하는 것은 인생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현대불교'는 방학을 이용해 보다 알차고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겠습니다.

캠페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우체국 010579-02-078140 (예금주 노병철)

정해년 새해 마가스님 틱낫한 스님과 함께 떠나는 명상여행

베트남 "호치민"/캄보디아"앙코르왓" 6일
베트남 북부"하롱베이 5일



귀의 삼보하옵고,
정해년 새해를 맞아 베트남 현지에서 틱낫한스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명상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길을 찾아 마가스님과 함께 떠나는 명상여행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제여행사 대표 구광국 합장

마가 스님
2003년 중앙대학교의 명상 강의와 마곡사의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신을 느끼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알리는데 전력을 다하신 스님입니다. 그런 스님이 이번에 정녕 수행자이신 틱낫한 스님을 친견하고 한국 불자들에게 정념 수행을 전하고자 베트남에서 '명상여행' 프로그램을 마련 하였습니다. 틱낫한 스님은 1999년과 2003년에 한국을 방문 했었고 스님의 저서 (화)〈명진출판사〉와 플럼빌리지 정념수행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님입니다. '명상여행'은 틱낫한스님의 법문을 듣고 함께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명상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마가스님 뿐만 아니라 참가자 20명 당 1명의 명상 지도자가 배치돼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틱낫한 스님
1926년에 베트남에서 출생해서 열여섯살에 선불교에 입문했습니다. 30대 중반 스님은 미국에서 비교종교학강의를 하여 반전 평화운동과 베트남난민과 부상자를 돕기 위한 사회봉사 청년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공로로 마틴루터 킹 목사의 추천으로 노벨평화상 후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프랑스로 망명해 명상공동체 '스위트 포테이토' '플럼빌리지'를 설립하고 미국에도 '단풍립 승원' '그린마운틴 수행원'등을 차례로 설립해 명상수행을 세계에 알리고자 힘써왔습니다. 저서로는(화), (기도), (틱낫한의 평화로움) 등 10여 종의 책들이 애독되고 있습니다.

1차 베트남·캄보디아 "앙코르왓" 6일(4박6일)
◈ 기 간 : 2007년 3월 7일 ~ 3월 12일
◈ 출발인원 : 60인 이상
◈ 동 참 비 : ₩1,190,000 / 1인

2차 베트남 북부"하롱베이" 5일(3박5일)
◈ 기 간 : 2007년 5월 2일 ~ 5월 6일
◈ 출발인원 : 60인 이상
◈ 동 참 비 : ₩950,000 / 1인

고아원이나 현지의 가난한 마을을 방문합니다.
집에 있는 헌 옷가지를 가져오시면 현지에 있는 불우한 이웃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 · 캄보디아"앙코르왓" 6일

날 짜	지 역	교통편	시 간	행 사 일 정	식 사
제1일 3/ 7	인 천 호치민 씨엠립	VN939 VN829	10:25 14:00 16:30 17:30	인천 출발 // 호치민 향발 호치민 도착후 경유하여(공항대기) 호치민 출발 // 씨엠립 향발 씨엠립 도착 → 석식후 호텔투숙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석-한 식
제2일 3/ 8	씨엠립	차 량	전 일	아침공양 후 순례 - 앙코르톰 일원의 남문 남쪽 크레앙, 바푸욘사원, - 바이욘사원, 코끼리테라스, 레프왕테라스, 타푸롬사원 관광 - 점심고양 후 세계7대 불가사의인 앙코르왓 관광 - 앙코르왓 일몰감상 (쇼핑센타방문:보석샵,상황버섯샵) 저녁공양 후(압살라민속쇼) 및 호텔투숙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3일 3/ 9	씨엠립 호치민	차 량 VN848	전 일 20:25 21:25	아침공양 후 톤레삽 호수 관광 및 수상촌 관광 - 점심공양 후 바레이호수 및 웨스트 메본사원 관광 → 작은킬링필드 관람 저녁공양 후 공항으로 이동 / 씨엠립 출발 호치민 도착 → 호텔투숙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조-호텔식 중-한 식 석-현지식
제4일 3/10	호치민 바오록 (Bao Loc)	차 량	전 일	아침공양 후 순례 → 메콩델타 지역인 미토로 이동(2시간 20분 소요) - 선편으로 유니콘섬으로 이동-현지인 가이드 동행 열대과일시식, 열대과수농장, 정통생활모습 - 중식(생선, 스팀보트, 볶음요리, 튀김, 베트남 쌈등) 바오록(Bao Loc)으로 이동(5시간 정도 소요 예상)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5일 3/11	바오록 (Bao Loc) 호치민	차 량	06:00 13:00	- 틱낫한스님 법문 및 2천여명의 수도승 탁발의식 참가 점심공양 후 바오록 출발 / 호치민 향발 → 호치민 도착 후 저녁공양 공항으로 이동 기내박	조-호텔식 중-행사식 석-현지식
제6일 3/12	호치민 인 천	VN938	01:10 08:10	호치민 출발 / 인천 향발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도착 후산 "성불하십시요"	조-기 내

베트남 북부 "하롱베이" 5일

날 짜	지 역	교통편	시 간	행 사 일 정	식 사
제1일 5/ 2	인 천 하노이	VN937	08:10 10:40 13:10	인천 국제공항 3층 L과 M사이 집결 인천 출발 // 하노이 향발 하노이 도착 → 중식(쌀국수) 후 관광 -호암키엠 호수, 문학사원, 재래시장 등 시내관광 저녁공양 후 수상인형극 관람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조-기내식 중-쌀국수 석-한 식
제2일 5/ 3	하노이	차 량	전 일	아침공양 후 공식행사 참가 틱낫한 스님 법문 저녁공양 후 호텔투숙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3일 5/ 4	하노이 하롱베이	차 량	전 일	아침공양 후 시내관광 -호치민 박물관, 호치민 영묘, 한기둥 사원, 바딘광장 중식 후 하롱베이로 이동(약 4시간 소요) -영화 "인도차이나"에서 린당팡이 은신하였던 아름다운 경치 저녁공양 후 호텔 투숙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조-호텔식 중-한 식 석-현지식
제4일 5/ 5	하롱베이 하노이	차 량 유람선 차 량	전 일	아침공양 후 하롱베이 관광 유네스코 지정 관광지 3천여개의 섬 관광 → 선상 중식 하노이로 귀환 → 저녁공양 후 공항으로 이동 사이공 선상디너 및 야경감상 후 공항으로 이동 기내박	조-호텔식 중-한 식 석-현지식
제5일 5/6	하노이 인 천	VN936	00:35 06:40	하노이 출발 / 인천 향발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도착 후산 "성불하십시요"	조-기내

☞ 상기 일정은 항공과 현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불교성지순례 전문 아제여행사 02)730-4008 홈페이지 : www.ajetour.co.kr 또는 한글 '아제여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명진출판사에서 틱낫한 스님의 책 〈기도〉를 증정합니다.



성적이 쑥쑥 오르는
10분 명상 기공

날숨·삼지법 생활화… 스트레스 '싸~악'

2. 날숨으로 걱정·고민 날려 보낸다

■ 이렇게 해 보세요

①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턱은 약간 당긴 자세로 어깨와 양팔을 비롯한 전신에 긴장을 푼 다음 양손을 무릎 위에 놓고 눈은 살짝 감거나 뜬다.

② 가슴을 활짝 열고 (들숨은 의식적으로 들이쉬려고 하지 않아도 가슴을 펴면 자연히 들어오게 됨) 날숨을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내쉬면서 호흡을 안정시킨다.

③ 약 3회 정도 긴 날숨으로 호흡을 안정시킨 다음, 호흡의 끝을 배꼽 아래로 가만히 내려 놓고 삼지(엄지, 검지, 중지)를 가볍게 모은다.

④ 삼지를 한 손가락 끝에서 뛰는 맥박에 의식을 집중하여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유지하면서 날숨과 함께 맥박의 고동을 관(觀)한다.

■ 이럴 때 하면 효과 짱!

친구랑 다투거나 시험을 앞두고 몹시 긴장될 때, 화가 나거나 참아야 할 때.

■ 해보니 이랬어요.

* 아무리 흥분하고 놀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자신감이(아직은 작지만) 생긴 것 같아 좋다. 매일 이렇게 숨을 쉬면 좋아질 것 같다.
* 날숨 호흡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삼지를 할 때는 손끝에서 콩닥콩닥 하는 것 같아 참 신기했다. 꼭 손가락에 맥박이 있는 것 같았다.



1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우곡선원에서 운영하는 명상(참선)교실에서 명상수련을 하고 있는 모습.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무서운 곰을 만났다. 겁에 질린 한 사람은 혼자서 얼른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은 척 했다. 어슬렁어슬렁 다가온 곰은 숨을 죽이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죽은 줄 알고 그냥 가 버렸다. 곰이 갔음을 확인한 친구는 나무에서 내려와 엎드려 있는 친구에게 가서 물었다.

"곰이 자네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있던데, 뭐라고 하던가?"

엎드려 있던 친구가 일어나며 말했다.

"응, 별 말은 아니고, 자기만 살겠다고 친구를 버리고 간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더군."

유명한 이 이야기는 진정한 친구의 조건을 깨우쳐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호흡이 생명의 유무를 구분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임을 말해준다. 이 곰에게 죽고 살고의 기준은 바로 호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호흡, 즉 들숨과 날숨으로 이어간다. 태어날 때 터져 나오는 울음과 함께 날숨으로 부터 호흡이 시작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들이쉬고 내뱉는 호흡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나 긴장도 날숨을 잘 쉬면 날려버릴 수 있다.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초조할 때면 으레 심호흡을 하며 숨을 크게 내쉬곤 한다. 우리 몸이 날숨을 깊게 쉬면 쉴수록 안정을 찾기 때문이다.

우곡선원의 모든 명상프로그램에서는 명상을 위한 준비 단계로 날숨호흡을 반복한다. 그리고 삼지법을 통해 손끝에서 톡톡 뛰는 맥박의 움직임을 관조하며 쉽게 고요를 체득할 수 있다.

청소년 명상교육이 끝난 후 "날숨호흡을 하니 마음도 편안해지고 삼지법을 통해 집중력이 생겼다"는 학생들의 경험담을 많이 듣는다. 누구든지 따라해 보면 날숨만 잘 쉬어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김혜경 선생님(우곡선원 교육지도자불자회장)

내뱉는 호흡 깊게 쉴수록
마음 안정 찾고 고요해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sasiman@daum.net)

종교 다르다고 왕따시켜요!

요즘 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모두 다 교회에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는 데 저만 절에 다녀서 왠지 모르게 차별대우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과 다르게 친구들이 왕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게 좋을지 계속 절에 다녀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은정(서울 연희동 · 14)

본각스님의 말씀

(금장사부설 보리방과후 교실 대표)

평화의 종교라는 긍지 가지세요

기쁜 마음으로 새 학기를 맞이해야 할 은정이가 종교문제로 고민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스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은정의 친구들이 교회나 성당을 다니지 않는다고 왕따를 시킨다면 참다운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친해질 수 없다면 그것은 종교의 노예이지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스님은 은정에게 묻고 싶습니다.

은정이는 부처님의 거룩함을 진정으로 알고 있나요? 부처님은 어느 누구와도 싸움을 하거나 자기만이 최고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은정의 친구 중에 돈이 있거나 힘이 있다고 잘난척 한다면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라고 배웁니다. 종교도 자기 것만 최고라고 내세우면 결국은 상대방이 상처를 입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은정이가 친구들과 더 대범하게 사귀기 바랍니다. 친구 집에 놀러가듯 교회나 성당에도 놀러가세요. 좋은 점도 배워오고요. 친구 집이 좋다고 자기 집을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로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보살피고, 잘난 척하거나 남을 무시하지 않는 평화의 종교라는 긍지를 은정이 먼저 가져주세요. 소중한 자신의 것을 지키면서 누구도 왕따 시키지 않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간직해 주기 바랍니다.

"신수 비결" "이름 대사전"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음령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역학 개인지도 - 수시접수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 불 광

불 모 허길량

직 원 일 동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8
대불광빌딩 5층
전화 02)738-1117

대한불교조계종 9교구
대 산 사

사부대중일동

■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1143
전화 054)372-6534

대한불교 선각종
영천 보현산 등명사

조 실 석정암
주 지 석혜명
신도일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전화 054)337-4572(등명사)
054)281-7712, 7719(포항자명선원)

佛教財團 大韓佛教圓宗
(종립) 한국승가대학

종 정 석원종 대종사
중앙종무원장 성 수
교 육 원 장 지 용
교 무 부 장 법 인
감 사 성 원 규정 성 오

■ (사무국)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561-17
전화 053)621-3610

대한불교전통 조계종
팔공산 봉 경 사

주 지 아 산 스님
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산 183
전화 053)857-5686



부처님 가르침 이야기책 읽듯 술~술

전재성 박사 '앙굿따라니까야' 4권 발간…생략된 경구 최초로 복원 번역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집오면, 바로 그날 밤이나 그 날 낮 동안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남편과 심지어는 하인이나 일꾼들에게까지 아주 부끄러워하고 창피스러워한다. 그러나 함께 살게 되고 친밀해지면서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남편과 심지어는 하인이나 일꾼들에게까지 '비켜요, 당신들이 무얼 알아요'라고 말한다."

<앙굿따라니까야> 제4권 <며느리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일상에서의 우리들의 자세를 재미있게 꼬집고 있다.

<앙굿따라니까야>가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놀랍게도 남녀 간의 문제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여자보다 더한 것이 없고,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남자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성욕의 문제를 성찰한다.

니까야(Nikāya)는 부류(部類) · 부파(部派)로 번역되는 말로, 석가모니 입멸 후 약 100년 간 부처님 가르침이 경장(經藏)으로 집대성되는데, 이후 교단이 여러 부파로 분열되면서 각 부파마다 성전을 갖게 되며, 이 가운데 남방 상좌부의 경장이 바로 니까야다.

니까야는 초기불교경전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디가니까야>는 <장아함경>, <맛지마니까야>는 <중아함경>, <쌍윳따니까야>는 <잡아함경>, <앙굿따라니까야>가 <증일아함경>에 상응하며, <쿳다까니까야>는 <법구경> <본생담> 등으로 한역돼 있다.

이들 5부 니까야는 부처님의 가르침 원형 그대로를 담고 있는데다, 일상의 교훈이 되는 내용이 풍부하고 부처님의 인간미까지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왔다.



앙굿따라니까야 1 · 2, 3, 4권
전재성 역주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각권 2만5000~3만5000원

이 중 <앙굿따라니까야>는 수행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수행방법 또한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재가신도의 일상적인 관심과 연관된 심리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전재성(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 · 사진) 박사가 2년여 준비 끝에 선보인 <앙굿따라니까야> 1 · 2, 3, 4권은 전 11권 가운데 일부다.

한꺼번에 4권을 내놓았다는 것도 그렇지만, 1500여 개나 되는 경전이름을 일일이 밝히고, 원전 자체에서 생략돼 있는 경구를 복원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저자인 전재성 박사가 책 표지에 '세계최초완전복원번역'이라는 수식어를 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니까야를 읽는 맛은 부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한역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된 경전과는 현장감이 다르다. 게다가 한역과 우리말 번역을 거치면서 생긴 오류를 답습하지 않게 되니 이 또한 니까야를 읽는 이점이다.

니까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딱딱하고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만 막상 니까야를 펼치면 생각이 달라진다. 중학생 정도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문장이 쉽고, 게다가 대화체여서 마치 함께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이 책이 갖는 출판 · 학술적 의미를 따지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것은 니까야를 읽는 것이다. 그것도 재미있게…. 한 번 손에 잡으면 마치 이야기책을 읽듯 술술 읽어 내려갈 수 있다.

<앙굿따라니까야>와 함께 선보인 개정증보판 <쌍윳다니까야> 1, 2권은 초역본에서 5권을 임의로 11권으로 나누었던 것을 다시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전재성 박사는 "나머지 5~11권까지의 <앙굿따라니까야>는 올해 안으로 완역할 예정이며, 많은 불자들이 니까야의 가치를 느껴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다시 온 한 통의 '편지'

법정 스님 '오두막 편지' 개정판



오두막 편지
법정 스님 지음
이레 | 9800원

법정 스님이 오두막에서 편지를 썼다. 수신인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었다. 저마다 자신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 것들. 편지 속엔 그것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1999년 출간된 <오두막 편지>는 그렇게 세간에 회자됐다. 그리고 2007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왔다.

개정판인 이 책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준다. 8년 전 이 책을 읽었던 사람라면 서랍 속 깊이 간직해 둔 그 옛날 일기를 꺼내보듯 다시 한 번 읽어보라. 이 책을 읽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꼭 받고 싶었던 편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읽어보라. 예전과 지금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만나고 싶다면….

무질서 속에서 질서찾기

고영섭 시집 '흐르는 물의 선정'



흐르는 물의 선정
고영섭 지음
연기사 | 8000원

시인은 늘 길을 떠난다. 6년 만에 다시 떠난 길. 첫 시집 <몸이라는 화두>에서 허리를 굽혀 세상을 바라보았던 고영섭 시인. 그가 꿈틀거리며 떠나고자 했던 목적지는 어디일까.

시인은 여섯해 만에 낸 두 번째 시집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의 화두는 '몸'으로부터 '물'을 거쳐 '똥'으로 향해가고 있다. 이 셋 모두는 실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통하고 있다. (중략) 삶은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사이에서 길항하면서 무질서 속의 질서인 혼돈 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말이다"

섬세하게 느껴지는 시인의 불교에 대한 깊이. 불교학자(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서 학(學)과 시(詩)를 병

yosiamun.com 추천도서

· 하루의 행복	세프라 코브린 피첼, 9000원, 경성라인
· 대승찬강설	무비스님, 9000원, 불광출판부
· 티베트 불교입문	탈렉 린 림포체, 1만6000원, 청년사
· 개구리가 참선을 한다	황명찬, 9800원, 지혜의나무
· 마음의 불을 꺼라	브렌다 쇼샤나, 9000원, 정신세계사

도서주문 (02)2004-8219

선사들의 말 한마디에도 가르침이

도우 스님이 겪고 들은 선사들 일화 정리



뜰 앞의 잣나무
도우 스님
화남 | 1만원

여름 결제 기간 중 직지사 천불선원에서 운봉(雲峰) 스님을 초빙해 상당법문을 듣게 됐다. 그때 운봉 스님이 주장자를 가져오라 하니, 원주가 원주실에 있다고 하기에 주장자를 가져다 드렸다. 그랬더니 운봉 스님이 "이 주장자 어디서 가지고 오는고?" 하시기에 "원주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주장자로 내리치시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나' 생각하게 됐다.

선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그대로가 가르침이다. 그 한 순간에 깨치기도 하고, 평생의 화두가 되기도 한다.

도우(道雨) 스님은 그 당시를 떠올리며 "만약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주장자를 올리고 '법문을 하시오' 하였을 텐데…" 라고 책 서문에 적고 있다.

2005년 입적한 도우 스님은 청담 · 성철 스님을 모시고 수행했으며, 두 스님을 축으로 1948년 봉암사 결사가 본격화자 한국불교의 정신을 새롭게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이에 참여했다.

이 책은 도우 스님이 구전돼 오던 선사들의 이야기를 기록 또는 입으로 전한 것을 방남수 작가가 엮은 것이다. 재미도 교훈도 주는 것이 선 이야기다. 읽다보면 마치 이야기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인도, 중국, 한국, 일본 선사들과 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교해보는 것이다. 네 나라별로 구분해 각 나라의 선사들에 얽힌 이야기들이 전개돼 있어 선에 대한 역사와 사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명우 기자**

수행길에서 건져올린 시와 수필

적음 스님의 연작시와 아름다운 추억담들



가을밤의 춤
적음 스님
홍익21 | 1만2000원

이 세상을 살면서 가슴에 와 닿는 많은 느낌들은 시나 수필로 쓴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자신의 느낌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고 남에게 보다 감동적으로 그 느낌을 전할 수 있으니까. 하물며 고뇌의 근원을 깨부수는 수행의 과정에서 가슴 밑바닥을 채우는 느낌들을 기록하는 일이란 그 자체로 숭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적음 스님(봉화 일소암 주지)이 그런 느낌의 밑바닥을 시와 수필로 정제하여 <가을밤의 춤>으로 묶었다.

'古寺詩集'과 '유적' 등을 주제로 한 연작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10편으로 구성된 연작시 '고사시집'은 홍련암 간월암 등의 사찰을 묘사하고 있다. 단순한 풍경 묘사가 아니라 성불의 염원이 깃든 수행자와 도량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에서 어우러지는 경지를 탐구하고 있다. 쉬운 언어들로 깊은 수행의 내공을 표출하는 것이 적음 스님의 시가 갖는 맛이다. '유적' 역시 30편으로 구성된 대작이며 구도의 염원으로 자연과 삶의 근원을 포착하고 있다.

적음 스님의 산문들은 경쾌하다. 어릴 적 가난하게 자란 이야기에서 출가 이후의 기행(奇行)까지. 다양한 경험이 다양한 깨달음의 힘으로 발전하는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기림사로 동진 출가해 전국을 떠돌며 구도행각을 하다가 서라벌 예대 문창과에서 문학 수업을 한 적음 스님은 <소요집> <저녁에> 등의 시집과 <저문 날의 목판화> 등의 산문집을 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도자기 불상 조성 전문 기업 경 동 요

천불 · 삼천불 · 만불

불상크기 : 1자
재질 : 도자기(개금)



지장 보살님 | 관음 보살님 | 지장 보살님(여의주)

경동요는 삼보에 귀의 하는 마음으로 도자기 불상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경동요는 20여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대덕스님들 께서 원하시는 불사에 맞추어 불상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대표 천우경 합장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1리 329-1번지
● 전 화 : 031)638-4531 (주간)
031)637-8789 (야간)
● 휴대폰 : 011-765-4531

불상크기 : 7치
재질 : 도자기(개금)



석가모니부처님 | 지장 보살님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서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행자 모집

복(福)중에서 발심공덕이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에서는 출가하여
사홍서원의 원력을 세우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뜻과
미주포교에 원력을 가진 발심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1) 무량사 행자 자격
- 연령 15세 이상 55세 이하
-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미국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조계종 종법에 의거 승려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2) 연락 이메일 : muryangsa@empal.com

※ 무량사로 출가한 행자들은 미국의 정규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시인·승려·교사의 삶 "숭고하여라"

2월 4일 김달진 탄생 1백주년…5월에 심포지엄
9월 15~16일, 진해에서 '김달진문학제' 예정

불교적 철학사상이 녹아있는 시세계를 남긴 시인 월하(月下) 김달진(1907~1989)은 1907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다. 만일 그가 살아 있다면 올해 그의 생일인 2월 4일 1백세가 된다. 이에 김달진 선생의 생애와 불교적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행사가 전국에서 다채롭게 열린다.

2001년부터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를 열어온 대산문화재단과 민족문학작가회의는 김달진 선생과 더불어 탄생 100주년을 맞는 소설가 이효석(1907~1942), 시인 신석정(1907~1974) 등 10여명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심포지엄'을 5월 11일 서울 신문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탄생 1백주년을 맞는 각 시인들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문학가와 국문학자들이 발제자로 나와 시인들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조명하고 그들이 작품속에서 남긴 문학철학을 활발하게 토론한다.

또한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김달진문학제'도 9월 15~16일 양일간 경남 진해 김달진 문학관과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탄생 1백주년을 맞은 시인들중 시인이자 승려였으며, 한학의 대가이며 교사로 일생을 살아온 김달진에게 불자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계광보통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던 1929년 순수 문예지 '문예공론'지에 무애 양주동 선생의 추천으로 시, '잡영수곡'이 실리면서 등단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계광보통학교가 폐교되고, 민족 현실의 절망과 좌절의 끝자락에서 어느 날 밤 찢어진 벽지 사이, 초벌 신문지에 뚜렷이 보이는 <불(佛)>자를 발견한다. 빛으로 여는 세상이 그의 마음에 섬광처럼 빛났다. 그리고 그는 입산 수도 했다.

김달진은 '산거일기'에 자신의 입산 동기를 밝혔다.

"나는 원래 산을 좋아했다. 이것이 입산 동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으나, 스님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칼은 구렁이 같이 흉물스러운 내 자신의 집착성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나 싶다. 장삼을 입고 합장하였을 때, 내심의 정제에서 느껴지는 화평한 심정 – 이것은 높고 아름다운 덕인 양, 나를 황홀한 경지로 이끄는 듯하였다."

김달진은 1934년 봄, 금강산 유점사에서 김운악 주지스님을 은사로 하여 득도한다. 이듬해, 백용성 스님을 모시고 함양 백운산의 '화과원(華果院)'에 들어간 김달진은 반선반농의 수행생활을 하면서 용성 스님이 번역한 <화엄경>의 윤문에 온 마음을 다한다.


역경사업에 전념하던 김달진 시인의 40대 모습.

20여년간 불경 15만장 번역
'한국의 고승석덕'으로 추대


1987년 <현대한국선시> 발간 무렵의 김달진 시인.

30세 때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 문단생활을 하면서 1940년 9월 시집 '청시'를 낸다. 유점사로 돌아와 강론에 전념하다가 일본경찰을 눈속에 처박은 사건으로 유점사를 탈출, 용정에 잠시 머물러 있기도 했다.

1945년 광복 후 청년문학가협회 일을 하다가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대구, 진해로 내려온다. 1949년 6년제 진해중학교에 있으면서 교지 '탑' 창간호 권두시를 쓰기도 했다.

창원남중학교 교장 퇴임 후 고려대장경 번역 사업에 몰두하여 20여년간 200자 원고지 15만장 정도의 불경을 번역했다. 1983년 그는 불교정신문화원으로부터 '한국의 고승석덕'으로 추대된다.

1989년 6월 7일, 시인은 향년 82세를 일기로 세상살이의 한 갈피를 접었다. 작고 직후 간행된 <한국한시> 세 권이 민음사에서 나왔다. 세상을 달리 했지만, 그의 책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계속 발간되어 나왔다.

1990년부터 김달진 선생의 문학 정신과 뜻을 기려 '제1회 김달진문학상'이 제정되어 서정시인과 문학평론가들이 오늘날 문학의 순결함과 위대함을 지켜나가고 있다. 1991년 은관문화훈장이 추서됐다.

시인이기 이전에 금강산 유점사, 함양 백운산 등에 입산 수도한 스님이었던 김달진 선생은 60년대 이후 <한국고승시문집>을 비롯해 불경 번역 등 문서포교에 열정을 바쳤다. 또한 <법구경><붓다차리타><보조국사전서>, 원효의 <금강삼매경론>등 다수의 경전들을 번역해 많은 업적을 남긴 불교계 최고의 시인중 하나로 평가된다.

(사)경남시사랑문화인협의회 회장인 최동호 시인(고려대 교수)은 "그 어떤 것도 꾸미지 않는 무위자연적인 삶의 태도, 자유자재한 세계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김달진 시가 지닌 맑고 깨끗한 불교적인 철학 세계는 탄생 1백주년을 맞아 더욱 새롭게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고 평 했다.

이성모 김달진문학관장은 "김달진 문학제는 무용공연, 시낭송페스티벌, 문학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부터 규모가 커져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지역 문학제로 자리잡았다"며 "올해는 탄생 1백주년을 기념해 지역민들은 물론 전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경남시사랑문화인협의회와 기획하고 있는 중"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20여 명의 제자들과 호남 예술 진수 선봬

이매방 선생 팔순 기념공연


격조있는 정중동의 움직임을 선사하는 이매방의 살풀이춤.

한국 전통무용의 대가 이매방 선생(80 ·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의 팔순 기념 공연이 마련된다. 1월 25일 저녁 7시 30분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이매방 춤보존회(회장 임이조)가 주최하는 '무선(舞仙) · 님께 드리는 헌무(獻舞)'가 바로 그것.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 무용사에 한 획을 그은 이매방 선생의 춤 인생을 집약한 무대여서 격조 있고 신명나는 한국춤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매방 선생이 보유한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와 97호 살풀이춤을 비롯해 직접 창작한 검무, 기원무, 초립동 등 9개 레퍼토리가 2시간에 걸쳐 펼쳐진다.

2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서
살풀이춤 등 9개 레퍼토리

출연자들도 이름만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질 명인들이 총출동한다. 임이조 이매방 춤보존회 회장을 비롯해 최창덕 이매방 춤 전수관장, 전수교육 조교 김명자 김정녀 김묘선을 비롯해 오은명 황순임 박소림 김효분 등 제자 20여 명이 총출연해 호남 예술의 진수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승무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춤이다. 장관을 이루는 북가락, 세찬 장삼놀음, 빼어난 발디딤새의 춤으로 우리나라 민속춤의 정수라 할 만큼 품위와 격조가 높다. 승무와 더불어 이매방 춤의 대명사인 살풀이춤은 한과 신명을 동시에 지닌 신비한 느낌을 주는 춤으로, 정적미의 단아한 멋과 정과 한이 서린 비장미를 함께 갖추고 있다. (02)704-6420,

김주일 기자

지장보살 공덕 음성공양

수원포교당 창작 국악교성곡 연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의미 국악교성곡으로 되새기세요.'

'부처님 되신 날'인 성도절을 맞아 부처님의 깨달은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수원포교당 주지스님 취임 2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불밭에 피는 꽃, 찬! 지장보살'이 1월 25일 오후 7시 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 3 · 4층 만불보전에서 봉행된다.

이날 공연에서는 민족음악관현악단 오느름과 수원포교당 합창단, 솔리스트로는 국립창극단의 프리마돈나 소리꾼 박애리씨를 비롯해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인 바리톤 유훈석씨가 출연해 창작 국악교성곡 '불밭에 피는 꽃'을 연주한다.

'불밭에 피는 꽃'은 <지장보살본원경> 전체를 그대로 교성곡으로 꾸미되, 장황한 지문이나 여러번 반복되는 내용 그리고 즐즐이 열거한 명칭같은 것은 간략하게 요점만을 간추려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일반 대중들도 이해하기 쉽게 지었다.

수원포교당 합창단 지휘자 김회경씨가 작곡한 '불밭에 피는꽃'에서는 지장보살이 전생에 죄를 짓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는 과정과 지옥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자비심을 내는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이 곡은 연주시간만도 두시간이 넘는 대곡으로 이날 음악회에서는 장엄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 무료다. (031)245-9670 김주일 기자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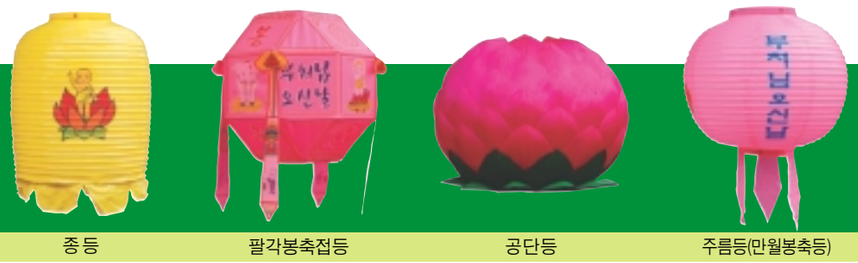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연등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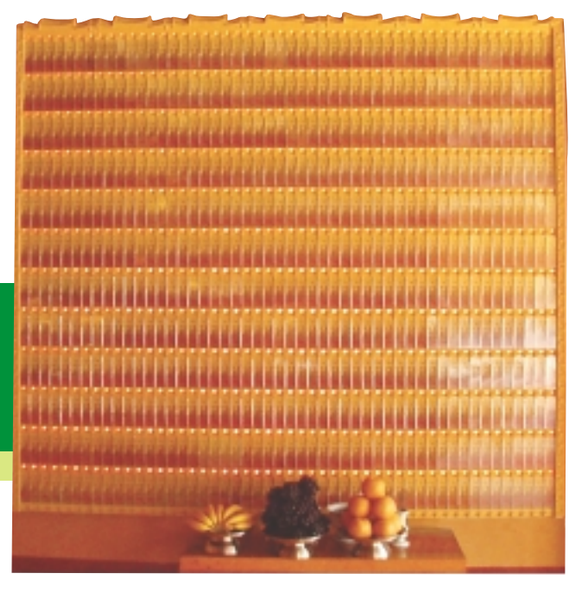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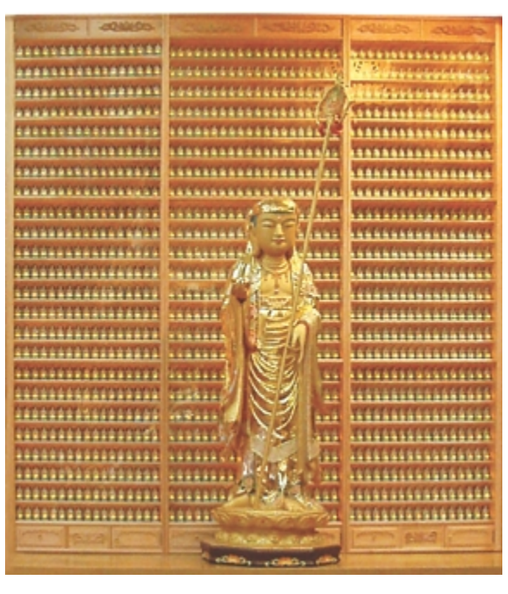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단등 | 주름등(만월봉축등)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재물·복 많다구요? 끼·재능 더 많아요

◇1935년생(73세)

연예인은 아니지만 스타만큼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패션디자이너 **앙드레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경상북도와 캄보디아가 공동 개최한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참가해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높은 패션 수준을 선보여 호평받았다.

올해도 국내는 물론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등지에서 패션쇼를 기획하고 있다.

◇1959년생(49세)

"59년 돼지띠는 386세대와 58년 개띠 사이에 끼인 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태어난 해로는 회자되지 못했지만 알고 보면 '끼'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원한 호랑나비 불자가수회장 **김흥국**

앙드레김 해외공연 빽빽
김흥국 돼지띠 봉사단 계획

씨는 이렇게 말하며 껄껄 웃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다. 바로 앞 해인 '58년 개띠'의 어감이 일반인들에게 너무 강해 상대적 박탈감(?)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올해는 저의 해이니만큼 방송이외에도 의미있는 일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0월경 왕십리 근처 한양대에서 전국의 59년 돼지띠 불자들과 함께 봉사단을 조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는 김씨는 가수들의 친목 도모와 스포츠를 통한 대중과의 교류를 위해 (사)대한가수협회 축구단도 1월 21일 창단해 단장을 맡고 있다.

현재 TBS 교통방송에서 'Wow! 김흥국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김씨는 불자가수회장으로서 올 하반기경 해외공연도 계획해 불자들의 해외 불음포교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며, 불자가수회 법인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1971년생(37세)

요즘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가장 최정점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들이 모두 여기에 모여 있다.

새해초부터 차기작을 신중하게 고르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산소같은 여자' 영화배우 **이영애**씨. 이씨는 2005년 8월 충남 마곡사에서 일본 방송과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1박2일 동안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올해도 새작품에 들어가기전 어머니와 인연이 깊은 사찰을 다녀올 예정이다.

"드라마 '대장금' 촬영전에도 마음을 가다듬고 새 드라마에 집중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부산 삼광사를 다녀온 적이 있다"며 "그때부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사찰에 다녀오는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평소 만자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며 불자임을 당당히 밝히는 가수겸 배우 **김민종**씨도 돼지띠다. 김씨는 "소속사를 새롭게 옮겼으니 앞으로는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영화에도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새해를 맞아 불심이 깊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사찰이라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지난해 1여년 만에 케이블 드라마 '하이에나'를 통해 인기를 재확인 시켰던 김씨에게 영화는 올해의 화두다.

대한불자가수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김씨는 평소 어머니가 자주 다니는 능인선원에서 신행생활을 하고, 지방 촬영이 있을 때마다 근처 사찰을 꼭 찾는다. 특히 김씨에게 불교는 2년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큰 의지처가 됐다.

얼마전 종영된 MBC드라마 '여우야 뭐하니'에서 파격적인 변신에 성공하며 연예계에 화려하게 복귀한 **고현정** 씨도 2007년 드라마, 영화, CF에서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한동안 광고로밖에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배우 **이미연**은 올해초 영화 '어깨 너머의 연인'의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SBS-TV 드라마 '사랑에 미치다'로 2월부터 안방 시청자들을 찾는다. 여기에 한류의 원조인 가수 겸 배우 **안재욱**과 컬트 삼총사로 활동하다 뮤지컬계에 뛰어들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정성한** 씨 등도 동갑내기 들이다. 이들 모두 자기 자리에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있는 불자연예인들이다.

이영애 안재욱 고현정 등
최정점 인기 이름값 톡톡

◇1983년생(25세)

두려울 게 없는 나이다. 저마다 가능성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하나같이 올한해 주목할 만한 재목들이다.

얼마전 댄스그룹 '쥬얼리'에서 탈퇴, 연기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지현** 씨. 이씨는 현재 MBC 인기프로그램 '행복주식회사-만원의 행복'을 진행하는 등 왕성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다. '클릭비' 기타리스트 출신으로 '나의 자유' '아니벌써' 등의 히트곡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가수 **노민혁** 씨도 활발한 활동이 주목되는 기대주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김흥국 이영애 안재욱



고현정 김민종 이지현

정해년 뛰는 돼지띠 불자 연예인들

2007년 정해년(丁亥年)이다. 올해는 600년만에 한번 돌아온다는 '황금돼지해'로 알려져 재물과 복을 많이 가져다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예로부터 '돼지는 무엇이든 잘 먹는다' 해서 돼지띠는 먹을 복이 있다고 했다. 또한 돼지는 다산의 상징으로 복중의 복인 자손 번창을 뜻한다고도 했다. 돼지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봐도 돼지는 여러가지로 우리에게 길한 동물인 듯하다.

돼지의 해를 맞아 특히 돼지띠 불자 연예인들을 출생 연도별로 살펴봤다. 이들이 2007년 더욱 큰 활약을 펼치게 될지 주목해보자.



interview

사찰음식 강좌 여는 **정산** 스님

"정신 훼손하지 않고 현대적 음식 개발해야"

동산불교대서 사찰음식 강의
1년 과정으로 이론·실습 병행
전문가 양성 위한 아카데미 계획

사찰음식연구가 정산 스님. 아직은 사찰음식전문점 '산촌(山村)' 대표 '김연식'이라는 속명으로 더 알려져 있는 정산 스님이 올 한해 사찰음식 전문가 양성에 발 벗고 나선다. 지난 20여 년간 '산촌'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유명한 음식점으로 키웠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 첫 걸음으로 올해 3월 개강하는 동산불교대학의 사찰음식학과 강의를 맡았다. 그동안 개인 연구소 등에서는 사찰음식 강의가 열려 왔지만 교양대학 내에 정식 교과목으로 강좌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과정 1년과 연수과정으로 이뤄지는 강좌에서는 이론체계 정립과 실습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스님은 '사찰음식 아카데미(가칭)'를 개설해 심도 깊은 강좌를 마련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사찰음식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법인체를 구성해 공간을 확보하고, 커리큘럼을 체계화해 나가기 위해서다.

"우리의 전통적인 사찰음식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대중의 무관심으로 인해 점차 사라지거나 왜곡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사찰마다 전래되는 고유의 음식을 찾아내고 기록해야 합니다."

정산 스님은 열다섯 살 되던 해인 1961년 범어사로 출가했다. 음식 만드는 일에 유독 흥미를 가졌던 스님은 사찰음식이란 존재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인 70년대 초반부터 사찰음식에 주목했다.

전국의 유명 사찰을 찾아다니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오던 '공양간 손맛'을 배웠고, 사찰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겼다.

이후 일간지와 잡지 기고를 통해 사찰음식을 알려 나가던 스님은, 80년대부터 서울 인사동에 사찰음식 전문점을 열고 이를 운영하는 데만 전력을 쏟았다.

'스님이 왜 음식에만 관심을 가지냐'는 비난과 '사찰음식 연구에 예산을 쓸 수는 없다'는 종단의 무관심에도 더 이상 얽매이기 싫었다.

그렇게 26년이 흘쩍 흘렀다. 그 사이 '산촌'은 수많은 국내 언론은 물론 <뉴욕타임즈>에 '한국의 우수 레스토랑'으로 소개될 만큼 세계적인 음식점으로 성장했다.

스님 역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비록 승적이 바뀌고 가사 색깔도 달라졌지만, 스님은 "그것은 그저 행정서류상의 변화일 뿐 나의 사찰음식에 대한 애정만큼은 변함없다"고 말한다.

"사찰음식에 대한 사회와 종단의 관심이 높은 지금이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스님은 "사찰음식의 원형을 되찾고 보존하는 한편 사찰음식에 담긴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춰 다양한 음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산 스님은 본지에 격주로 사찰음식에 관한 원고 '사찰음식의 모든 것'을 연재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의 꽃을 피우기 위한 햇빛과 물과 대지의 자양분과도 같은 말과 글들!

가는 곳마다 主人이 되라

깜빡깜빡 "내 안의 빛"을 잊고 사는 이들에게 경종이 되어줄 만한 예화 중심의 수필에서부터,현대물리학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우주의 실체와 자연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이 책의 구석구석에 배치된 "달을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들"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 되어 누리는 자유의 삶을 촉구한다.

우주의 첫번째 부처님이신 비파시 부처님에서부터 서른세 번째 조사 스님이신 혜능 대사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를 구성하는 본원의 위대한 힘과 계합하여 자유인이 된 이들이 부른 "깨달음의 노래"는, 구도의 길에 나선 우리 모두를 크게 일깨우는 "살아 있는 할이요 방"이 되어줄 것이다.

흥교스님 지음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A5/양장본/374쪽/값15,000원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빛깔 저 소리에 끄달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입맛에만 맞추려 한다면
그대 자신의 삶은 어느 세월에 구가할 것인가
이제는 그대 자신의 주인이 되라.

– 흥교스님 –



흥교(興敎)스님

범어사 하동산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신 이후, 상원사, 범어사, 칠불사, 만덕사, 벽송사 등에서 14안거를 성만하셨으며 범어사, 대각사, 성주사 주지를 역임하셨다.
조계종 제 5,6,8,9대 중앙종회의원에 피선되셨으며 현재는 선찰대본사 범어사 전계대화상, 학교법인 원효학원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이사장,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이시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시고, 조계종 종정상광 총무원장상을 수상하셨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현대불교신문사 Tel : 02)737-0695 , 02)2004-8246 / Fax:02)737-0696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 1Box(9×4.4) 8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 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영어도 배우고 해외 포교에 뜻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스님)
경남 불교대학 세원사
055)221-7730
016-428-6665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경전 · 명리 주역
학인무료강좌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51)557-6682(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빨빡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문의 (02)2631-2205,1305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40 ~ 50세)
051)542-4848
011-551-1719

부전스님 모십니다
(55세 이하)
011-285-5737

청정한 나반도량 입니다. 천일 기도 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침식가능하고 신심있는 보살님(55세 이하)
경리보살님 모십니다
PC가능자,침식가능,45세이하,
불심있는 보살님
▷경주 왕룡사원
017-531-7770

평생 같이하실 기도스님 모십니다
051)242-1684
016-9730-3003

부전스님 필요한곳 연락바랍니다
(비구스님)
010-9188-8544

공양주 모십니다
50대초
▷서울사찰
011-758-0286

사찰운영 맡기실 분
역학침술
▷비구승
010-9386-2323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기 포천
011-9491-9227

가족 같이 함께하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팔공산 구화사)
010-9421-9364

한가족처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011-9994-8127

부전자리 찾습니다
010-4586-8763

참신한 비구나 비구니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011-828-3618

부산시내 사찰,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무료로 수양할 불자님도 모십니다
011-584-3535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함께할 인연 찾고자 합니다
(만50세 불자 男)
017-401-2023

염불잘하는 비구입니다
大 사찰에서 천일기도 하고 싶습니다
010-2324-1901

사찰 암자,포교당 창건하시는 스님안내
법당불사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큰 법당에 모셔야할분 후불탱, 부처님을 모셔야 하는데 막상 조성을 하자니 날짜도 없고 금전으로 고민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은 대웅전에 모실분 후불목탱순금, 칠성목탱순금, 신중목탱순금, 부처님좌대 포함 4자3치 삼신불 기타 전체를 스님해외 사정상 절반도 안되는 가격 인연바람.
대작품 가능성이 있는분만 답사
010-6411-2882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氣중국기공훈련반
중화양생익지공
모든 중생제도 최고의 지도자 양성
천수, 천안, 팔만사천 법문 인체속에있다.
경락주천, 소주천, 대주천, 단도주천, 천, 지, 인 완성지도함
전화 : 전남 순천 061)741-3053,016-632-0345
전남 광주 062)376-3053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28숙과 풍수와 사주를 배우는 대로 바로 쓸 수 있도록 개인지도 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노인전문요양병원 스님 및 불자모심
최고시설을 갖춘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부설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스님 및 불자를 모십니다.(완전무료)
◆ 대상 :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중증의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인 노인과 스님
◆ 문의 : 053)471-0991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4월 3일(화), 4월 5일(목) – 주간반, 4월 5일(목)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행자모집 (총무스님) 문의 : 011-9852-0075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054)452-6636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촛불잘밝히는방법 ★ 장사〔사업〕잘하는방법 ★ 결혼인연
행복을찾아무엇이든물어보세요
왕따 소외감 비만 스트레스 악몽 변비 알콜중독 부부갈등 난폭한성격 원한관계 우울증 심근경색 코고는사람
불공 생일 이사 개업 묘지이장 방생 입학 시험합격 기타
업장소멸
우리말대불정 천수경 능엄신주 영가천도 · 삼재 약사여래경 지장경
직장인을 위한기도 ★ 가족이함께기도
해석 알고 싶은분 능엄신주 액자 있음 테이프 활용
소년 · 소녀가장 독거노인돕기 · 남을위한기도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자녀 탈선 예방
대학입시기도
사법 · 행정 · 취업
물어보세요 011-817-5496 010-7377-9446 019-434-0878 017-520-7546 010-2331-0354 016-787-3977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철야기도 100일 기도
서울 · 부산 대구 · 마산

(재)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종 정 : 각 암 대종사
•부종정 : 혜 산 •중앙종회의장 : 정 관
•총무원장 : 능 인 •총무부원장 : 법 진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고차원세계의 과학
- 그리고 레이키 -
1.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박희준 회장이 새로이 개설한 홈페이지「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혹은「www.spiritualism.co.kr」의 회원이 되시면 고차원세계의 실상을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접근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의 참 모습을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회원이 되십시오. 앞으로 계속 기사를 실을 것입니다.
2. 동서양식 레이키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5만원
단체교육은 매월 1회 토,일요일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개인교육은 날짜와 시간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키는 에너지 요법 즉 氣치료법의 총아입니다.
레이키는 교육만 받으면 그날부터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저(박희준)는 1997년 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키 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3. 카루나 레이키
교육비 30만원, 교육기간 1일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음파 에너지를 환부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 박희준 회장 약력
20여년간 건강분야, 불교분야, 정신세계분야의 저술가, 번역가로 활동하여 10여권의 저서와 1백여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Spiritualism, 윤회전생, 초능력 문제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던 끝에 그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www.spiritualism.co.kr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신중참회 지장기도 도량
불가사의
◆ 낙태로 인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 병명없는 고통은 문제가 있습니다.
◆ 천도는 마음에 따라 기도성취가 다릅니다.
◆ 구병시식은 중요한 기도입니다.
◆ 참회기도는 모든 일이 가능케 합니다.
해원사 매월 기도일정
● 매월 둘째주 토요일 밤 9시 – 새벽 4시까지(철야기도)
● 매주 토요일 오후2시 경전강좌 (법화경,유식학)
● 매월 초하루, 18일(지장기도) 법회
● 신중참회기도(360일), 100일 기도정진(다라니)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해원사 031)736-3734
네이버 홈페이지 : www.haewonsa.or.kr
야후, 다음 검색창에 해원사 치세요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 ● 법당: 170평 ● 요사: 100평 ● 부지: 3500 외 2000평 ● 가액: 65억
● 위치: 대전 ● 법당: 30평(조립식) ● 요사: 60평 ● 부지: 700평 ● 가액: 10억
● 위치: 김해 ● 법당: 19평 ● 요사: 40평 ● 부지: 150평 ● 가액: 2억7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IC 3분거리
● 임법당4칸, 접집, 방3개 주지실 따로, 정원완벽, 마당잔디, 비품입체
● 가액: 6천만원
011-9801-343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해면 소재지
● 대지 75평, 임법당 30평, 방2칸, 창고, 텃밭
● 스님오셔서 불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넓힐수도 있음
● 명사십리 명곡해수욕장 근접, 바다방생지 5분거리
● 가액 : 6천 5백만원
016-677-7935

사 찰 안 내
● 위치: 순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243평
● 건물 25평, 요사채 20평
● 가액: 2억 5천만원(절충가능)
주차가능 , 꼭 하실분 전화요망
스님건강관계로 급 양도코져함
017-875-671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통일로변
● 대지 125평, 법당 30평
● 옥불, 삼존불
● 1층 단독 요사채 30평 사무실 10평, 방3개
● 가액 : 3억 9천, 절충가능 (은행융자6천5백)
017-232-3389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370평산속 ● 법당: 20평 한옥 ● 요사: 30평 한옥 ● 가액: 2억 7천만원
● 위치: 서울 ● 부지: 만평 ● 법당: 27평 ● 요사: 35평 ● 가액: 12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중심가 주위 상가 및 아파트 어시장,구립시장,창동, 번화가 도로변
● 대지 28평 건평 1,2층 56평 현대식 건물 정면 자연석돌 원기둥, 기와
● 1층 - 주지실, 부엌, 화장실, 공양실
● 2층 - 법당, 전불도량완비, 순금태 조성
● 산신각 영가법당 외 별도 조성 단청필 새건물 3년 지났음
● 본점크 불사로 이해 사정상 급매
● 가액 : 2억 5천만원. 시설비 : 인견후 조정함
055)243-2315(주지실 직통)

토 굴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고령
● 평수: 153평
● 건물: 법당 12평 요사채 20평
● 가액:3천7백만원
018-541-189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합천 진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 산신각, 용왕당 있음
● 요사3채(총 70평)
● 가액: 2억 2천만원
055)934-1719
011-9571-1710

천하제일 명당 그림같은 대 도량처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속에 연화봉들이 즐비하고 갓바위 부처님이 보이시며 어우러진 노승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대구공항 10분, 갓바위 가는 길목
● 755평 급매 6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부산근교)
● 경남 양산 120평-2억 3천
● 부산 철마100평-2억 2천
● 경남 김해 2000평-5억 5억
● 부산 120평-3억5천
● 부산 250평-8억
● 부산 280평-10억
011-855-6699 (남문)

토 굴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90평(90평은 텃밭으로 사용중)
● 방4개, 후원, 창고, 화장실
● 가액 4,000만원(가격절충가능)
010-6401-4939
010-5631-8439

도심속의 아담한 암자
● 위치 : 부산시내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8천3백만원
010-7777-8575
평생 같이 할 도반스님을 모십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 평수 : 2,3층 각 30평
● 2층 - 요사, 큰방, 사무실, 부엌, 작은방.
3층 - 법당, 삼존불, 탱화, 지장단, 산신각, 각불탱화.
● 가액 : 2천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3167-1774
032)662-177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에서 5분거리
● 부지: 550평
● 법당: 20평, 관음전 6평
● 산신각 4평, 요사채 30평(단청필)
● 특징: 심야전기 보일러 , 노송이 어울려져 있는 아름다운 신축 법당(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함)
● 가액:1억 9천 5백만원(절충가능)
010-6727-8890

사 찰 안 내
〈사 찰〉
● 부산시내 바다전망 좋은 절
● 전통기와(포)법당 25평
● 120년 역사
● 요사 2동
● 가액:4억
〈사 찰〉
● 건물 3동, 부지:3만 3천평 (관리지역 7천평)
● 위치:삼랑진
★산세 좋고 물 좋은 정남향터 120년 역사
● 가액:4억
※ 부산시내 암자 사찰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산 연산부동산 직011)560-8522 051)863-6661

사찰안내(전세)
● 위치: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 법당:30평 ● 요사:15평
● 가액:보증금 4000만원 (월30만원)
● 특징:숲과 계곡이 있는 도심사찰임. 단청, 임법당

사찰안내
● 위치:경북 고령
● 부지:약1000평(종교용지)
● 법당:30평(목조, 단청)
● 요사:80평
● 산신각:5평(목조,단청)
● 기타:석불, 석등, 연못
● 가액:4억원
● 특징:불사비가 10억이상 투입된 도심인근의 조용한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천하제일 명당 칠갑산을 바라보고 70년전 모신 암벽밑에 부처님이 허공에 웅립하시고 노송이 주위를 가득 채우고 공주 신도시 15분 거리, 칠갑산 가는 길목에 암자.
● 대지 212평 (100평 사찰 부지)
● 법당 25평, 요사채 25평,
● 주차장 완비, 급매 1억2천
대원불사 (한국 사찰 컨설팅)
연락처 02)454-3369
H.P 011-775-8709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암 자 (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임금산 밑 음부혈 명당터
● 평수: 600평
● 가액: 3천 5백만원
010-3189-3525
055)573-7832

사 찰 터 안 내
● 위치:경북 구미시 도개면
● 임야:3350평
● 도로변에서 가까운 사찰 (정자) 별장, 묘터 명당자리
● 평당가 1만원
054)471-3997
011-513-931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평수 : 208평
● 법당(목조건물)1동, 산신각1동, 한옥 황토방1동 요사채 30평, 신건물, 욕실완비, 지하수, 연못있음 사찰앞 큰 저수지 있음
011-575-0396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근방
● 대지: 약 500평
● 대웅전: 20평,산신각: 15평
● 요사: 50평
● 가격절충
011-9516-536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6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 대지 92평 정남향
● 방大3 욕실2개 부엌1개
● 금액 : 4천 2백만원
016-671-1568

포교당안내
● 위치 : 은평구 6호선 새절역
● 35평, 법당:방2개,주방, 욕실,베란다 (동)삼존불, 조각단, 단집, 내부단청 후불,신중,칠성,지장탱화,종,영단 (집기일체, 도시가스난방, 큰 재래시장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철폭가능(시철환비)
011-685-8484
02)376-8182
[명리육효지도] 적천수천미, 원서강의
010-6282-9986

포 교 당 안 내
● 위치:대구시 중구 대구역 및 번개시장앞
● 4층 약20평.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등, 시설완비
● 보증금 없음. 1년 선세 240만원 시설비 200만원
철학 하시는 분 최적지
010-8200-2055
011-273-4162

포교당(급)안내
● 위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부근 주택가 상가 3층 전관
● 삼존불, 지장불, 산신각, 지장전, 범종, 관음보살 300불
● 평수:약40평 방2개,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5000만원(절충가능)
● 15년째 운영하는곳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0-3016-616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관악구청
● 5층건물의 2층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10-8675-5858

명 당 터 를 보 입 니 다
● 면적 : 13350평(임) 西向
● 위치 : 경남 고성 IC인접(대전-통영 고속도로)
● 형태 : 陰處로 나무 숲이 꼭대기까지 좋음
● 용도 : 관리지역인 만큼 길, 집등 20%까지 사용
● 기대 : 나뭇잎처럼 생긴 만큼 비구니 스님이나 통큰 여자분께서 잘 활용 했으면 좋겠음
● 가격 : 평당 2만원 이상이나 절충하겠음
● 길은 아직 미비나 290평 사면 해결(坪 10만원 入口) 간벌함으로 지금 재목 선별해서 사용가능
연락처 010-2245-4862

포교원안내
신축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650만원
● 특징: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철학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 최고 위치
017-297-4097
043)211-0579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대지 : 200평
● 임야 : 3775평 (관리지역)
● 지방도로 150m 인접
● 가액 : 1억 3천만원
054)862-3996
011-9330-2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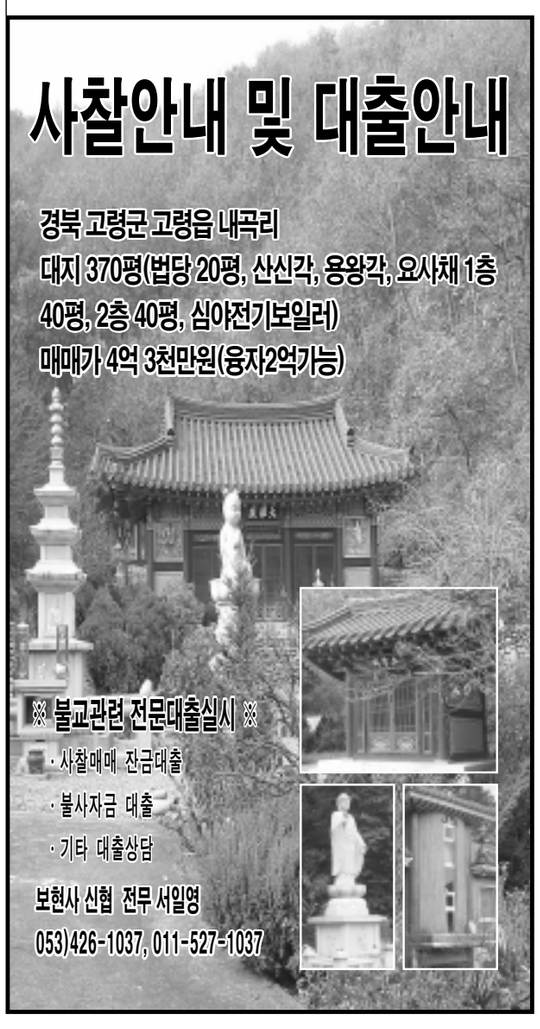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모라동
● 건물 4층 4층, 평수45평,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998-4597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 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 120평
● 1층 슬라브, 2층법당 24평 요사채 1층, 산신각 1동
● 가액: 8500만원
011-544-9777

사찰안내(전세)
● 위치 : 부산 금정산 온천장부근
● 대지 1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및 공양간 방 9개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35만
010-4573-2800
051)557-437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없음
019-656-2766

조 용 한 귀 (임 법 당)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일제 비품 포함
● 대지:62평(평 300만)법당 32평 방2 小2 입구방 4평(다락4평) 공양간 12평 (포장)방문 후 결정(부산 금정마을)
● 가액 : 2억 1천만원(융 6500만 포함)
011-842-6123 (주지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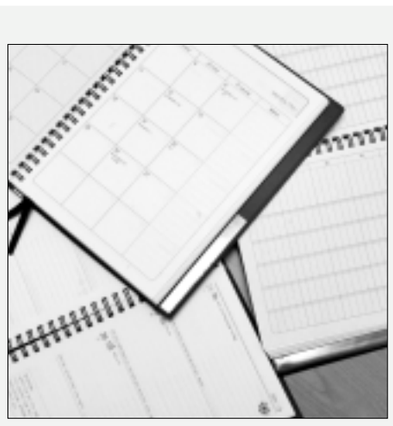




다이어리, 이렇게 고르고 쓰세요

'다이어리(diary)' 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소녀적 감수성' 을 떠올리거나 '직장인들의 전유물' 이라고만 여기신다면, 서점에 한 번 나가보세요. 올해 출시된 다이어리 종류만도 250여 종이나 되고, 판매액도 4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새해 첫 달에 한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꼼꼼히 적어둘 다이어리를 구입하는 일이 새삼스럽지는 않지요. 문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느냐 일 것입니다. 다이어리 구입과 작성 요령을 한번 살펴볼까요?

꼼꼼하게 적고 알차게 실천하라!





서울북부도로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 김정흠(53 · 법명 수선) 과장은 5년간 '신행 다이어리' 를 써 오고 있다. 그에게 다이어리는 불교 공부를 돕는 도반이다. 각종 신행다이어리들(사진 위).

▷ 어떤 다이어리가 있을까

최근 몇 년 사이 다이어리 시장에 '열풍' 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직장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다이어리' 와 청소년 · 여성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다이어리' 다.

'플랭클린 플래너' 로 대표되는 기능성 다이어리는 자기계발에 중점을 두고 시간과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매일, 매주 단위로 업무와 계획, 우선순위와 처리 현황을 적어두고 실천하다보면 허투로 쓰는 시간이 줄어든다.

캐릭터 다이어리는 인기 있는 카툰이나 일러스트를 활용해 미적 요소를 강조했다. 친근한 이미지 때문에 자주 꺼내 보게 되고, 그만큼 다이어리 작성에도 공을 들이게 된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시판되는 캐릭터 다이어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간 핸드메이드(수공예) 다이어리도 있다. 크기는 물론 표지 디자인, 속지 내용 등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수험생이나 고시 ·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스터디 플래너' 도 있다. 지혜경영연구소(대표 손기원)가 출시한 '스터디 플래너' 는 수능 · 취업 ·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주, 한달, 6개월 등 주기에 따라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스스로 공부할 내용과 계획을 적어 평가하다보면 학습 목표가 명확해져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불자들에게는 '신행수첩' 과 '불자 다이어리' 가 있다. 신행수첩은 매일 자신의 신행을 기록하고 마음에 새길만한 법구나 법문을 정리해 두고 틈틈이 읽어보며 신심을 다지도록 도와준다. '불자 다이어리' 는 음력과 간지(干支), 예불문 등이 적혀 있을 뿐 아니라 불교 각 종단과 단체 등의 주소와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다.

이 밖에도 보험 · 주식 등 금융상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테크 다이어리' 나 인맥 관리에 효과적인 '셀프코칭 파트너', 가정 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계부 다이어리' 등 아이디어 상품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 내게 맞는 다이어리는

수많은 다이어리 중에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 우선 다이어리 작성 목적이 업무 관리인지, 학업 관리인지 혹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서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리는 겉표지뿐 아니라 속지나 구성 등도 살펴볼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한다.

다이어리를 거의 사용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월간 다이어리가 적합하다. 달력처럼 한 달간의 일정을 날짜별로 적어두고 관리하기에 적합하다. 주간 스케줄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왼쪽 페이지에는 주간 스케줄 기입란이, 오른쪽에는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좋다. 좀 더 세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면 한 주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서, 매일의 목표치를 적어둘 수 있는 것을 고른다.

빡빡한 일정을 관리하기보다 자신의 신행생활과 매일 매일 공부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라면 일간 스케줄 다이어리나 메모지를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것을 추천한다.

▷ 목표 설정 · 점검 · 계획 분명하게

다이어리를 작성하기에 앞서 한해 계획을 세워본다. 한 달, 한해 혹은 수년에 걸쳐 추진해야 할 목표가 있는지 점검해 본 뒤 올해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기록해 둔다.

다이어리 제일 앞장에 '매일 108배 하기' '마라톤 완주' '5kg 감량' 등 1년간 추진해야 할 목표를 적는다. 월간 스케줄에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할 일들을 열두 달로 나누어 적어둔다. '이 달에 읽어야 할 불서' '이 달에 실천해야 할 가르침' '고쳐야 할 습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신행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매달 말일에는 그달의 목표치를 이루었는지 점검하고 다음 달 계획에 반영한다.

주간 스케줄이나 매일의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목표나 일과에 우선순위를 매겨둔다.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번호나 ABC로 등급을 매겨두면 순서를 헷갈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일을 끝내고 난 뒤에는 처리 결과를 표시해 두어 다음 날 업무를 계획하는 데 참고한다.

새로운 정보를 수집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다이어리 메모장에 빼놓지 않고 기록한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는 말이 있다.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금방 잊어먹고 만다. 컬러 펜이나 인덱스 등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일년간 꼼꼼히 작성한 다이어리는 한해 자신의 신행과 살림을 보여주는 '역사' 가 될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목적 정하고 속지까지 살펴야
불자라면 신행수첩 이용할 만
불교공부 위해 메모지 활용 '효과'
항상 기록하는 습관은 필수적

인류 문화속의 茶

21. 근대(近代)의 차(茶)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과 한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로 대략 한족이 93.3%를, 소수민족이 6.7%를 차지한다. 소수민족은 진시황 이래 중국의 통일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청(淸)을 건국한 만주족 역시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 한족을 관리로 등용하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한족 문인들은 반청(反淸) 운동을 활발히 벌였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풍류문사(風流文士)로 나날을 보내며 그들이 지향했던 넓은 포부와 이상을 잃어버렸다.

이 시기의 차인(茶人)들은 소극적인 이들의 정서를 변호하였으며 "차(茶)는 곧 도(道)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차를 대하는 태도는 세속적 관심을 추구하지 않고 경쟁을 하지도 않았으며 국사에 참여하기를 싫어한 차인들의 정서를 반영한다. 차를 마실 때에도 차에 대한 관점이 일치하기를 원치 않고, 자기의 뜻과 상대의 뜻이 합일(合一)되기 위해 언쟁을 벌이지 않았다. 차는 사람이 적을수록 마시기 좋다하여 혼자서 마시면서 신(神)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차를 대자연에서 찾기보다는 차(茶)를 도(道)로서 자신의 내면에서 찾기를 원한 것이다. 차를 직접 우려 마시기를 즐겨하여 달이는 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다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양한 차 도구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며 다예(茶藝)발전을 가져왔다. 의흥(宜興)의 자사호는 인기가 있어 아주 비싸게 팔렸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좋은 물을 찾아서 물을 관(罐, 항아리)에 담아 장거리로 운반했으며,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다. 전문적으로 운수조직을 만들어 물을 조달하기도 했다. 양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미리 주문을 받아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고 배달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당 · 송 이래 문인이 주도한 차 문화는 대중과의 실생활 속에서 떠나있었지만 대중 속 깊이 일상화된 차는 그들의 잡극에서 항상 말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면 7가지 일이 있다. 이 일은 땔감, 쌀, 기름, 소금, 장, 초, 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은 집에서 차관에서, 거리에서, 회의실에서, 언제 어디서나 차를 마시는 일이 일상화 되었다.

근대이후 외부의 침략으로 뜻있는 지식인들은 차사(茶事)에 대한 마음 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뜻을 펼치기를 원했다. 표면상 중국의 전통적 다예, 다도는 점점 쇠퇴하여 전통을 잃는데 이르렀으나 우수한 전통문화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차 문화는 대중 속 깊이 침잠(沈潛)되었다. 중국의 차 문화는 일상생활에 합해졌으며 계속적으로 국가 경제와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중속 뿌리 내리며 경제 · 정치에 영향
영국, 아편 팔아 은자 확보 후 차 수입



청(淸)대의 찻잎가게.

일찍이 이루어진 영국과의 차 무역에서 영국은 차 수입을 위해 은(銀)을 지불하였다. 많은 양의 차를 수입하기 위해 밀무역으로 중국인에게 아편을 팔아 은자를 확보하였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은으로 중국으로부터 차를 구입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전역에 아편이 퍼져 빈민층에서 지주에 이르기까지 아편 중독으로 사회는 혼란스러워졌다. 또한 은 부족으로 국민은 세금을 내지 못하여 국가 재정이 궁핍해져, 정치 · 사회 · 경제적으로 위기에 이르러 아편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는 1839년 중국과 영국의 아편전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며, 결국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내놓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중국인은 아편과 차를 바꾸어 먹은 셈이 되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일시불은 135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일체의 대립 초월해 대자유에 들어가 보라

불화 속의 명장면 (21)

中 돈황 벽화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의 법담 (하)



그림1 : 문수보살(왼쪽)과 유마거사(오른쪽)의 대담 장면(중국 당대 돈황 막고굴 제103굴)

형식 · 체계 넘어서 중생 구제라는 대승불교 핵심 표현
中 · 韓 · 日서 벽화 · 조각 등으로 '불이법문' 장면 묘사
물질에 찌든 현대인에게도 성불의 길 있다는 것 일깨워





그림2 : 유마거사(왼쪽)와 문수보살상(오른쪽), 석굴암 통일신라 시대

유마거사에게 병이 났다고 합니다. 병이 났다는 것은 나와 우주와의 조화가 깨졌다는 신호.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이니, 자연스레 흘러야할 몸의 또는 정신의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나와 자연과의, 나와 법신과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청정했던 자아(佛性)가 흐려져서 밸런스를 잃기 시작한 것이지요.

흔히 걸리는 감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지요. 이렇듯 무릇 모든 병의 시작은 우선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의식 또는 무의식간에 느끼는 마음의 고통이 결국 커다란 몸의 고통이 되어, 둔한 우리에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이제는 자신을 꼼꼼히 돌아볼 때라고, 경계 경보를 보내오는 것이지요.

유마거사가 짐짓 병이 났다고 소문을 내니, 세존은 병문안 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쟁쟁한 세존의 제자들과 보살들이 차례차례로 '유마와 같이 고매한 분은 실로 감당키 어려워 문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하나같이 뺍니다. 결국 대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거동하기에 이릅니다.

'전혀 오신 바가 없이 이렇게 오셨군요, 전혀 만난 바도 들은 바도 없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군요.' 방장(方丈)에 들어서는 문수보살을 유마거사가 맞이하며, 드디어 '세기의 법담'이 시작됩니다. 방장이란 사방 일장(四方一丈)의 줄임말로, 유마거사가 기거하던 방의 크기를 말하는데, 사찰의 주지스님 방을 방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합니다. 일장(一丈)은 십척(약 3.33m)을 말하니, 사방 3m 남짓의 그리 크지 않은 자그마한 이 유마의 방장에서, 불국토와 현세를 넘나드는 다양한 변재와 지적 충격을 던져주는 연이은 대담들이 펼쳐집니다.

<유마경>은 탁한 세상 속에서 온갖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범부(유마거사)가 소위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출가한 무리, 세존의 성문들과 보살들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가하지 않은 아마추어 신자인 거사가 지혜와 계율을 상징하는 문수보살과 성문 무리에게, 생과 멸 · 보살행 · 궁극적 깨달음 등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심오한 개념들을 알기쉽고도 평이한 언어와 흥미로운 변재의 방편으로 가르칩니다.

'그대가 아픈 원인은 무엇이며 그 병은 언제쯤 낫습니까'라고 문수보살이 묻자, 유마는 '모든 중생의 아픔이 남아있는 한 제 아픔은 계속될 것'이라며 '중생의 아픔은 곧 보살의 아픔'이므로, '보살의 병은 바로 대자비심이 그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더불어 같이 아파하는 마음의 발로'가 바로 자비심 · 보살행의 시작이라고, 문수보살에게 거꾸로 보살의 마땅한 마음가짐을 역설합니다.

모든 형식과 사회적 체계, 지적 가식을 넘어 '마음'을 문제삼는, 혼탁한 세상 속의 구제하기 힘든 중생을 과감히 껴안으려 하는 대승불교의 핵심을 집어낸 이 한 장면은, 중국 남북조시대부터 석굴 및 조상비석에 자주 등장하는 테마로 대유행을 하였고 수당대에 역시 벽화(그림1) 및 회화로, 송원대에는 주로 백묘화 등으로 묘사되어 그 유구한 전통을 자랑합니다. 일본 유마경 신앙의 시작은 성덕태자(聖德太子, 일본 아스카시대에 불교를 최초로 부흥시킨 인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에게 <유마경의소(維摩經義疏)>라는 주석서를 짓도록 영감을 준 사람은 그의 스승인 고구려승이었다고 합니다. 또 매년 일본 나라 흥복사에서 거행되는 법회 '유마회(維摩會)'의 아스카시대 유래와 백제승려 법명니(法明尼)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이미 유마경 신앙은 매우 유행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 전통이 이어져 통일신라시대 석굴암의 입구 위 감실에도 유마와 문수가 법담하는 조각좌상(그림2)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마는 주미를 들고 팔걸이에 비스듬이 유희좌로 앉았는데, 자태도 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두루뭉수리 표현하고 얼굴 모습도 특별날 것 없는 속인입니다.

반면 문수보살은 두광 및 신광의 광배 · 보관과 섬려한 천의에 영락장식을 갖추고, 반듯히 연화좌 위에 앉아 양손은 검지와 중지의 두 손가락을 세워 소위 '입불이법문(入不二法門)'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격식을 갖추지 않고 추상적으로 표현된 유마와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모양새로 보면 여지없이 흐트러진 자태의 유마가 단정한 문수에게 단단히 가르침을 받는 듯하지만, 실제는 그 반대이지요.

장사하여 돈도 많이 모으고, 술과 도박도 하고, 음식과 애욕도 즐겨 속세적 권세와 향락의 지저분한 냄새를 가득 묻힌 유마가, 위엄과 향기 풍기는 보살 및 성문의 프로 집단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이미 그 경지에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겪었기에, 절절히 고민하여 체험하였기에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역시 득도하리라는 5년간의 처절한 노력 끝에, 그 집착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는 해탈을 맛 본 것이겠지요.

<유마경>은 위대한 부처 또는 성자가 경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한갓 속세인인 거사가 경을 설하는 주체라는 설정 자체가 참으로 파격적입니다. <반야심경>과 더불어 공(空) 사상을 설한 가장 초창기 대승경전에 벌써 교단적 전통과 형식주의를 단숨에 뛰어넘어버리는 이러한 대담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유마경>은 중국 남북조시대(439-589년)에 죽림칠현(竹林七賢) 등 특히 남조의 사대부 지식층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특히 당시 진흙탕과 같은 시대상에 반하여 더욱 호응을 컸으리라 짐작됩니다.

유명 불교학자 카마타 시게오씨는 '공 사상 즉 불이(不二)의 경지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일체의 대립을 초월한 무대립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대립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의 경지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가족을 위해, 순간 비굴해지고 약해지는 모순을 사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이 구차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길들여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불(成佛)의 길은 있다고 유마거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 명예, 지위, 애욕의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구속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유의 경지를 유마거사는 보여줍니다. 유마(또는 유마힐)란 원어 비말라키르티(Vimalakirti)의 음역입니다. 그 뜻으로 풀이하면 정명(淨名 또는 無垢稱)으로 '청정함을 일컬음' 즉 '청정한 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의 이름처럼 그는, 흙탕물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 번뇌가 들끓는 속세에서도 청정한 자성(自性)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불이(不二)의 실천적 수행을 몸소 보여줍니다.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지요.

'진정한 길은 공중 드높은 어딘가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바닥에 바싹 밀착해 나있고 오히려 수없이 걸려 넘어지게끔 되어 있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불교의 뿌리 초기불전, 초기불전연구원이 옮기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불교 2600년의 전개에도 그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를 거부하고 나무가 살아남을 수 없듯이 뿌리를 모르는 불교는 역사를 아는 이 시대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빠알리 삼장은 불교 만대의 뿌리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부처님의 원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은 이러한 **빠알리 삼장의 한글완역**을 발원하여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지금 열과 성을 다해 빠알리 삼장의 완역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원음이 우리의 말과 글로 이 땅의 자손만대에 전승되어, 한국불교의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의 빠알리 삼장 역경불사 [3차 5개년 계획]

■ 제1차 5개년 계획 (2005년 ~ 2009년)
2005~6년 : 디가니까야(장부) 전3권으로 완역출간
2006~7년 : 앙굿따라 니까야(증지부) 전6권으로 출간 진행중
2007~8년 : 상윳따니까야(상응부) 전6권으로 출간예정
2009년 : 맛지마 니까야(중부) 전4권으로 출간예정

■ 제2차 5개년 계획 (2010년 ~ 2014년)
① 율장(위나야 삐따까) 및 논장(아비담마 삐따까) 출간예정
② 쿳다까 니까야(소부)의 장로게, 장로니게, 우다나(감흥어경), 이띠웃따까(여시어경) 출간예정
③ 빠알리-한글 대사전 출간예정

■ 제3차 5개년 계획 (2015년 ~ 2019년)
① 나머지 쿳다까 니까야(소부) 출간예정
② 논장의 주요 주석서 출간예정
③ 빠알리 고유명사 대사전 출간예정

※ 그 외 한역 아함경들을 빠알리 삼장의 언어적 이해를
토대로 새롭게 번역하고 북방불교의 토대인 《아비달마



▶초기불전연구원 출판도서 안내

디가 니까야(長部, 길게 설하신 경) (1 · 2 · 3)
각묵 스님 옮김 / 신국판(양장)
제1권: 616쪽 / 제2권 600쪽 / 제3권: 688쪽
정가: 각권 30,000원
(초판 2006년, 2쇄 예정) * 제3회 보현학술상 수상

앙굿따라 니까야(增支部, 숫자별로 모은 경) (1 · 2)
대림 스님 옮김 / 신국판(양장)
정가: 각권 30,000원 (초판 2006년)
제1권: 664쪽 / 제2권: 656쪽
* 3 · 4 · 5 · 6권은 2007년에 출간예정임

청정도론(위숫디막가) (1 · 2 · 3)
대림 스님 옮김 / 신국판(양장)
제1권: 536쪽 / 제2권: 584쪽 / 제3권: 536쪽
정가: 각권 30,000원 (초판 2004년, 2쇄 2005년)
* 본원의 자부심. 제13회 행원문화상 역경상 수상

아비담마 길라잡이(아비담맛타 상가하 역해) (상 · 하)
대림 스님 / 각묵 스님 옮김 / 신국판
상권: 490쪽 / 하권: 408쪽
정가: 각권 15,000원 (초판 2002년, 5쇄 2006년)
* 어려운 논서임에도 5쇄까지 출간한 본원의 베스트셀러 불서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대념처경 및 주석서)
각묵 스님 옮김 / 변형신국판 280쪽
정가: 10,000원
(초판 2003년, 개정판 2쇄 2006년)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출입식념경 및 주석서)
대림 스님 옮김 / 문고판 152쪽
정가: 6,000원
(초판 2003년, 개정판 1쇄 2005년)

• 책주문: 054-743-8579, 052-271-8579 (초기불전연구원)

초기불전연구원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hobul (초기불교와 아비담마에 대한 자료가 풍부니다)



대행스님

이 창살없는 인간 게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 몸 속에 지금 미생물이, '예전에 나는 이렇게 됐었다.' 하기 이전에 '지수화풍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 다음에 '미생물이 있구나!' 이거죠. 미생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몸속에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모습을 해가지고 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태초예요, 자기 생의 태초. 자기 오장육부를, 이 세포를 전부, 살이든지 뼈든지 세포든지. 그 모두가 겹겹이 돼 있으면서 생명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들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그렇게 살면서 물리가 터져가지고 지혜가 나온 것이 바로 자꾸자꾸 형성을 시켜가는 겁니다. 요만한 벌레 하나가 날아다니는 벌레가 되지 않나, 요만한 벌레가 매미가 되질 않나. 이렇게 진화된 것을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잘 아시고 계십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옷을 벗는 겁니다. 옷을 벗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더 차원을 높여서 자기 몸을 형성시키면서 다리가 짧으면 길게 만들고 길면 짧게 만들고 아주 자유자재로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부처님 법이죠. 얼마나 무변한 법을 여러분이 가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법신(法身)이고 화신(化身)이고 보신(報身)이고 부처고,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즉 말하자면 부적을 써서 베갯속에 넣거나 어디 붙이거나 하는 이런 미신 짓들을 한다면 죽어서도 그 차원이니 어떡하죠? 요다음에 태어나서 그 차원끼리 또 만나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다른 게 나올 게 없거든. 지금 세상을 살펴보세요. 백봉 거사 말했듯이 끼리끼리들 모이지 않았나? 사람도 끼리끼리 모이고, 물건도 끼리끼리 모이고 또 물건을 갖다 쏟아놓으면 골라요, 끼리끼리. 골라서 놔요. 얼마나 역력하고 에누리가 없는지 철두철명한 게 이 부처님 법이에요.

그림도 여러분이 다 그려서 이렇게 나오셨지만 말입니다. 잘나고 못났든지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간판이 좋은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꼬임에 빠져서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봐 일부러 아주 험악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수도 있어요, 각오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 사회나 국가적으로 참 이득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춘보 선사라고 계셨는데 그 춘보 선사는 원효 대사처럼 만날 남한테, 뭡니까? 파계중이라고 만날 돌림을 받았어. 그런데 이 스님은 그런 걸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 거 탓하지 않고 여기 가도 "아이구", 저기 가도 "아이구" (고개를 숙여 보이시면서)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사람 같지도 않지. 그랬지마는 그분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원효 대사보다도 더 능력을 참 많이 발휘했다고 봐요.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때에 참, 국난에 빠져서 어려웠을 때 조선에 이익을 주었다는 얘깁니다. 나라가 국난에 빠지니까 스스로 일을 벌인 겁니다. 어떻게 벌인 건가? 청국으로 하여금, 무슨 일로 이쪽으로 청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참작하시라고 미리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역력하고 에누리가 없는지 철두철명한 게 이 부처님 법이에요

어느 때 정승을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가난했습니다. 옛날에 양반은 나가서 막일을 못했습니다. 어느날 춘보 선사가 그 집엘 들렀더니 사랑방에 앉아서 글쎄 짚세기를 꼬고 있지 않습니까? 호피를 깔고 앉아서 발을 치고서, 그렇게 당당하던 그 정승이 하루 아침에 정승을 그만두고 나오니까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살림은 가난하고, 마음은 꼿꼿하고, 돌림성은 하나도 없고, 지혜라는 게 있어야 돌림성이 있지. 그래서 종들은 다 나가고 그러니깐 호피를 깔고 앉아서 짚세기를 꼬는데, 호피가 때가 꼬질꼬질하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 춘보 선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그 춘보 선사라는 분이 나라에까지도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랬으니까 어디 고을 하면 벌써 빠삭하지 않습니까? 고을 고을에 다니면서 원효 대사처럼 많이 구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인정을 하고만 있었지, 뭐 불러다가 어떻게 한 건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행을 그렇게 잘하셨으니까 인정을 받고 있는 처지라. 그 친구를 쳐다만 보고 있다가 밤을 새우고 이튿날 아침에 "여보게, 자네가 깔고 앉았던 거 나 좀 주게."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나?" "새까맣고 때가 묻은 것을 갖다 바깥에 나가서 털어다가 날 좀 주게. 내가 정승한테 가서 팔아다 줌세." 그러니까 그냥 자지러지게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놀라지 말고 내 뜻을 잘 생각을 해보게. 부처님 법이란 이렇게 좋은 걸세." 하고선 그걸 싸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싸서 달래가지고 가서 정승,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그럴까? 그냥 정승이라고 합시다. 정승한테 가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앞으로 9년이 있으면 청국에서 이 나라 보물을 청해 와. 그때 보물로 쓸 테니까 이것을 잘 싸되, 백지로 싸고 또 싸고 일곱 번을 싸고 여덟 번째 싸되 공단(貢緞)으로 싸라. 공단으로 싸고 난 다음에는 상자를 만들되 아주 튼튼히 삼겹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라." 지금으로 치면 도끼로 쳐도 영 쪼개지지도 않게 해서 잘 모셔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깐 그 정승이 가만히 생각할 때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백 냥을 받고, 그때 오백 냥이면 달구지에다 실어야 돼요. 무거워서요. 그래서 달구지에다 실어다가 갖다 주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삼년 후에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깐 또 짚세기를 꼬고 있어요. 그걸로 빚진 거 다 갚고 그러니까 물 퍼붓기죠, 밑 빠진 독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보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한 바퀴 휘 도니까, 글쎄 찌그러진 질요강이 있지 않습니까? 밭동구리에 오줌이 담겨 있는 누렇게 된 질요강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좀 북북 닦아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건 뭘 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내가 팔아다 줄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물우물 쌌습니다.

싸가지고서는 가서 또 그 정승한테 그랬습니다. "육년만 있으면 이것이 큰 보물로 다 쓰일 테니까 오백 냥만 내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지금으로 치면 임금을 봐도 그렇게 호락호락 안 해요. 그게 한 가지 흠이라면 흠이겠지마는 그래서 그 정승은 그 말을 또 믿었어요. 그것을 또 그렇게 싸고 싸서 상자에다 넣어서 지금으로 치면 그냥 튼튼하게 그렇게 넣어놨죠. 또 이제 실어다 주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죠. 실어다주곤 또 올라갔다 삼년 만에 내려오니깐 또 그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로다가 보태주는 것은 참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 내려오니깐 또 그 지경을 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안팎을 다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깐 삿갓 쓰던 거요, 그분이 정승으로 계실 때에 낚시질을 하느라고 삿갓을 썼었는데 추녀 밑에다가 걸어놓은 것이 아주 사그러져서요, 새똥 뭔 똥 하고 그냥 사그러져서 바슬바슬하거든요. 그러니깐 할 수 없이 "여기다가 물 좀 뿌려주게. 물 좀 뿌려서 누굴누굴하게 해서 이것 좀 싸주게." 그러니까 "여보게, 그건 내다버리거나 아궁이에다 넣어도 시원찮은데 그걸 가지고 가면 뭘 하나?" "글쎄 걱정 말고, 우리나라를 구하는 일도 되네. 이것이 지혜일세."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가져가서, 삼정승한테 얘기를 하고 삼년만 있으면 그렇게 보배로 쓰일 것이니 돈 오백 냥만 더 내라고 그래가지곤…, 하하.

지금 아마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누워 있는 부처님 앉아 있는 부처님 서 있는 부처님이 다 당신이시군요

"삼백 냥…, 오백 냥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면 아마 욕 많이 할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그래서 오백 냥을 또 갖다 주고 갔는데, 삼년 뒤에 청국에서 사신이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조선의 보물을 내놓으라' 고 그런 겁니다. "보물을 내놔라." 이런 겁니다. "보물을 안 가져온다면 여기 조선에 어떠한 벌을 행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나라도 살기가 어려웠던 때인데도, 그렇게 또 당하니 말입니다. 이게 한두 번째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당하니까 참 살기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자 그때 서춘보 스님이 생각났습니다. 임금이 머리를 싸고 그냥 걱정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조선의 보물이, 청국에 들어갈 보물이 어디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되고 춘보 선사가 갖다 준 그것이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춘보 선사를 찾느라고 온통 산을, 사람을 풀어서 헤맸는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춘보 선사는 벌써 그것을 알고 하산하셨습니다. 내려와서 "나를 그래서…" 번연히 알면서도 묻는 겁니다. "왜 찾으셨습니까?" 하고요. 그러니깐 그러그러해서 이렇게 스님 생각이 나서 찾았노라고 해요. "지금 밥을 못 먹고 싸매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걸 해드리지 못한다면 우린 다 죽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러면 그거 싸놓았던 거를 해드린다.' 하면서 여기 사신과 거기 사신과 모든 의식을 다 갖추어서 춘보 선사가 앞장을 서고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 춘보 선사는 아주 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데 정승들은 그냥 밥을 못 먹고 혓바닥이 죄 해지고요, 밥을 넣으면 그냥 모래알 같은 거라요. 글쎄 찌그러진 그거, 정승이 쓰던 그 삿갓 그걸 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조선의 보물이 됩니까, 글쎄? 그러니까 뭐 입도 쓰고 죽을 맛이죠. 저 춘보 선사는 앞장을 서서, 내일 죽더라도 먹을 건 먹고 돌아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죽으라고 그랬어요. 아주 죽으면 사는 길이 있다고요. 그래도 못 알아듣거든요, 유교로만 나가서.

그래서 강을 건너자 청국에서 마중을 나와서 그냥 좍 둘러섰거든요. 그러니까 춘보 선사가 하는 소리가,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보물은 어디에도 없는 보물이니 밤새도록 잘 지켜라." "누구 하나 손대지 못하게 지켜라." 거기서 나온 군졸들, 여기서 나간 군졸들이 그냥 쫙 둘러서서 화톳불을 놓고 그냥 지킨 거예요, 아주 겹겹이 선 거예요. 그렇게 위엄 있게 해가지곤 턱- 당도했어요.

청국 천자가 턱 나오는데, 당장 그렇게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춘보 선사가 말했습니다. "이 귀중한 보물을 단번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풉니까?" "깊이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써, 부처님의 그 뜻을 찬양하면서 조선국의 그 고마움을 음미하면서 삼일을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거를 뜯어야 합니다." 이러거든. 그러니 글쎄 얼마나 충격을 주었습니까? 삼일 동안을.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전부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천자가 하는 소리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뭐기에 그런가?" 했습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 없는 걸 가져와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 삼일 있다가 모두 위에 앉았고 밑으로 죽 앉았고 그

☞22면으로 계속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짱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불교의식 범음 수련생 범패 모집
수림사에서는 불교 의식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교육과정
◆ 기초과정 :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공.
◆ 시식과정 : 49재 및 천도재 의식.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 교육방법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3~5시
◆ 접수일시 : 수시접수
◆ 개 강 일 : 2007년 3월 6일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수림사 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 011-9769-8868



그림 · 최주현

스스로 유유히 융통성 있게 지혜롭게 안으로 굴리세요!

속 상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자, 세 번째는 아주 철망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잘 간직하라 이렇게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단번에 명을 내리기를 조선국에 공단 필, 금은보화 돈 이런 것을 수없이 배에다 실으라고 했어요. 배에다 실어서 조선국으로, 그 수없는 배에다 실었으니 그때 한참 죽을 판에 말이야. 우리네 살림이 죽을 판국에 그렇게 많은 보물과 그 모든 걸 보내왔으니 나라가 궁색하던 때에 오죽이나 잘 썼겠습니까? 요긴하게. 그런데 서춘보 선사는 가져온 보물을 좀 드리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싫다는 말도 안 하고. 허허허, 받아가지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골골이 다니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또 그 친구 있죠, 못 사는 친구. 거기 또 한 덩어리 쥐어주고요, 다 풀어놓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시자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대답은 해놓았는데 영 일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화딱지가 나서 말입니다, "아무개야!" 부르면 대답 안 하고, "에잇!" 그냥 속상해서 한다는 게 그만 아침에 부르면 세숫물 떠다주고, 대답이 없이, 또 아침에 구멍 눈으로 그냥 보니까 아파서 그러고 있으면서 "아무개야!" 부르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수건 빨아가지고 가서 씻겨드리고선 나오고 하다 보니 이게 숙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뭐든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스스로 자기가 알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어떠한 방책으로써 뭐가 잘못돼 돌아가도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두는 까닭에 발전을 한다 이겁니다.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알게 되고, 남들이 막 얘기를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럼으로써 그걸 깨닫고 또 발전을 잘 해나가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발전성이라고, 발전을 이루는 데 쓰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난리가 나지 않으면 또 부자 노릇할 수도 없고 상인들이 상업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서로서로에 해나가되 다 대책을 세워놓고,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전자의 선사들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대답이 없이 그렇게 했는데, 대답을 해도 때려주고 대답을 안 해도 때려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무개야!" 불러서 대답을 "예." 했으면 시켜야 할 텐데, 안 시키고 했으니 몇 녀석이나 붙어 있겠습니까? 그거. 아마 지금 그러면 미쳤다고 돈 거라고 그럴 겁니다. 뭐를 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세숫물을 갖다 줘도 그 물로 씻지 않고 절룩절룩하고 나가서 세숫물을 떠서 자기가 했습니다. 그러니 글쎄 시자가 생각할 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시자가 스승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다 준 것은 안 썼다는 말입니다. 알고 떠다 주었다면 그건 썼을 텐데. 그래서 그 물을 안 썼기 때문에 그 시자한테는 오히려 화두가 된 거죠. '도대체 이거 무엇인가?' 하고 그냥 관(觀)했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해가지고 스승이 세숫물을 떠다 드려도 안 쓴 거, 불러서 대답을 해도 대답을 들은 척 만 척 한 거, 이런 것을 다 알게 되고 물리가 터졌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러 들어왔던 사람이 다 떨어지고, 몇 안 남은 가운데 공부를 해가지고 무르팍에 엎드려 울면서 "누워 있는 부처님, 앉아 있는 부처님, 서 있는 부처님이 다 당신이시군요." 하고선 울었답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그런다면 다 도망갔을 테죠. 지금은 지금대로의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기 싫은 말도 있겠지만, 하기 좋은 말도 하기 싫은 말도 없이 그저 생각도 없이 여러분 만나면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나라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공부하는 얘기도 하는 것이, (시계를 보시고) 참, 너무나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서로 앉아서 토론한 것을, 설법했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서로가 둘이 아닌 한자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이렇게 나누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나가면서 내 얘기를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교를 숭상하는 데는 미신의 법을 조금도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융통성 있게 그것도,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기복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건 틀렸어." 하지 말고, 스스로 유유히 융통성 있게 지혜 있게 어머니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안으로 굴리세요. 어머니도 이러한 뜻을 아시게끔 주인공에 모든 걸 놓고 가다보면 스스로 그 에너지가 어머님의 마음속에서도 같이 돌아가게 되죠. 내가 행으로도 자꾸자꾸 달라지면 '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거기가 옳은가봐.' 그 생각이 들 때에 "어머님 이러고 저러고…." 듣지 "오늘은 거기 가니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하고서 "그런 것 같아요. 생활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얘기를, 무슨 불법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듯이 하다 보면 어머님도 좋아져서 마음이 흐뭇해지시고, 자식도 흐뭇하고 좋겠죠. 급하게 그냥 확 부러뜨리면 꺾어져요. 모든 게 불화가 일어나고 야버지든 어머니든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자식을 이끄는 데도 역시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침착하게 생각해가면서 연구하는 것이 천체 물리를 연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날까지 이렇게 짧으면 길게 하고 길면 짧게 하고,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 창살 없는 인간 게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7년 1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1면에서 계속

잘났든지 못났든지 마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러는데, 정승들은 삼 일을 그냥 못 먹어서요, 빌빌빌빌 하거든. '저거를 어떻게 해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춘보 선사는 그렇게 당당하게 있으니, 그걸 알아야 뭐 자기네들도 좀 믿고 좀 안도할 텐데 믿지 못하겠거든, 도무지. 그러니까 그냥 입이 지지리 지지리 타고 죽겠으니까 춘보 선사 뒤로다가 물러섰고, 정작 말할 사람은 뒤로 물러섰고 춘보 선사가 앞에 앉은 겁니다.

앞에 앉아서 하나를 뜯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몇 시간을 뜯은 거죠. 하하하. (대중 웃음) 전부 합장을 시키면서 뜯은 겁니다. 뜯으니까 웬 걸요. (대중 웃음) 그냥 때가 쪼절쪼절 붙은 거, 새까만 거, 털도 하나도 없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그 중국 천자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보물이 되느냐는 겁니다. "너희들, 너희들 이것이…." 그냥 천둥같이 호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이 춘보 선사는 당당히 "이것은 공자님이 삼천 제자를 가르칠 때 깔고 있던 호피다." 이거야. 하하하. (대중 웃음) 공자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앉아있던 걸 우리 조선국에서 이것을 간직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청국에 있느냐." 이겁니다. 조선국에서 이걸 간직하게끔 되어 있으니 이 나라도 나라냐고, 이거 사람이 없는 나라 아니냐고 말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하니까 그만 천자가 그냥 기가 탁 죽었다. (대중 웃음) 그래가지고 무릎을 탁 치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의인의 방석 하나 간직하지 못했으니, 이게 참 죄송하기 짝이 없다." 고 아주 그냥 고개 숙였죠, 춘보 선사한테.

아,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푼 것이 뭐냐 하면 아니 사글사글한 삿갓 아닙니까, 글쎄. 사글사글한 삿갓인데 새똥이 앉고 그냥 푸는 것도 금방금방 이렇게 푸는 겁니까, 어디? 한 시간을 내리 풀어가지고 턱 놓으니까 사글사글한 그런 거를, 그래도 물을 뿌려서 좀 누글누글해져서 괜찮지만. 이제는 기가 죽어서 그냥 "이건 뭔데 그러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태공이, (대중 웃음) 강태공이 시절을 낚시질할 때 쓰던 삿갓이라 이거야. "그런데 이것도 조선국에서 이렇게 간직해야 되느냐?" 하고 큰소리로 탕 울리니까 거기에 그냥 기가 팍 죽는 거야. 기가 탁 죽으니까 사신으로 왔던 사람이며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선 그냥 땅으로 눈을 떨어뜨리거든요. 그 위력이 너무나 당당하니까.

또 하나를 풀어서 놓으니까, 그때는 그냥 모두 눈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뭐 더디든지 말든지 합장을 하고 말입니다. 춘보 선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니 그 꼴이 뭡니까? 그래서 또 풀어놓으니까는 그때 버캐가 누렇게 앉은 (대중 웃음) 찌그러진 참, 그 질요강이지 않습니까? "질요강이? 이건 그래 뭐 뭐 뭐가 보물이 되겠소?" 하니까 그때 춘보 선사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청국 보물이지마는 이건 우리나라 최초로 연구해서 (대중 웃음) 최초에 구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직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조선국에 제일 가는 유물이 됩니다."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참, 이거는 잘 보관해 두어야 될 거라."고 하면서 그대로 명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상자를 셋으로 그때나 물리가 터져서 지혜로운 일들을 할 때에, 내 얘기했죠. 춘보 선사가 일을 해놓고 춘보 선사가 감당을 했다고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몸으로 다녀서 물질로 해서는 호국불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로 자동적으로 되게끔 굴리는 그런 무(無)의 과학이 있다는 얘깁니다, 무(無)의 과학!

그러니까 그때 춘보 선사는 그쪽 청국의 천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놓고, 조선이 살 수가 없으니깐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놓고, 즉 그런 걸 찾게 해놓고 미리 대책을 세운 겁니다, 미리미리.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마는,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가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끌고 다니는 이 몸도 벌써 자기가 힘이 있다면 몸으로 다녀서 불교를 그렇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온 누리에 두루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 대책을 세우는 것도 다 그렇게 돼 돌아가게끔 대책을 세워서 해가되 먼저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걸로 비유할까요? 어떤 스님이 부스럼이 크게 다리에 났거든요. 부스럼이 잔뜩 났는데 아침 새벽에도 그냥 이게 아프니까는 "아무개야!" 하고 시자를 부릅니다. 그러면 "예!" 그러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대답을 했다 하면 뚝 끊어지고 안 시켜요. 또 대답하면은 아무 일도 시키질 않아요.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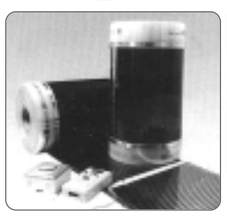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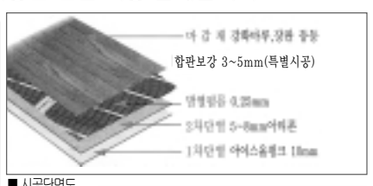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2005 12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 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5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사무실, 어린이집, 식당 등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보통콩 63일 작업 정성

신비의 약 콩 금단화



당뇨, 비만, 변비, 과음, 숙취 등에 특히 좋다는 **검정콩 금단화**는 자궁질환 등의 부인병과 위장병 고혈압 등 성인병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

옻나무와 소나무 액을 채취한 후 한달간 발효시켜 사용하므로 옻의 독성은 남아있지 않다고, 그 밖의 재료인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 등을 섞어 생즙을 낸 후 옻진 송진과 다시 섞어 액즙을 만든다.
그 다음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액즙에 십여일간 담가 두었다가 꺼내어 20여일을 말린다.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63일이나 소요 된다. 콩은 서리태콩을 사용하고 꿀도 반드시 토종꿀 만을 구해 사용한다.

◆ 체험사례

① 혈액순환이 안되고, 손과 발이 냉했었는데 금단화 20정도 먹고 온 몸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 광주 최숙자 님
② 발 뒤꿈치가 피가 나고 갈라졌었는데 7,8개월 금단화를 먹고 난뒤 갈라짐이 없어지고 맨질 맨질해졌습니다. - 평창동 김미자 님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一人 3회복용)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2)3437-8282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



불자 세상보기

서 동 석
前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여전히 '타는 목마름'으로…

20년 전 이때쯤, 나는 공주교도소에서 한창 징역을 살고 있었다. 1986년 때 이른 여름더위가 뜨겁던 5월, 인천 주안네거리에서 있었던 '5·3 인천항쟁'의 주범으로 1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지금은 교도소 안에서 신문을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까막소'에 있으면 세상소식을 전혀 알 수 없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면회 오는 집사람을 통해 87년 1월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서울대생 박종철이 고문으로 죽었다는 사실도 그렇게 알았다.

아, 어떻게 이 사실이 세상에 밝혀졌을까? 그 이전에도 숱한 사람들이 고문과 암살로 목숨을 잃었다. 어떤 사람은 발목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매달린 채 바다 속에서 발견된 적도 있다. 그래도 이 사실은 세상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박종철의 죽음은 곧바로 정확하게 드러났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다. 그 이전 숱한 사람의 목숨이 민주화의 거름이 되었고 이제 종철이의 죽음으로 민주화의 꽃망울이 기지개를 펴고 있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작에 한국천주교는 박정희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의 맨 앞에 서 있었다. 여기에 비해 한국불교는 거의 외면한 채 세월을 보냈다. 아니 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기는커녕 독재정권이 조정하는 '반공궐기대회'에 동참하는 '배신'의 모습을 보였다.

80년대 중반 젊은 불제자들이 나섰다. 민중해방의 새 세상을 만들자고, 그것이 참으로 이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드는 일이라고 외쳤다. 어느덧 이런 외침이 세력화되던 참에 종철이의 죽음은 커다란 파도를 일으켰다. 아름다운 청년 불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여서는 안 된다는 각성이 일었다.

종철이의 49재가 있던 날, 87년 3월 3일을 기점으로 실로 한국불교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스님들이, 사부대중이 대거 거리로 나와 국가공권력과 맞서기 시작했다. 승복이 최루탄가루로 뒤덮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87년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를 규정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냈다. 6월 항쟁은 국제사회에서도 민주화 투쟁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낡은 사회질서를 해체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기꺼이 근로대중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아야 한다. 민불련의 기치도 이러하였다. 87년 여름, 한국불교가 마침내 기만과 위선의 낡은 껍질을 벗어버렸다.

나는 6월 항쟁 덕분에 형기를 두 달 정도 앞두고 석방되었다. 7월 8일 공주교도소를 나오자마자 집사람과 민불련 동지들이 마련한 승합차를 타고 연세대로 갔다. 학교는 시민들로 가득 찼었다.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렬 열사의 영정으로 장엄한 무대에 올라 '가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누구라도 마음껏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다. 안타깝게도 박종철 열사, 이한렬 열사의 바람대로 87년 민주화투쟁이 민중의 해방된 세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5년째 민주인사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신자유주의'의 수탈체제는 여전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권보호소로 변모한 정도이지 실제로 보안법은 버젓하게 살아있다.

삶의 질은 더 나빠지는데 국민소득은 올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의 편중이 더 극심해졌다는 반증이다. 민중의 아픔이 여전하니 민중불교운동의 당위성도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런데 한국불교의 '87년 정신'은 어느새 가뭇없어졌다. 94년의 모습도 이젠 사라졌다. 다시 박종철 열사의 영정을 들고 거리에 서야한다. 항쟁의 성과를 누린 소수의 정치권 인사를 시비하는 건 힘 낭비다. 민주화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한국불교가 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불자의 눈

조계종의 중앙종회는 종단을 구성하는 사부대중의 대의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중앙종회의 구성 정족수는 비구 비구니 스님 81명이다. 남녀 재가신도는 배제된 상황에서 종단의 법률 제개정과 각종 현안을 처리한다.

그런 가운데 중앙종회는 청정성과 윤리성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중앙종회의원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니 '타락선거'니 하는 꼬리표가 붙는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청정성을 요구받는 승가사회에서 그런 꼬리표를 달고 '고생' 하는 것이다. 종단 내에서도 청정 선거를 위한 각종 제안과 법률적 장치 마련의 시도가 반복되지만 이렇다 할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중앙종회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준비위가 215명의 승재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는 종단 구성원 누가 봐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준비위의 설문 항목들을 들여다보면 중앙종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중앙종회 부끄러운 성적표 미래 위한 '거울'로 삼아야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이다. 그 일반적인 사항들은 중앙종회와 의원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청정성과 윤리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사항'들에 대한 제3자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거나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선거의 혼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가 인정했다. 중앙종회의 청정성과 윤리성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

조계종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축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중심축은 중앙종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행부인 총무원의 행정을 돕고 견제하는가 하면 각종 종단 권익과 발전의 비전을 창출해 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대의기관이 종도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종단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말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 성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승가정신을 상실한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승가정신이란 바로 요즘 유행하는 '화합과 상생'에 기초한다. 그러나 현실은 계파가 스스럼없이 인정되고 문중의 이해관계가 '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 여기서부터 성적은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원칙을 벗어나는데서 부작용을 낳는다. 중앙종회 역시 '선거법'이나 '중앙종회 회의법' 각종 위원회 관련 법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계파의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왜곡되게 실행되면서 대립과 갈등의 국면을 연출해 내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준비위의 '중앙종회 성적표'가 중앙종회의원과 각 종무기관의 소임자 나아가 종단 구성원 모두가 청정한 대의기구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들었다 — 내부의 적

"정견(正見), 곧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일체법의 참다운 실상을 아는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으로 흩어져 있는 마음을 가다듬고 맑고 고요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상응부경전〉

한나라당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인 원희룡 의원이 1월 18일 대전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이 지리멸렬하면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싸워야 할 최대의 적은 한나라당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평범한 얘기지만 아주 무서운 말이기도 하다. 나라든, 단체든, 가정이든 집단이라면 어느 곳이든 예외 없이 안팎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 '적'이란 내부의 분란을 의미한다. 안으로 시비가 넘치면 밖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어느 집단이든 욕심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욕심이 넘치면 정견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자비문중인 승가에서조차도 화합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쳤다.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싸우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들 몫이다.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한 번 둘러보자는 것이다. 내가 속한 집단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부의 '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말이다. 욕심을 품은 사람이라면 그 욕심을 버려야 하고, 갈등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면 미연에 잘라내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역사는 교훈이다. 그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한명우(취재부 기자)

새해 이것만은… — 문화포교 패러다임 견고히 하자



무한한 콘텐츠 작은것부터 실용성있게 개발해야

〈법화경〉 '비유품'에 보면 장자와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노는데 정신이 팔려 불타고 있는 집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세 아들에게 장자는 이와 같이 소리쳤다고 한다.

'너희가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 하던 희유한 장난감이 여기 있는데, 너희가 지금 와서 가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회하리라. 저렇게 좋은 양이 끄는 수레(羊車), 사슴이 끄는 수레(鹿車), 소가 끄는 수레(牛車)가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타고 놀기가 좋으니라. 너희는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너라. 달라는 대로 너희에게 주마.'

이 말을 들은 세 아들들은 아버지가 말하는 장난감이 마음에 들어, 매우 기뻐하면서 서로 밀치고 앞을 다투어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러자 장자는 여러 아들들이 무사히 나왔음에 기뻐하며 큰 수레를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불타는 집은 삼계화택(三界火宅)을, 세 가지 수레는 삼승(三乘)을 의미한다하여 불자들에게 널리 회자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다시 거론함은 오늘날 사회변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문화'를 불교계가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다.

요즈음 불교계에는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흐름에 편승하여 '문화포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는 양적으로 급속히 늘어난 산사음악회나 템플스테이, 사찰에서의 문화행사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문화'는 그 자체로 명제이자 패러다임이지 '수단 · 도구'의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화경의 비유로 돌아가 생각해보자. 장자는 아들들을 살리기 위하여 '수레'라는 것을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소위 근기에 맞는 방편의 활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수레를 곧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문화포교하면 의례 문화예술행사나 문화프로그램을 연상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인식이 아니다. 문화포교는 곧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불교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 즉 패러다임의 변화위에서만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

자비로우면 저절로 지혜로워진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 중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것에 목말라 하는지를 헤아려 아는 것, 그것이 곧 문화포교의 시작이요, 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이다.

음악회도 좋고, 축제도 좋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를 바라보는 수많은 중생들을 아들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사찰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일일이 안내는 못할지언정 물은 이곳에서, 화장실은 저곳에서, 잠시 앉았다 가시는 곳은 여기라는 안내문을 사찰 구석구석에 붙여 놓는 마음이 곧 '문화포교'의 시작이다. 값 싼 차지만 공짜로 마실 수 있는 툇마루 한 자락이라도 선뜻 내놓는 자세가 문화적 영역에서 불교와 사회가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불교가 지닌 문화 컨텐츠의 양은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 소재가 없어 '문화포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소재에 천착하여 본질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전의 권위적 방식, 일방통행적 방식의 사찰운영이나 관리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 사회를 설득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불교'의 진정한 소비자, 향유자(享有者)인 신도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배려가 '문화포교'의 시작이자 전부임을 명심하자. 김유신(축제기획 불무 대표)

세계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도통사** **神 치유의통사**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도통사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지도자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고 내공 외공을 소유하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 **神치유의통사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총재 무공 합장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7년 1월 25일 (목요반)
2007년 1월 27일 (토요반)
14:00 - 18:00 (10회 과정)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전 수 비 200만원

불교심리철학	서양 심리철학
사마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육효 신 비법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세계최고정신지도자협회 국제참선공지도자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마하보디 사원

일보일배로 '성불의 땅' 까지

티베트 걀첸 라마 1년 6개월 고행…내달 보드가야 도착 예정

티베트의 한 스님이 티베트-네팔-인도에 이르는 '일보일배(一步一拜)' 고행을 1년6개월째 계속 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1월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걀첸 라마(22)라는 이름의 이 스님은 2005년 7월 티베트를 출발해, 네팔을 거쳐 이번 달에 인도 비하르주에 도착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세 발짝을 걷고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三步一拜). 삼보일배는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불교의 수행법이다. 한 발짝 걷고 한 번 절하는 일보일배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는 이기심과 탐욕을 참회하고,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며,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돕고 살리겠다는 서원이 담겨있다.

걀첸 라마 스님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비하르주 보드가야. 보드가야는 기원전 6세기경 석가모니 부처님이 득도한 곳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 세워진 마하보디 사원(사진)이 위치한 불교 제일의 성지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하보디사 옆에 있는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고 유네스코는 지난 2002년 마하보디 사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 스님이 하루 이동하는 거리는 7km 정도에 불과하다. 팔을 뻗어 절을 하고 나서 일보 걸은 다음 다시 절을 하는 방식의 일보일배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목적지인 보드가야까지는 약 180Km가 남아 있다. 앞으로 20여 일을 더 가야하는 셈이다.

걀첸 라마 스님의 일보일배를 본 많은 사람들은 스님의 불심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굳은 의지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현재 이 스님이 이동하는 경로에는 매일 수천 명의 불교도나 힌두교도들이 도열해 음식 등을 제공하면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보드가야에 있는 마하보디사(寺)의 비쿠 보디팔라 주지스님은 "이제 22일 정도가 지나면 걀첸 라마의 길고도 멀었던 여정이 끝이 난다"며 "그는 지금 너무 지친 상태"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베트남 불교계의 전통과 변화 바람

우리에게 알려진 베트남 불교는, 수십 년 간 망명 생활을 하며 서양에 불교 열풍을 일으키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여러 차례 추천된 바 있는 틱낫한 스님을 통해서이다.

수십 년 전에는, 당시 부패한 남베트남 정부에 대항하여 '평화'를 촉구하며 100일에 이르는 단식을 하고 소신공양을 했던 스님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적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노벨평화상에 버금가는 '라프토(Rafto)' 상 수상자로 선정된 틱꽝또 스님이 '출국 후 귀국 불허'가 염려되어 수상식에 참석하러 가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단편적 정보에만 의지하면, 베트남 불교 지도자들은 불의에 저항하는 투사 같은 이미지를 보여준다.

'틱낫한 열풍'이라고 할 정도의 바람이 불기도 했었지만, 간화선만을 유일한 수행법이라 여기는 일부 선사들은 심지어 "틱낫한은 하근기 중생"이라고 폄하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베트남 불교가 우리와 같은 대승불교권에 속하고 선종의 맥을 이어왔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事實 · 史實)조차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곳의 불교는 우리와 비슷한 과거를 갖고 있다. 일부 저항적인 스님들이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정부 권력에 협조적이었다. 이른바 '호국불교'의 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어 보인다.

과거 종교 활동을 금지하였던 중국에서 지난해에 '세계불교포럼'을 개최하여 외국의 불교지도자들을 초청해 대규모 행사를 열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내의 갈등을 풀어 화합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하려는 움직임을 본 바 있다. 결국 전근대 시기의 '호국불교'와 다름없는 '국가불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중국 불교의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는 베트남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의 VNA통신이 1월 17일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베트남 승가회(Vietnam Buddhist Shangha; VBS)'의 고위 지도자인 틱트리틴(Thich Tri Tinh)스님이 이 '승가회'의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에서 "베트남 불교도들은 국민적 단합과 국가 건설에 공헌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는 것이다. 베트남 승가의 최고 지도자인 이 스님이 오히려 '정부 정책 협조와 국민 단합'을 더 강조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나는 우리 불교계를 생각하였다. 올림픽 대회와 월드컵 유치 · 성공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어 정치권 인사들에게 잘 보이려 애를 쓰고, 이제는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기까지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유력 정치인들 지지모임에 얼굴을 비치는 스님들이 적지 않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에서 정치인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순수한 생각과 몸짓을 넘어 정치권에 의지하고 그들에게서 어떤 보상과 지원을 기대하는 행동은 결코 옳지 않다.

동업 중생들에 대한 지극한 비심(悲心)에서 독재 정권에 반대하여 단식을 하고 소신공양을 하며 나라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겪었지만 분노와 복수의 칼날을 볼 수 없는 베트남의 여러 스님들과 정부에 협조해 '단합'만을 강조하는 '베트남 승가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땅의 불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 좌우(左右), 진보와 보수를 내세우며 결국 정치권에 기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불자가 선택해야 할 길일까?

■ 자유기고가

베트남 불교 '호국사상' 등 한국불교와 유사
"국민적 단합과 국가 건설에 공헌해야" 목소리

얼음 조각으로 나툰 분황사탑

中 하얼빈 국제 빙등축제에 전시…석가탑도

얼음조각으로 만나는 불국사와 석가탑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 1월 4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3회 중국 하얼빈 국제 빙등축제에서 얼음조각으로 빚어진 한국의 불교문화유산이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눈꽃축제인 하얼빈 국제 빙등축제에서는 송화강의 얼음을 이용해 2000여개의 얼음건축물과 조각이 빚어져있다.

이번 빙등축제에 한국의 문화유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주최 측이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축제 테마를 '한국풍정(韓國風情)'으로 잡았기 때문.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한국 문화유산은 불국사와 석가탑, 황룡사 9층 목탑 등을 비롯해 광화문, 경회루, 첨성대 등의 문화재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동상 등이다.

여수령 기자

중국사찰서 대졸자 채용
외부교류 · 수익증대 목적

중국 사찰이 자체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졸자들에게 처음으로 취업문호를 개방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4대 사찰 중 하나인 법문사가 산시성 수도 시안 소재 농업삼림대학 출신 석사 4명과 학사 5명 등 모두 9명을 채용했다고 1월 8일자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사회는 최근 사찰들이 외부 교류에 적극 나서면서 광고, 경영 등 전문분야를 전공한 인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번에 채용된 인력은 시안 지방 대졸자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며, 일과가 끝나면 스님들과는 달리 자유로운 저녁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반대 분위기도 적지 않다. 일례로 자체 복지재단과 잡지, TV회사,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 소림사의 경우 불교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한명우 기자

태국 불교신자 살해
무슬림 단체가 공격

태국에서 무슬림 무장세력에 의한 불교도 살해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방콕 AP통신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태국 남부 얄라주에서 불교도 3명이 무슬림 무장세력에 의해 총살당했다고 1월 14일 전했다.

태국 경찰은 또 총살당한 시신 옆에 자신들을 '파타니전사'라고 밝힌 메모를 발견했으며, 이 메모에는 '불교신도들은 보아라. 너희들이 위리의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너희 모두를 계속해 죽일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망한 불교신도는 한 쌍의 부부와 남성 한 명이다. 불교신도 부부는 얄라주 고무종장에서 일하던 중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다른 한 남성은 오토바이를 탄 무장세력의 공격에 의해 사망했다.

불교국가인 태국의 얄라, 나라티왓, 파타니 등 남부 일부 지역은 이슬람이 우세한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불교를 부정하는 무슬림 세력에 의해 연일 폭력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신문 추천
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신상품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 희담석 합장주 증정 /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보이차
해발 3,000M이상 에서 생산된 자연산 야생교목(2년산)



최상의 보이햇차를 고급자사통과 함께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특별할인가 ~~600,000~~
→ 500,000원
· 구성 : 보이차 14편, 자사통

보이햇차는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떫거나 쓰지 않은 최고급 보이차입니다.

보이햇차 야생지 : 운남성의 서북지방(고리공산)으로 서쪽으로는 '티벳', 동쪽으로는 '샹그리라'가 인접한 험한 산악지형으로 매우 청정한 지역임

■ 수입원 : ㈜홍다원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자사통
보이차의 자사통은 이싱 정산에 위치한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 의뢰한 작품으로 순수한 자사의 원료로 만듭니다.
· 크기 : 지름 29cm, 높이 37cm
· 종류 : 담녹색, 황토색



주문전화 현대불교신문사 영업팀 02)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2006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법문세트

인간 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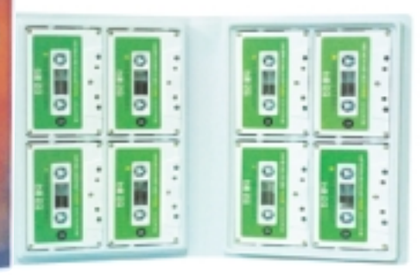
(오디오테이프 8개 1세트)
24,000원(무료배송)

부처님의 생애(팔상성도)를 중심으로 구성, 각 생애에서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최고의 법보시



• 법문내용
I 〈도솔래의상〉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II 〈비람강생상〉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
III 〈사문유관상〉 지선 스님(백양사 유나)
IV 〈유성출가상〉 지광 스님(능인선원 원장)
V 〈설산수도상〉 수진 스님(혜인정사 주지)
VI 〈수하항마상〉 통광 스님(쌍계사 강원 강주)
VII 〈녹원전법상〉 성열 스님(강남포교원 원장)
VIII 〈쌍림열반상〉 원담 스님(조계사 주지)



이 법문은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인간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의 여덟분의 법주(종범 월운 지선 지광 수진 통광 성열 원담)스님들이 2006년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광주 동구 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9